

1994

10 of Today's Most Innovative Churches (Korean)

Elmer Towns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향을 잡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밝다.”

- 빌 하이틀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엘머 타운스 저 / 김홍기 역

나는 교회에 성장하게 하니까?
마침내 교회에 성장하게 하니까?
어떻게 교회에 성장하게 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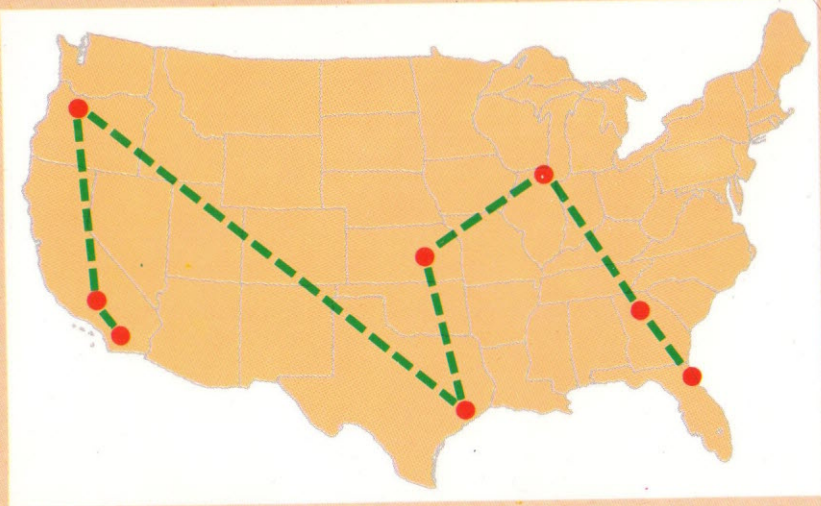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엘머 타운스 저
김홍기 역

오디출판

2000년대 목회를 대비한 교회성장학!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10대 교회 - 그 사례와 원리들



한국에서 교회 성장은 이제 참으로 한계에 다다랐는가?
 21세기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교회 성장과 운영의 한 모범을 보여주는
 미국의 혁신적인 10대 교회들.
 우리는 그 교회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변화없이 성장도 없다
 혁신적인 전략을 세우라
 예배를 바꾸면...
 셀그룹 사역은 효과적인가?
 교구 교회에 대한 비전
 도심지 교회의 새생명
 전통은 고수하되 새것을 마다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은혜 넘치는 교제는 ...
 목회의 전면적 국면전환
 두 곳에 한 교회?



03230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엘머 타운스 저
김흥기 역

요단출판사

MOORE

1871

1871

1871

AN INSIDE LOOK AT

10 OF TODAY'S MOST INNOVATIVE CHURCHES

**WHAT THEY'RE DOING, HOW THEY'RE DOING IT &
HOW YOU CAN APPLY THEIR IDEAS IN YOUR CHURCH**

ELMER L. TOWNS

*"The Church's
future can
be bright if it's
willing to be
spirit directed."*

BILL HYBELS



Regal Books

A Division of GL Publications
Ventura, California, U.S.A.

Copyright © 1993 Jordan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under the title

10 OF TODAY'S MOST INNOVATIVE CHURCHES

By ELMER L. TOWNS

Published by Gospel Literature International

GLINT, P.O.Box 488, Rosemead, CA 91770, U.S.A.

1990

All rights reserved

목차

서문 9

1. 변화없이는 성장도 없다 21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
목회자, 존 맥스웰 박사

2. 혁신적인 전략을 세우라 45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일리노이주 사우스 배링턴시
목회자, 빌 하이בל 목사

3. 예배를 바꾸면... 63

진행하는 교회
캘리포니아주 밴 나이스시
목회자, 잭 헤이포드 II 박사

4. 셀그룹 사역은 효과적인가? 79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오리곤주 포틀랜드시
목회자, 데일 갤로우웨이 목사

5. 교구 교회에 대한 비전 97

페리미터 교회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목회자, 랜디 폼 목사

6. 도심지 교회의 새생명 113

제일 침례교회

플로리다주 잭슨빌시

목회자, 호머 린드세이 II · 제리 바인 박사

7. 전통은 고수하되 새것을 마다하지 말라 127

중앙 커뮤니티 교회

캔사스주 위치타시

목회자, 레이 커튼 목사

8. 그리스도인의 은혜 넘치는 교제는 ... 143

제이 침례교회

텍사스주 휴스턴시

목회자, H. 에드윈 영 박사

9. 목회의 전면적 국면전환 157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쉽 교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

목회자, 마이클 커크 맥킨토시 목사

10. 두 곳에 한 교회? 171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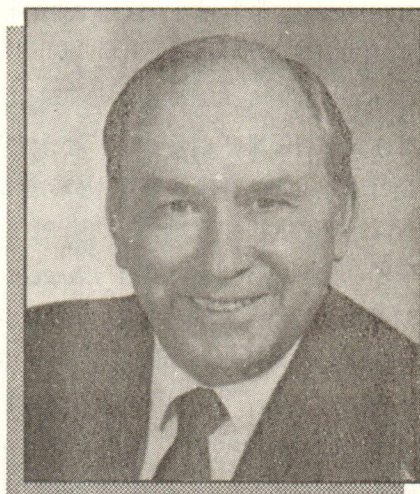
목회자, 폴 워커 박사

분석:

오늘날의 교회를 위한 혁신의 요소들

- 11. 새로운 기대들: 부머들이 교회를 취할 때 185
- 12. 새로운 예배 형태들: 동일한 초점 201
- 13. 목회 지도력의 새 역할: 성직자에서 무장시켜 주는 사람으로 219
- 14. 새로운 구조: 비능률에서 경영팀으로 227
- 15. 새로운 결합: 교회에 등록하는 일에서 관계를 맺는 일로 235
- 16. 새로운 소재지: 하나의 교정 목회에서 여러 개의 교정을 가진 교회로 245
- 17. 새로운 교파들: 신학에서 방법론으로 255
- 18. 요약과 결론 265
- 부록 - 12개 비교 도표 269
- 역자후기 282

서문



엘머 타운스 박사

내가 캘리포니아 주 버뱅크 시에서, “21세기의 도전에 대비하여 교회들이 취해야 할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을 때였다. 나와는 30 년간 지기였던 빌 그레이그 2세가 내게 전갈을 보내왔다. “교회가 변화하기 위해 해야 할 방법들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써주지 않겠소?” 나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왜냐하면 빌은 복음의빛 출판사(Gospel Light Publications) 및 리갈 도서(Regal Books)의 대표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다음 주말에 그에게 전화를 해서 “빌, 사람들은 교회의 변화를 언급하는 책을 읽지 않을 걸세. 쓴다 해도 그들의 비위를 거스를 뿐일 걸세”라고 말했다.

성공적인 출판인이었던 빌은 내 말에 동의했다. 사람들은 “우리는 전에 결코 이런 방법으로 해 본 적이 없는데”라고 하는 증후군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변화에 관한 이론적인 책은 교회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내가 10 개의 초상화를 그릴테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걸어주게”라고 전화로 빌에게 나의 의견을 밝혔다. “이 초상화는 성공적으로 변화해 온 개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일세. 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변화를 다룬 책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 만들어줄 걸세. 그들의 실례는 혁신 혹은 변화를 위한 10 개의 설득력있는 논증이 될 걸세.”

이 책은 그와 전화 통화를 한 후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1969년에 10 개의 모범적인 교회들을 다룬 ‘10대 교회학교와 그들의 성장 비결(The Ten Largest Sunday Schools and What Makes Them Grow)’을 쓴 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20 년 전 그 책이 출판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교회가 비효율적이며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혁명적인 책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흥미로운 교회들을 기술한 것이었다. 그 책의 논제는 이 10 개 교회들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과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성장의 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했다. 그 책은 뜻밖에도 일약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그 10 개의 교회들은 교회성장을 위한 표본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 년이 지난 지금 나는 혁신적인 방법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10 개의 교회에 관해서 또 다른 책을 쓰고 있다. 이 책은 21세기를 향한 선도적인 교회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첫번째 책이 과거의 방법들을 고찰하였다면, 이 책은 미래와 21세기의 미래의 사역을 위한 새로운 생각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나는 많은 친구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혁신적인 교회들을 알려 달라고 부탁을 했다. 나는 25 개의 명단을 가지고 집필을 하며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혁신적인 방법들이 이 책에 소개된 교회들과 비슷한 교회들은 제외되었다. 또 혁신적인 방법이지는 하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거나 비성경적인 방법들도 제외되었다.

이 책에 있는 10 개의 교회들은 모두 각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나는 다른 지역에서 10 교회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애틀랜타와 샌디에이고에서 각각 두 개의 교회가 선정되었다. 나는 이 교회 중에 어떤 교회도 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른 교리적인 입장들, 다른 규모들, 성화에 대한 다른 견해들과 방법에 있어 다른 강조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선정하려고 했다. 때때로 이 교회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방법만이 사역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태도를 명백하게 부정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협함을 웃으시며, 우리와 같이 특정한 편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이다.

변화의 다섯 가지 영역이 현대 교회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요인은 이 책에 소개된 10 개 교회에 어느 정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첫째로, 그들은 조사를 기초로 하여 혁신적인 방법을 창안해 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수용적인 청중을 겨냥하였다(15장 참조). 나는 이것을 “도달할 수 있는 대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둘째로, 이들은 “부머” 교회, 즉 1946년에서 1964년에 출생한 세대를 겨냥한 교회들이라는 것이다. 여러 교회들이 부머들을 겨냥하여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11장 참조). 10 년 이내 큰 교회들은 그 문화에 영향을 줄 부머 교회가 될 것이다. 부머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교회들은 동면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10 년 이내에 부머들에 의해 움직일 것이고, 교회는 그에 대한 지도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로, 이 10 개 교회들은 전통적인 지도력과는 다른 효과적인 목회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

넷째로, 이 교회들은 예배 의식에 있어서 혁신적이며, 과거의 예배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거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들은 소비자 중심적이다. 그들은 판매 전략을 이해

하고 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설교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전도하는 것 등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서도 사업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전통적인 교회 운영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사업적인 방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들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 혹은 변화하는가?

10 개의 혁신적인 교회와 그들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내용으로 한 이 책은 교회가 교인들의 삶과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고무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모범적인 교회들은 근본적인 믿음에 헌신되어져 있다. 교리는 변질되지 않으면서도, 유동적인 문화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여전히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저자의 가설은 교리와 원리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대속적인 속죄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원리는 항상 동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리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리들을 적용하는 방법은 변한다. 왜냐하면 문화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전도의 근본적인 원리는 변함이 없는 반면에, 우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시대의 추세에 적응시켜야 한다. 미국의 부흥회는 끊임없이 변하는 문화에 영원한 원리를 적응시키는 한 예가 된다. 이 10 교회들은 구령(救靈)하는 데도 탁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부흥회를 전도 방법으로 삼지는 않으나 영원한 전도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구령하는 데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했다.

우리의 문화는 미래를 향해서 질주하는 가속 경주와 같다. 그런데 교회만 유독 뒤쳐질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사회의 도전에 맞서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교회들은 동면하는 교회들이다. 젊은 이들이 그들의 사역으로 진입할 때, “이것은 과거의 방법이로구나.” 하며 번민하는 음성을 발하게 된다. 많은 교회들은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가

보다는 뒤처지고 있다. 그들은 목회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가지 않는다. 그들은 휴거 때까지 동면하기를 원한다.

영향력 있는 10 개의 교회들은 문화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고안한다. 그들에게는 다음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로, 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생활 유형,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 둘째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창안해 내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로, 그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지난 프로그램들에 얽매어 있지 않다. 넷째로,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복음의 메시지는 불변하나 방법은 융통성이 있다. 다섯째로, 그들은 새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재능을 보이고 있다. 마치 고기를 구울 때처럼 그들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며, 해결을 위한 식욕을 돋구어 흥미있는 기독교를 만들고 있다.

부머들이 교회를 취할 때

이 10 개의 “변화 - 질주”하는 교회들은 부머 세대의 가치관을 인식하고 있거나 그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질주되고 있다. 커가는 부머 세대의 영향력에 대해 몇 마디 덧붙일 가치가 있다.

부머들의 가치관은 경제공황기나 제2차 세계대전중에 태어난 사람들의 가치관과 차이가 있다. 부머들은 낙관적이고 기술혁신적이며 “현재” 지향적이고 승자들이다. 한때 그들은 펍시 세대였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 년 이내 부머들은 교회 중심 인물들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집필하는 지금 그들은 중간 실무자들이며, 아직은 최고 실무직에 있지 않다. 그들은 중역실을 좌우하지도 않으며, 교파나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큰 교회들을 이끌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10 년 이내 부머들은 지도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곧 미국과 교회들을 이끌게 될 것이다.

부머들은 기존과는 다른 목소리로 행진할 것이고 나름대로 가치관들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전의 세대들은 부머들보다 연장자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 왔다. 그들은 원숙함에 이르며 그들 나름의 독특성을 간직할 것이다. 이 책은 다가오는 부모들의 세대를 교회들이 준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차 앞사귀를 들여다보거나 유리알을 자세히 보는 것과 같다. 만약 우리가 현재 부모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21세기에 교회가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게 될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회자들은 장군들이지 적십자 일꾼들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시에 위치한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의 목회자인 존 맥스웰은 미래의 목회자를 지휘하는 장군으로 묘사했다. 장군은 많은 책임을 참모들에게 위임함으로 군대를 이끌어 간다. 한 지휘관에게는 포병에 대한 책임을, 또 다른 지휘관들에게는 탱크와 보병의 책임을 부여한다. 부상병들을 돌보는 군의 장교가 있다. 맥스웰은 많은 목회자들이 한 명의 부상병을 돌보는 일 때문에 멈추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그 목회자들은 지휘관 없이 군대를 남겨둠으로 전투를 중지하며, 따라서 전투에서 패하고 만다. 우리는 한 장군이 부상병에게 붕대를 감아주는 동안 한 종대의 탱크들이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는 동안 지휘관을 잃은 다른 병사들이 죽어간다. 목회자(장군)는 교회 안에서 상처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전투의 모든 영역에 지도력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 목사(장군)는 지휘관들을 통해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목회자는 평신도들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지도자이기도 해야 한다. 미래의 교회는 기존과는 다른 목회 지도력을 보게 될 것이다. 목회자는 더 이상 독재자가 아니며, 직원을 훈련하며, 사역을 위해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그들의 효율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이끌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갈 지휘자들(평신도 및 직원)을 훈련한다. 예전

에는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가 - 목회자인가 아니면 제직회인가 - 하는 것이 의문이었다. 여기에 소개되는 10 교회는 제직회가 통솔하는 교회도, 목회자가 통솔하는 교회도 아니다.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가 하는 새 질문은 통솔 혹은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도력에 관한 것이다.

이 10 교회는 그저 건물이나 자산이나 인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과업 중심적이며 지상명령에 의해 질주하고, 사역의 효율성은 그 목표에 따라서 측정을 한다. 또 프로그램들을 마친 후 평가를 한다. 많은 교회들이 비효율적인 프로그램들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물과 비생산적인 과업에 과다한 경비를 낭비하고 있다. 효과적인 교회 성장의 열쇠는 지도력, 즉 공동의 목표 설정과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을 강조하는 효율적인 팀 지도력인 것이다.

훌륭한 목회 지도력은 독재가 아니다. 목회자가 평신도 각각의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회 지도력을 형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회 지도력은 여럿(plural)인 것이다. 여럿이란 목회자와 사람들, 목자와 양, 지도자와 추종자를 의미한다. 지도력의 열쇠는 추종력인 것이다. 성공적인 목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자의 설교를 청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와 전도와 사람들을 돌보는 데 그의 지도력을 따르는가에 있다.

동일하나 다른 예배

이 10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나 이웃 교회들에 대해서 다른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들 중의 여럿은 수년 전부터 드러지던 예배 형태와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들은 예배자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변화를 꾀했다. 그들은 예배 시간과 순서 및 음악의 종류, 설교의 유형과 청중의 참여, 심지어는 예배 장소마저 바꾸었다.

새로운 예배 형태로 변화를 꾀하는 일은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다. 과거에는 교리적 차이가 종교적인 논쟁의 큰 원인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의 형태, 칼빈주의인가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하였다. 그러나 부머들은 교리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예배의 형태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부머들은 형태와 기능에 관심을 갖고, 교리는 그들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세 번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와 찬양을 드리며 행해지는 부흥회 성격의 예배의 장점들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예배 형태를 바꾸고자 하여 목회자들이 해고되기도 하며, 예배의 형식을 놓고 교회가 갈리기도 한다. 현대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혁명적인 예배 형식들은 가장 큰 논쟁의 원인이 된다.

여기에 실린 교회들은 예배에 관해 미국의 기독교계에 할 말이 있다. 잭 헤이포드는 예배에 관한 그들의 방법이 변화라기보다는 혁명이라고 말한다. 이 10 교회는 예배 형식을 개혁한 것이지 예배의 목적을 개혁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 경배를 받으신다. 만약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언어나 자세보다도 경배되어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킨다면, 우리는 예배가 아무리 변화하여도 그것이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소비자 중심의 사업으로서의 교회

이 10 교회는 사역하는 목회자와 위원회가 실제로 교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 전통적인 교회 운영 방법에 얽매어 있지 않다. 이 교회들은 진행 절차를 뒤바꾸었다. 목회자는 지도력을 행사하며(그는 교회를 이끌어 간다), 평신도들이 사역을 한다. 이 10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사역과 목양을 하는 일에 평신도들이 상당수 참여한다는 데 있다.

수년 전부터 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다. 목회자들은 전도와 설교 및 가르치는 것과 상담하는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섬기도록 가르침을 받았지, 교회를 이끌라고 배우지 않았다. 신학교들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훈련하고 위임하고

조직하고 교회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 신학교들은 지도자들로서 목회자를 구비시키는 일에 있어서 제구실을 못했다.

미래의 교회는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될 것이다. 교회는 그 조직과 운영이 하나의 사업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의 사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목회자는 기업체의 회장 같은 경영자가 될 것이며, 이것은 지도력을 묘사하는 또 다른 방도가 될 것이다.

미래 지향적인 교회는 소비자 지향적인 교회일 것이다. 즉 교회는 판매원리들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계는 “적소 판매”, 즉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품을 고안하고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광고한다. 어떤 기업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팔 수는 없다. 기업은 판매할 수 있는 적소(적절한 대상)와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발견해야만 한다.

교회는 일반 대중에게 광고하는 일에 많은 돈을 사용해 왔다. 이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마 28:19,20; 막 16:15). 그러나 개 교회는 제한된 자원과 시간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개 교회가 무제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 교회는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진행시켜야 한다. 이 말은 개 교회가 효과적으로 지출을 예산함으로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 교회는 이웃 속에서 적소를 발견해야 하며 전도 가능한 대상에게 전도해야 한다.

복음을 위해서 텔레비전 광고에 개 교회가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한 돈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반 대중의 반응에 효과적으로 응할 수도 없는 것이다. 미래의 개 교회는 이웃(시장 조사를 하라)과 전도 대상 설정(전도 대상자 명단) 및 반응을 보이는 수용적인 사람들(대중매체 조사를 통해서)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광고)을 알아야 한다.

부머들이 형식과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 교회는 예배 형식과 사무

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 교구민들의 삶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 책은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새로운 형식과 기능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논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 책을 읽은 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 책의 목표 절반은 성취한 셈이다. 또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새롭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자 예전의 방법을 바꾼다면, 이 책은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이다. 이 책을 통해 믿음의 근본적인 것들은 바꾸지 않으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다짐한다면, 이 책의 목적을 조금은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사역의 다양성은 21세기를 향한 전문적인 용어가 될 것이다. 이 10 교회는 미래의 도전에 응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수행하고 있다. 때때로 그들은 전략(성가대를 활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다. 그들은 교리(칼빈주의적인가 혹은 알미니안적인가)에 있어서 다르며, 성화에 대한 견해(오순절적인가 혹은 침례교적인가)에 있어서 다르며, 예배 형식에 있어서 다르며, 소그룹 사역에 대한 목적도 다르다. 또한 그들은 사회 경제적인 수준과 연령층 집중 분포 및 도심지 교회 형태에 있어서도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질적인 믿음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들은 신자들이 개 교회에 밀착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 동의하고 있다.

나는 이 교회들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언급하지 않은 영역들도 있다. 나의 초점은 그들의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에 있었다. 나는 이 교회들의 모든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또한 나는 내가 쓴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들이 나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 준 것을 토대로 품위를 손상시킴 없이 정직하게 각 교회를 묘사하려고 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전반적인 사역을 존중하며, 그들을 나의 친구로 여긴다. 그들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들은 21세기에는 모범적인 교회들이 될 것이다. 그들로부터 배우도록 하자.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은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직원들 및 비서들의 도움이 없이는 쓸 수가 없었다. 또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 시에 있는 리버티 대학과 교회성장연구소의 직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쓸 수가 없었다. 특별히 교회를 방문하는 나의 여행 일정을 조정하고, 부록에 있는 도표를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작업을 했던 주디 폴라노 부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돌린다.

많은 분들이 이 작업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모든 결점과 실수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이 책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책에 그려진 10 개의 교회들처럼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린치버그, 버지니아에서

1990년 여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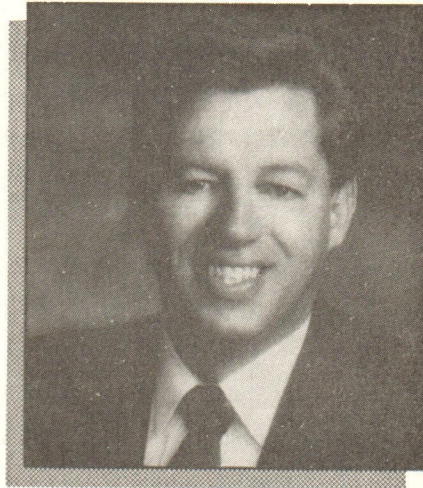
엘머 타운스



1

변화없이는 성장도 없다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



목회자, 존 맥스웰 박사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Skyline Wesleyan Church)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회 중 하나다. 왜냐하면 이 교회 목회자인 존 맥스웰이 변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경향을 이끄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다른 교회들도 역시 변화를 하지만, 이 교회는 변화를 원하는 목회자 맥스웰이 유능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 또한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맥스웰이 어느 곳에서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상, 연예, 음식, 지역사회 개발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유행의 최첨단을 달리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그곳 토박이는 아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 중심부에 있는 전통적인 작은 마을에서 성장했다. 그는 학생이 약 150 명 정도 되는 전통적인 서클빌 신학교를 졸업했다. 이 학교는 보수적이었으며, 그의 신학의 근거였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혁신적인 프로그램들과 비전들은 맥스웰이 젊었을 때 시무하였던 2 년 동안의 초기 목회에서 이미 태동하고 있었다. 그는 오하이오 주 랭카스터 시에 있는 믿음기념 교회(Faith Memorial Church)에서 목회할 때 출석 교인수를 385 명에서 1,400 명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2만 8천 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맥스웰은 1,700 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다.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 믿음기념 교회는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를 복음전도에 사용했었다. 그러나 당시 28세였던 젊은 맥스웰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노인들을 위해서 매달 발행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수표 지급과 관련해

서 도시 전 구간 무료 버스 서비스를 조직했다. 이전에는 버스 서비스가 전혀 없었던 이 작은 마을에 버스 대기용 의자들이 곳곳에 놓여졌다. 신문을 통해 버스 승차 시간표를 알려주는 광고를 게재했고, 업계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맥스웰이 감사패를 받기 위해서 시위원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 갈채를 보냈다. 이러한 일들은 맥스웰이 1981년 샌디에이고에 도착했을 때 교회가 혁신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표징들이었다.

배경과 성장 과정

1947년 오빌 부처는 샌디에이고에서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웨슬리안 교회가 되었다. 부처는 훌륭한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70년대 초 버스 사역이 한창일 때 출석인수가 1,000 명 이상이 되는 교회를 이끌어 갔다. 이러한 버스 사역은 80년대 이르러 주춤하다가 중단되었다. 맥스웰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 매주 출석률은 평균 1,000 명이 되었다.

십년간의 성장

맥스웰이 목회하면서 출석률은 상향 선을 긋기 시작했다. 9 년이 되기도 전에 매주 출석인수는 3,500 명이 넘게 증가했다. 매주 헌금 액수는 5만 5천 불(약 4,400만 원)이며, 연간 예산은 350만 불(약 28억 원)이 되었다. 맥스웰은 주일 아침예배를 1 회에서 3 회(스페인어로 드리는 예배 포함), 교회학교를 1 회에서 3 회(오전 8시, 9시 30분, 11시)로 나누어 모이도록 인도했다. 수요일 저녁 출석인수는 150 명에서 1,300 명 이상이 되었다. 새 장소로 옮기기 위해 300만 불(약 24억 원)을 현금으로 드렸으며, 현금 외에 700만 불(약 56억 원) 이상을 약정했다.

그러나 건물이나 돈, 부동산이 불어나는 것만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다. 전교인의 50 퍼센트 이상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실행할 수 있는 아

이디어들이 다른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맥스웰의 사역은 인조이 사역(Injoy Ministry)으로, 그의 아이디어들은 이 사역을 통해 다른 교회에 전해진다. 즉 그레이드 사역(GRADE ministries)과 찰스 풀러 복음전도협회에서 펼치는 “이백 가지 장애물을 제거함” 등의 사역이 맥스웰이 직접 인도하는 수양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그레이드 프로그램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전도에 참여하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각 사람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활용하도록 고안되었다. 맥스웰은 이것을 “안드레” 전도 은사라고 부른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영혼 구령에 참여하고 있다. “디모데”는 새신자들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긍휼을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바나바”이다. 그들은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갇힌 사람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다. “아브라함”은 전도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다.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형제들은 목회자의 기도 동역자로서 명단에 오른다. 맥스웰은 기도와 제자 훈련을 위해 그의 기도 동역자 100 사람을 매달 날을 정해 토요일 아침에 한 번씩 만난다. 이들은 4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매 주일 한 팀씩 첫 예배 시간 전에 기도를 위해서 맥스웰과 만난다. 맥스웰이 무릎을 꿇으면 약 20여 명의 남자들이 그 주위로 모인다. 그들은 맥스웰에게 손을 얹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팀은 맥스웰의 설교를 돕기 위해 예배중에 강대상 위에 있는 방에서 기도한다. 예배가 끝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기 위해서 청중석으로 내려온다.

인간 맥스웰

맥스웰은 풀러 신학교에서 후원하였던 교회성장 세미나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존이고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는 미국인의 기준으로 보면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다. 사실 이 교

회의 입장, 계획, 설교 그리고 비전은 혁신적이다.

두번째로, 존 맥스웰이 자신을 “존”이라고 소개한 점이다. 대부분의 미국 목회자들은 자신을 목회자라고 불러주기 원한다. 그러나 존은 특이한 목회자이다. 호칭이나 다른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 기인한다.

맥스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 중의 하나는 직원들을 다루는 능력이다. 스카이라인의 교회 직원들은 목회자를 돕는 교역자들로서 미국에서 본이 될 만하다. 그 이유는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원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 각 사람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맥스웰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의 영적인 원천

존 맥스웰은 교회 변화를 주도하는 모범적인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는 변화에 관한 경영의 역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그것들을 경험함으로써 혁신에 필요한 내적인 요소들을 알고 있다.

생애를 바꾼 다섯 가지 경험들

맥스웰은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의 중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을 성숙 시키시고 변화시키셨다고 말한다. 그가 현재 삶의 지침으로 삼는 원리들은 다섯 가지의 위기를 통하여 생각한 것이었다.

한 친구의 죽음 그리고 한 습관의 소멸. 첫번째 위기는 맥스웰에게 있어 영적 형성기이자 목회 초기인 70년대 초반에 있었다. 한 친구의 죽음은 누구하고나 친구가 되기를 원했던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맥스웰은 인디애나 주의 힐한에 있는 그의 첫 목회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일곱 사람과 함께 목회를 시작했다. 그는 양적으로는 극적으로 성장시켰지만, 영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 기간 동안 맥스웰은 병원에 입원중인 한 친구를 계속 심방했다. 후에 그는, 자신이 심방한 주된 목적은 그 환자가 자기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그 후 그 친구는 죽었다. 장례식 도중 맥스웰은 공식석상에서 흐느껴 울었다. 가족과 친구들로 인한 슬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황폐한 영적 상태 때문이었다.

그 다음 해에도 존은 자신의 영적인 황폐함을 회개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찾았다. 그는 설교를 준비하던 어느 토요일 저녁을 기억한다. 그는 식탁 밑에 엎드려 얼굴을 바닥에 닿다시피 하고 하나님께 참된 영적인 능력을 간구하였다. 그의 삶은 일순간에 변화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개월간 점진적으로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힘을 간구했다. 맥스웰은 요한 웨슬리처럼 온전한 사랑과 참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증거한다.

지평선을 확장함. 두번째 경험은 1973년 2월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 시에서 개최된 버스 수양회를 할 때 있었다. 맥스웰은 그 때까지는 그의 교단적인 배경 때문에 복음전도적인 큰 교회들과 위대한 복음전도적인 설교자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린치버그 시에서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의 위대한 버스 사역을 관심있게 보았다. 그는 굉장히 많은 복음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대형 교회의 지도자들의 간증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한해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윌리 비비, 제리 포웰, 밥 그레이 등의 사역을 통해 맥스웰은 “나는 나의 지평선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증거했다.

그가 기거하던 홀리데이 인 호텔에 돌아와서, 그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다시금 바닥에 엎드려서 1년 이내에 랭카스터에 있는 그의 교회를 배가하는 데 헌신하기로 했다. 평균 출석률이 400명이었는데 1년 이내에 버스 사역을 통해 400명을 더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의 새로운 결심을 교회에 공식적으로 광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오하이오로 돌아오는 도중, 그는 버스 사역에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다음 토요일부터 시작될 축호심방에 사람들을 배정하기 시작했다. 주일 아침에 버스는 교회에 19명의 어린이들을 태웠다. 존은 그들이 아이들을

헤아리고 있을 때 교회 현관에서 어린이를 모두 껴안아 주었던 일을 회상한다. 그는 “우리가 오늘 버스에 19 명의 아이들을 태워 왔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는 38 명을 데려올 수 있다.”고 광고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1 년 이내에 그들은 배가 전도하려던 그들의 목표를 이루었다. 맥스웰은 “내가 크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니 사람들도 생각을 크게 갖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지도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다. 한 지도자가 변화의 영원한 법칙들을 배우기 전까지 그는 다른 사람에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

메마른 강단. 세번째 위기는 1973년 11월에 존 R. 라이스 목사가 주도하는 말씀의 검 수양회에서였다. 맥스웰은 회심자가 없는 메마른 강단을 가진 그의 교회로 인해 찢림을 받았다. 그는 집으로 가는 동안 차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는 “주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 주일이 결코 없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다. 출석수가 많은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는 회중들에게 내년부터는 메마른 강단 없이 위대한 구령의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광고를 했다.

그 해 맥스웰은 필자에게 자기 대신에 설교해 달라고 나를 초청했다. 그 때는 우리 결혼 기념 주간이었으므로, 그는 우리의 결혼 기념을 위한 만찬을 대접할 테니 아내와 함께 오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했을 때 존은 우리에게 그날 저녁은 심방하는 날이며, 구령을 하러 나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은 이러한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존 폴스톤이라는 법관을 만나서 그를 주님께 인도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그 교회에 설교하기 위해 갈 때마다 폴스톤은 맥스웰이 그날 저녁 나의 결혼 기념 만찬 대신 자기 집에 와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던가를 나에게 말해 주곤 했다.

1974년에 맥스웰은 개인적으로 200 명 이상을 주님께 인도할 목표를 세웠다. 그가 그 광고를 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 해에 그의 목표를 다 이루지는 못했으나 186 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했다. 그는 이것이 교회 회원들에게 구령에 대한 신뢰성과 새 건물을 건축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 등의 교회의 변화를 위한 기초를 확립시켜 주었다고 했다.

정보망 및 기도, 네번째 경험은 성공적인 목회자들을 만나 풍성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맥스웰은 다른 목회자들의 교회가 그토록 잘되는 이유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 시간당 100 불(약 8만 원)씩을 지불하고 그들과 만났다. 그는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들을 만나 대화할 때 그들도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헤어진 후 차로 돌아가 늘 핸들에 머리를 파묻고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간구했다.

영광의 위기. 다섯번째 경험은 1976년 오하이오 주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학교를 이끌고 있다고 하여 맥스웰에게 시상하던 때였다. 큰 깃발로 된 상이었는데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시에서 개최된 국제기독교교육총회에서 '크리스천 라이프(Christian Life)' 잡지사가 증정했다. 랭카스터 교회의 교회학교는 평균 출석수가 860 명에서 1,012 명으로 성장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맥스웰은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금 엎드린 후 하나님 앞에 그 깃발을 내려 놓았다. 순간 자신이 명예롭게 된 것은 오직 그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성장은 모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을 펼쳐 마태복음 16:18에 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었다. 교회는 존 맥스웰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것이었다. 명예로운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러한 위기를 경험함으로써 맥스웰은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했다고 그 때를 회상한다. 그날 밤 그는 주님을 섬기도록 은사를 받았음을 깨달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에 대해서든지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깨달았다. “각양 좋은……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약 1:17).

훌륭한 지도력

맥스웰은 당신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도자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 미션 비에호 시에 있는 새들백 커뮤니티 교회의 목회자인 릭 위렌이 말한 “지도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에 동의한다. 지도자가 변화의 영원한 법칙들을 배우기 전까지, 그는 다른 사람에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

맥스웰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원하면 지도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그러한 헌신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셋째로, 그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맥스웰은 설교를 마친 후 변화된 자신을 사람들이 기꺼이 따르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는 강단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사람들을 초청한다. 그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으며, 변화는 그 지도자와 함께 시작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진지한 지도자를 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을 느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변화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변화할 것이다.

변화의 원리들

변화로서의 성장

맥스웰은 성장은 곧 변화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하기 전까지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맥스웰은 교회 직원들에게 그 말의 역은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모든 변화가 성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낮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획한 그의 인조이 생명 테이프 클럽(Injoy Life tape club)에서 그는 “모든 변화가 진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진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변화는 성장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인 것이다.” 그는 많은 교인들이 성장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건물을 원하고, 성공적인 전도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 동시에 많은 교인들은 변화를 원치 않고 있다. 그러므로 맥스웰은 목회자가 변화를 주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화에 관한 진리들

맥스웰이 1981년 스카이라인에서 새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는 인원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비록 사람들에게 관해서 잘 알지는 못했어도 자기 자신이 변화를 원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변화에 관한 다음 세 가지 것들을 알고 있었다.

모든 변화가 진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진보는 전혀 없을 것이다.

첫째로, 그가 교회 직원들에게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맥스웰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여러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스카이라인의 이웃부터 바뀌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사를 가고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현상유지에 급급한 목회나 과거의 명성 위에서 안주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둘째로, 맥스웰은 사람들이 변화의 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와 사역을 통해 꾸준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돕는 것이다.

셋째로, 맥스웰은 교회 사역의 효과는 변화를 위해 목회자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의 직원들에게 “먼저 우리 자신이 성공적으로 변화한 다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곧 우리의 성공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맥스웰은 존 내스빗이 ‘현대사회의 거대한 동향(Megatrends)’에서 사

용한 “이스티”(yeasty)라는 용어를 좋아한다. 맥스웰에게 있어서 “이스티”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변화의 시대, 즉 쇠퇴하는 산업시대와 다가오는 정보처리시대 사이의 때를 묘사한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적이 없었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는 말한다.

맥스웰은 낙관주의자이므로 변화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진보를 이루기 위한 훌륭한 무대로 본다. 이러한 진보를 방해할 수 있는 “안주형” 사고에 대해서 경고한다. 많은 회중들이 혁신적인 방법이나 새 직원 혹은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열정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한번 교회가 안주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마저 잊을지도 모른다. 교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다 고갈되었을 때, 교회는 성장을 중지한다.

문제가 겹치게 된다고 맥스웰은 이어 말한다. 많은 목회자가 처음에 성장을 가져왔던 방법에 집착하고, 문화가 변할 때 이에 맞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예로서, 70년대 많은 교회가 버스를 사용하여 전도를 함으로 크게 성장했다. 우리는 이미 오하이오 주 랭카스터 시에 있는 맥스웰의 교회가 1970년대 중반에 버스 사역으로 400 명에서 1,000 명으로 성장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맥스웰이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에는 버스 이용자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인 버스 사역을 하도록 교회를 이끌지 않았다.

맥스웰의 강점 중 하나는 사역의 원리들은 바꾸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추세에 민감하게 그의 방법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다.

변화의 세 가지 기본 자세

맥스웰은, 지도자들은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첫번째로, 미래는 과거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맥스웰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고 있

다. 그 예로 개가 수천 년 동안 발로써 구멍을 파헤친 반면, 사람은 삽으로 구멍을 파다가 이제는 팽이로 구덩이를 파고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두번째로, 지도자들은 미래가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맥스웰은 “우리는 변화를 친구와 같이 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번째로, 지도자들은 앞으로의 변화 속도가 과거보다 더 빠를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미국의 전형적인 대학생은 그가 죽기 전에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 세 배나 훈련해야 한다. 그는 은퇴하기 전에 30 군데 정도의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 년 전 미국은 노동력의 50 퍼센트가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오늘날에는 2 퍼센트 정도만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는가

존 맥스웰이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뉴욕에 사는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이다.

한 기자가 그와 면담하면서 “틀림없이 당신은 삶을 통해 많은 변화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군요!”라고 말을 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럼요, 저는 그 모든 변화를 향하여 나아갔었지요.”

존은 좋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왜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는가, 왜 그들을 변화하려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거부하는가를 교회 지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그가 사역에서 수많은 변화들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답이 된다. 그는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들을 이해하고 있다.

첫째로, 사람들은 오해로 말미암아 변화를 거부한다. “사람들은 왜 자

신들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맥스웰은 말한다.

둘째로, 소속감이 부족하면 변화를 반대한다. 교회 회원들이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된다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새로운 것도 거부한다. 맥스웰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계획 및 수행에 동참시킨다.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것과 다투려고 할 것이다.

셋째로, 사람들은 습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한다. 그들은 편하게 여겨지던 일상적인 것들을 바꾸어야 하므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습관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존과 다른 것은 무엇이든지 거스르려고 한다.

넷째로, 사람들은 변화에는 값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변화를 위한 대가가 너무 작게 비춰질지 모른다. 사람들은 변화하려면 값을 치러야 하기에 그것의 대가를 얻기 원한다. 만약 희생한 것에 비해 대가가 부적당하다면, 그들은 변화를 거스르려고 할 것이다.

다섯째로, 사람들은 가치있는 어떤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면 변화를 거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과 돈 혹은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느낄 때 변화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여섯째로, “만족 요인”은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게 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방법에 만족하고 변화를 원치 않는다.

일곱째로, 일반적으로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이다. 어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아무 것도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덟째로,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변화를 거부한다. 교회 회원들이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변화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따라서 그들은 변화를 반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은 사람들이 변화를 거스르는 이유를 잘 말해준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결코 전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 본 적이 없다.”

변화를 위한 공식

존 맥스웰은 직원회의나 설교를 할 때 반복하는 변화를 위한 공식이 있다. 이것을 계속 말함으로 그는 변화를 원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사실상, 스카이라인 주위에서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 한다.

변화를 위한 맥스웰 공식

사람들은 이러한 때 변화한다.

- 그들이 변해야만 할 만큼 충분히 상처를 받았을 때
- 그들이 변화를 원할 만큼 충분히 배웠을 때
- 그들이 변할 수 있기에 충분한 능력을 받았을 때

첫 단계의 공식은 부정적인 동기를 다룬다. 사람들이 충분한 상처를 입었을 때 느끼는 변화를 위한 필요는 전통과 부정적인 태도들과 습관적 경향을 압도한다.

맥스웰은 현 상태로 남을 때의 고통이 변화를 시도할 때의 고통보다도 클 때, 사람들은 조정을 하려 할 것이라고 자주 말한다. 그는 직원들에게 사람들이 이전의 것들을 불편해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을 편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맥스웰의 두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충분히 배웠을 때(교육을 포함해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맥스웰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사역의 목표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기술을 익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식의 세번째 단계는 사람들에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변화에 필요한 힘과 비전과 동기와 도구를 가졌을 때 혁신적이 될 것이라고 맥스웰은 말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이러한 힘들을 마련해야 한다.

변화를 주도하는 목회자의 성공을 위한 요인들

맥스웰은 교회를 변화로 이끄는 목회자의 능력이 성공을 가늠하는 가장 훌륭한 예언자라고 믿는다. 만약 목회자가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더해지는 그 어떤 새로운 것도 교회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그 목회자가 사임할 때 출석률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새 회원들은 새로운 사역과 확장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계획이 확대되고 공간이 재배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맥스웰은 그의 인조이 사역 가운데 다음의 대목을 직원들에게 읽어 준다.

그 무엇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는 일은 많은 일을 떠맡는 것보다 어렵고, 지휘하기에도 위험하며, 성공의 확률도 희미하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 주위에는 이전의 조건에만 길들여진 사람들, 무조건 싫어하는 게으른 방어자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맥스웰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일은 지도력의 최고 시험이라고 말한다.

그는 변화를 주도하는 목회자의 사역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제안한다.

첫째로, 목회자 당신 스스로 변화시키는 일에 개방적이 되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라고 묻는 목회자에게 맥스웰은 “우선 당신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라.”고 답한다. 그는 교회나 결혼이나 사람을 바꾸려 할 때 먼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이 인도될 것이며, 그들은 변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변화에 관한 그의 여러 설교 중 다음과 같은 서론적인 말이 있다. “변화: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그것은 당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사람들이 당신을 목회자로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

신뢰하는 만큼 그들은 변화할 것이라고 맥스웰은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제안하는 그 목회자를 반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제안된 변화를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목회자를 신뢰한다면, 이유야 어찌됐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성공하였던 경험은 지도자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세번째 요소다. 그 지도자와 조직이 성공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만큼 더 변화를 하려는 지도자를 잘 따르게 될 것이다. 존은 이런 말을 인용한다. “목회자는 허리띠 밑에 몇 가지 승리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미식축구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존경을 얻으려면 몇 번의 승리를 얻어야 한다고 사용했던 말을 목회자에게 적용한 것이다. 목회자는 새로운 변화의 모험을 하려 할 때 사람들이 그를 따르도록 하기 전에 성공한 사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은 일에 성공했던 예가 많아지면 큰 일을 결정하더라도 사람들은 지

도자를 쉽게 신뢰할 수 있다고 맥스웰은 지적한다. 그는 이 진리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말한다. 소년 다윗은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존은 “성공은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말한다. 그 반대도 역시 사실이다. 지도자의 실패는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치 않는 분위기를 낳게 한다.

맥스웰이 말하는 네번째 요소는 확신이다. 확신있는 목회자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확신있는 지도자를 따르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 그들은 그러한 그를 따르는 것을 꺼려할 뿐 아니라 그가 제시하는 어떤 변화들도 거부할 것이다.

다섯번째 요소는 실수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는 것이다. 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실수를 인정하는 데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왜냐하면 모든 변화에는 어느 정도의 실패가 있기 때문이라고 존은 말한다. 좋은 목회자는 과거에 자신이 실패한 것을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그가 스스로 실패를 기꺼이 인정하고 건설한 자세로 다시금 시도하려는 것을 깨닫는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따를 것이다.

1984년에 맥스웰은 격려 서클(Care Circles)이라 불리는 셀그룹을 시작했다. 그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훌륭한 전도 모임이 될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육 개월도 채 안돼서 허우적거리는 몇몇 모임만 남게 되었다. 그는 이들을 중단시켜야만 했다. 그는 그렇게 된 문제점들을 직시해야만 했다. 그는 그가 왜 실패했는지에 관해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시금 이끌어 새 전략과 새 힘을 가지고 셀그룹의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사역과 변화를 위한 전략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좋은 자세와 목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변화를 위한 적합한 전략이다. 존 맥스웰은 좋은 전략에 관

해 마치 돌 한 개가 연못에 빠졌을 때 생기는 파문처럼 다섯 가지 범위로 제시한다. 교회 안에서든 사업에서든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파문이 가장 높다. 그것은 중심에서 가장 큰 파문을 형성하는 목회자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각 모임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가장 가깝고 영향력있는 사람과 함께 시작하며, 자신의 방법을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주의하여 조정하면서 일을 한다.

이러한 전략은 직접적으로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맥스웰은 강조한다. 변화가 생기기 전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도중이나 변화가 초래된 뒤나 중요한 것은 사역에 있다. 각 모임을 위해 사역하다 보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적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목회자들은 효과적으로 교회를 변화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다.

범주 1: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측근은 내 자신이다.”라고 맥스웰은 말한다. 변화는 회중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함께 시작한다.

맥스웰은 교회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자신에게 다섯 가지 질문을 한다.

첫째로, 이 아이디어는 나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둘째로, 존은 스스로에게 “나는 이 변화에 드는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그가 교회의 이전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치러야 할 대가로 인해서 씨름을 했다. 그가 교회를 이전하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면 그는 생애의 5년 내지 10년의 세월을 바쳐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전을 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중간에 다른 교회로 갈 수

는 없는 노릇이었다. 교회 이전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헌신을 해야만 했다.

셋째로, 존은 ‘나는 누구를 잃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존은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안다.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변화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들의 교회를 기꺼이 변화로 이끌어 가다가 이 지점에 이르면 종종 무력해진다. 왜냐하면 아무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이 일은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다섯째로, 그 변화가 일어난 후에도 머무를 것인가? 만약 목회자가 적절히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교회는 다른 사람을 초청할 것이다.

만약 목회자가 이러한 질문들에 바른 답변을 줄 수 없다면 변화를 시도해서는 안된다. 왜 그런가? 그것은 변화가 알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목회자는 불가피한 알력이 그와 그의 프로그램과 가족에게 닥칠 때 요동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존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실현되게 하라”고 한 제리 포웰의 주장을 따른다.

한번은 어떤 목회자가 존이 변화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력의 원리들을 가졌으면 좋겠소. 나는 사역에서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닳이 필요하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끌려 다닌다는 것이요.”

목회자는 두번째 범주로 가기 전에 이러한 다섯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존은 덧붙여 말한다. 변화를 함으로 성취되는 성공의 기대는 첫째 범주에서 결정된다. 대담한 지도력은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확신있는 목회자를 따르지 흥미한 목회자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맥스웰은 말한다.

범주 2: 주요 인물

목회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한 후에, 맞추어야 할 초점은 맥스웰이

말하는 바 “주요 인물”이다. 주요 인물이란 변화해야 될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으로는 제직회 임원이나 교육목사나 교회학교 교장일 수 있다. 이 사람에게 신속히 접근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변화에 대한 그의 견해를 알아보는 일이 필수적이다.

당신은 그 주요 인물에게 네 가지 것을 주어야 한다. 첫번째는 비전이다. 그는 변화를 위한 희생뿐 아니라 당신의 비전과 헌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두번째, 그를 변화에 참여시켜야 한다. 그들이 변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새로운 계획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세번째, 주요 인물은 목회자의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반대 경우도 필요하다. 맥스웰은 그 주요 인물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은 목회자의 지지’라고 말한다.

네번째는 시간이다. 주요 인물이 맡고 있는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임을 설정하라. 그러면 당신과 주요 인물은 함께 전진할 수 있다.

존은 만약 주요 인물이 무시되면 그들도 변화를 주도하는 목회자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만약 목회자가 그들과 함께 적절히 일한다면 그들은 “이 변화는 우리의 아이디어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범주 3: 결정권자들

당신이 이 범주로 들어올 때, 맥스웰은 당신이 제안자들 가운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당신은 주요 인물이 아니라 영향력을 가진 결정권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보다 영향력 있는 결정권자들이다. 맥스웰은 그의 직원들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범주라고 말한다.

그러한 사람들로써는 위원회의 위원들이거나 집사들 혹은 재무위원회나 음악위원회의 위원들이다. 그 결정권자들의 다수가 변화를 향해 긍정적인

라면 모두를 함께 모아 토론을 하라.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들을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가 변화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라. 맥스웰은 “당신을 위해서 상황이 전개되면 그들을 함께 모으라. 그러나 당신을 반대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그들을 분리해서 다루라. 그들을 함께 모아서 변화를 없었던 것으로 돌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한다.

맥스웰은 목회자는 무엇이 각 위원의 “방향을 바꾸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은 어떻게 이 위원들을 당신 편으로 흡수해서 당신의 비전을 보고 당신의 필요를 느끼게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의 위원들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존은 “그것이 나의 일이지요”라고 답을 했다.

그는 오하이오 주의 랭카스터 시에 있는 교회에서 시무하던 경험을 회상함으로 이 점을 설명했다. 맥스웰이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가 교회의 사무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원들이 다목적 활동을 위한 건물 신축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는 것을 보았다. 회중의 삼분의 일은 그 건물을 짓는다면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반면 나머지는 그 건물이 지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격분하며 말했다.

맥스웰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 건물에 관한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원래 그 다목적 활동을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을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그 건물은 그가 예배당을 새로 짓고자 했던 바로 그 장소에 들어설 것이고 또한 맥스웰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부임한 직후, 이에 관해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위원회는 조사하는 데에만 10 개월이 걸렸다. 1 년 후 교회는 너무 급속도로 성장해서 모든 사람들은 큰 예배당을 필요로 했다. 그들이 표결했을 때 전 교인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그 다목적 활동을 위한 건물을 짓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새 예배당을 짓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는 오락에 있지 않았고 구령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에 맥스웰은 다목적 활동을 위한 건물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옛 예배당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옛 예배당이 농구 경기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맥스웰은 모든 결정권자들(위원회의 위원들)을 모아놓고 이와 같이 말했다. “이전의 예배당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야기합시다.”

회의에서 모두가 차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의논하는 도중에, 이전 토의 때 참여하지 않았던 한 새신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불쑥 꺼냈다. “이전의 예배당을 체육관으로 쓰면 어떨까요?” 중직 교인들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표결하자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장시간의 토의 끝에 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필요가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그 “주요 인물”이 마침내 그들에게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존은 성공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주요 인물은 전에 그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맥스웰에게 “당신이 예배당을 다목적 활동을 위한 건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을 지원할 각오가 되어 있소.”라고 말했다.

범주 4: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 변화에 가장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를 들면,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바꾼다면 교사와 같은 일꾼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당신이 이 범주로 들어올 때, 맥스웰은 당신은 참여하기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의 세 가지를 행하라.

1. 정보(혹은 사전 지식)를 구하라.
2. 그들의 이해관계에 호소하라.
3. 가능한 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에게 양보하라.

존은 그가 네번째 범주에서 그의 일꾼들과 함께 회의에 들어갈 때면, 양보를 계획한다고 말한다. 왜 그러한가? 왜냐하면 그들이 그 방면의 지식이나 정보,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범주 5: 회원들

이 범주는 사람들 혹은 교회 회원들에 관한 것이다. 존 맥스웰이 이 범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의 의도를 찾는다는 것이다. 질문은 이것이다. 그들이 목회자를 따를 것인가? 이것은 변화를 위한 찬성표를 얻는 데 있어서 모든 범주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이다. 만약 앞의 네 범주들이 긍정적이라면, 이 범주에 드는 사람들은 ‘예’라고 말할 것이다.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힘들지 않게 사무회의를 한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실질적인 지도자들로서 진행 과정을 적절하게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 진행 과정을 통해 볼 때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적절한 시기 포착과 용기이다. 맥스웰은 변화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 포착의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지 않는 것은 거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뜻밖의 일로 변화가 올 때 가장 극심하게 저항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경험을 통해 이러한 법칙들을 세웠다.

적절한 시기 포착에 대한 맥스웰의 법칙

- 그릇된 시기에 그릇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재난이다.
- 적절한 시기에 그릇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실수이다.
- 그릇된 시기에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 적절한 시기에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성공으로 인도한다.

용기에 대해서 맥스웰은 만약 당신이 하고 있는 바를 알고 적절히 계획했다면 “그 일을 시행하라.”고 간단히 말한다. 그는 30 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부임했던 것을 기억한다. 존이 제직회원들과 회의를 한 후 그들이 비관적인 것을 발견했다. 그 교회는 30 년이 되었는데 겨우 30 명만 출석하고 있었다. 그는 변화를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을 열거했다. 다섯 위원을 중의 한 사람이 손을 들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변화들을 모두 시도해 본

다면 아마 실패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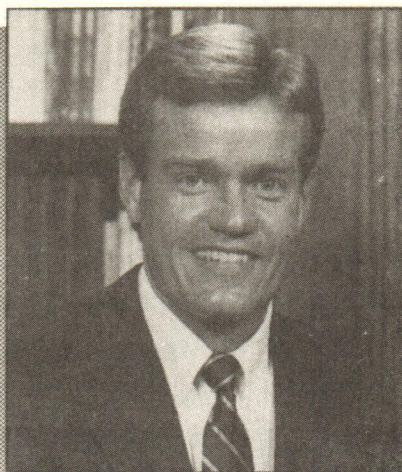
존은 웃으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 오셨습니까, 성공인가요?”

이 교회는 과거의 경험에 붙들려서 그 어떤 모험을 해 보는 일도 두려워했다. 불행하게도, 그 목회자들의 다수는 하워드 헨드릭스가 말한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의 16 퍼센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많은 목회자들이 낙담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16 퍼센트의 사람들이 교회와 그들의 사역을 망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꺼이 하려는 84 퍼센트의 용기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2

혁신적인 전략을 세우라

월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일리노이주 사우스 배링톤시



목회자, 빌 하이בל 목사

미 국에서 두번째로 큰 교회는 매주 1만 4천 명 이상 모이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이다. 이 교회는 창조적인 프로그래밍, 목회에 대한 독특한 철학,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세심하게 고려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회 중 하나이다.

1,500만 불(약 120억 원)에 달하는 시설과 시카고 중심부로부터 30 마일(약 48 킬로미터) 떨어진 일리노이 주 사우스 배링톤 시의 120 에이커(약 14만 7천 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얼핏 보기에 교회라기보다는 시민회관같이 보인다. 또 교회의 트랙은 잘 조경된 공원 같은 인상을 풍긴다. 이러한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우연하게 된 것은 없다. 윌로우 크릭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주위 환경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계획과 음악 선정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되었다.

토요일 저녁에 한 번, 주일 아침에 두 번 드리는 주말 예배에는, 연극 또 여러 매체를 이용한 발표 및 우수한 성악가들과 25 개의 악기로 구성된 악단이 연주하는 최상의 현대 기독교 음악이 발표되기도 한다. 이 교회의 설립자요 담임목회자인 38세의 빌 하이블은 이러한 주말 예배를, 특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구도자 예배들”이라고 명명한다. 이 예배에서 청중은 찬송을 부르거나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아직 맺고 있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요’를 정직하게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빌 하이블이 말했기 때문이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긴 의자가 아닌 극장 좌석처럼 4,650 석의 개인 의자에 앉는다. 그들은 가운을 입은 성가대를 보거나 오르간 음악을 듣지 않는다. 사업가처럼 옷을 입은 하이블은 성직자라기보다는 시카고 도심으로 통근하는 회사의 중역 같은 인상을 풍긴다. 그의 설교 내용은 성서적이고 성서무오설의 입장에 충실하지만, 그가 설교하는 모습은 목사라기보다 전문적인 사업가에 더 가깝다.

하이블은 강대상보다 플렉시 유리(플라스틱 유리의 일종—역자주)로 된 탁자를 사용하며, 전통적인 형식의 설교보다는 효과적인 의사 전달에 관해서 연구한다. 그는 성경이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성서의 내용이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전달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는 신자들을 위한 수요예배 때에는 성경을 강해식으로 가르치지만, 주말에는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제기된 주제들에 관해서 성경적인 관점들을 제시한다. 하이블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는 미국인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혁신적인 시작

1975년, 하이블은 일리노이 주 디어필드 시 근처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재학 시절부터 교회를 개척했다. 이 교회의 이름은 그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세를 내어서 사용하던 월로우 크릭 극장에서 따온 것이다. 전통적인 교회의 죽은 의식과 같다고 여겨진 예배 형식,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교단 교회들의 급속히 떨어지는 출석률에 불만을 품고, 하이블은 자기와 같은 세대인 베이비 부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기로 결심을 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 하이블과 몇몇 친구들은 축호심방을 하며 4 주를 보냈다. 그들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다. 만약 응답이 “아니오”이면, “왜 나가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이런 조사를 통해 그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데에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았다.

첫째로, 사람들은 교회가 항상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이블은 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교회를 개척한 초창기에는 그는 헌금을 걷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극장 뒤에 있는 통에 헌금을 넣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해지자 현재는 헌금함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방문자들은 아직도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광고를 매주 접하게 된다. 광고의 내용은 이러하다. “여러분은 우리의 손님이십니다. 앉아서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규적인 참석자들은 십일조를 드리도록 권면은 받지만, 서약 카드나 봉투를 돌리지 않는다.

둘째로, 사람들은 설교가 지루하고 예배가 판에 박혀 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하이블에게 “나는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15 년 동안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모든 설교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할지 척 보면 다 압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의사 전달과 관련된 실험을 해 보기로 굳게 마음을 정했다.

셋째로, 사람들은 교회가 실생활과 관계 없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는 하찮은 것이죠. 성경은 낡은 이야기일 뿐이요.”라고 직선적으로 말했다.

이러한 불평을 자주 들은 하이블은 아내에게 “여보,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매일의 삶을 다루지 않는 설교는 결코 하지 않겠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소!”라고 말했다.

넷째로,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죄가 많다고 느끼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비난을 들은 후, 하이블은 결코 청중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그들에게 변화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전도 대상 설정: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해리”

월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전도 전략

을 이해해야 한다. 하이블은 전도 전략에 있어 판매 전략을 이용하였다. 먼저 전도 대상을 설정하고 월로우 크릭이 가장 잘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조건을 개발해 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해리”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전형적인 인물의 공통된 특징은 25세에서 45세에 이르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직장 일에 바쁘고 전통적인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이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많은 해리라 명명된 사람들은 희미하나마 기독교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기억마저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아련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월로우 크릭 교회의 전도 사역은 많은 점에서 비교문화적이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중국의 언어와 음악 등의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것처럼 월로우 크릭 교회도 세속적인 전도 대상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수용해야만 한다. 물론 영원한 복음과 문화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변화시키거나 희석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이다.

전도 대상 설정의 정의

하이블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현실적이 되려고 한다. 그는 그의 전도 대상을 그 지역의 인구 분포가 가장 높은 중산층, 사무직 가족들, 특히 남자들로 제한을 한다.

하이블은 월로우 크릭 교회를 “방문하기에 안전한 장소 위험한 설교를 듣기에 안전한 장소!”라고 말한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매리”에 관해서 질문을 받으면, 하이블은 전통적인 교회가 남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가장 약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만약 당신이 남자들을 전도할 수 있다면, 십중팔구 그들의 아내와 아이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특별한 청중을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생각에 별척 화

를 낼지 모르나,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의 목회자인 존 맥스웰(1장을 참조하라.)은 하이블의 접근 방식에 찬성한다. 맥스웰은 “만약 어떤 목회자가 자기는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마 아무도 전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이블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해리를 과녁으로 삼는 일은 한 교회뿐 아니라 한 목회자의 중심 취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많은 목회자들이 비효과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자신과 아무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은 각 목회자들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 예를 들면, 도시의 빈민 계층, 도시의 셀러리맨들, 노동자 계층, 시골 사람들, 대학생들, 부유층 — 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독특한 은사들과 열정들을 사용하신다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적절한 전도 대상으로는 그가 누구와 함께 휴가나 오후의 여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가를 설정해 볼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이블은 말한다.

하이블은 “대상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나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매연이 가득한 도시에서 목회하는 것이 비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낙담했다는 어떤 목회자에 대해 묘사했다. 그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그 지역사회의 사회적이고 사교적인 삶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음을 고백했다. 이러한 실례들은 목회자들이 전도 대상을 자신에 맞게 설정할 때 가장 효과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는 하이블의 생각을 확증해 주었다.

예배들에 적응시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해리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기를 결정함으로 하이블에게 특별한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동시에 신자들을 양육하고 불신자들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 그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해리를 위해서 그는 “기독교 101 혹은 201”로 정의한 주말의

구도자 예배들을 고안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예배들은 기독교 음악, 드라마, 여러 매체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접하는 일상적인 용어로 된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들이 그 특징을 이룬다.

월로우 크릭 교회 신자들도 이 구도자 예배에 참석한다(종종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해리들과 함께). 그러나 보다 깊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있는 “기독교 301 혹은 401”로 정의한 신자들의 예배들에 참석한다(강당은 두 배로 채워진다). 이 예배는 강해적인 설교와 연합된 예배와 기도 및 회중 찬송과 매달 거행하는 주의 만찬 등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교회가 “경배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데 반해, 월로우 크릭 교회는 주중에 드린다.

구도자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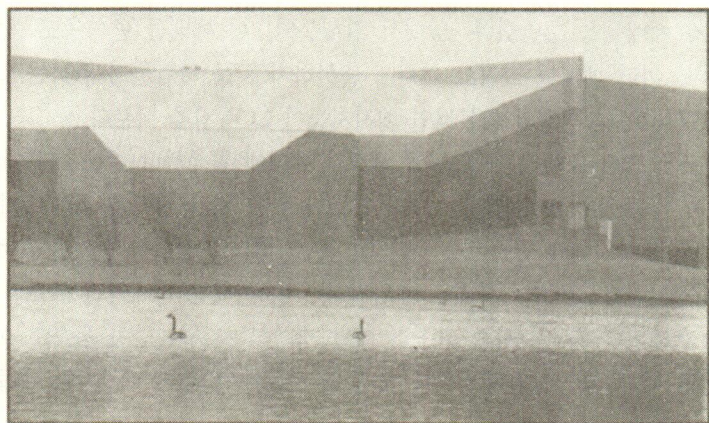
월로우 크릭 교회의 구도자 예배가 성공한 근거에는 불신자들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상하게 되면 안된다는 확신이 있다. 성경의 메시지가 죄와 오류를 지적할 때 실로 그들의 감정이 상할지 모르지만, 그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 가능한 한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방문하기에 안전한 곳

저자는 월로우 크릭 교회에서 무신론자였다가 회심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십자가 같은 종교적인 상징들이 없기 때문에 월로우 크릭 교회에 나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매우 비형식적이고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맞추어서 기독교를 검토해 볼 수 있었어요.”

무신론자였던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서도 2 년을 넘게 월로우 크릭 교회에 다녔다. 그는 월로우 크릭 교회를 일컬어 “방문하기에 안전한 장소”라고 부른다. 하이블은 이 교회에 대해 “위험한 설교를 듣기에 안전한 장소!”라고 덧붙인다.

월로우 크릭 교회의 신자들은 그 교회가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의 마음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일리노이주 사우스 배링턴시

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친구들을 열정적으로 초청한다. 주말예배를 마치고 가던 한 불신자가 말했다. “내가 다니던 시절보다 교회가 진짜 많이도 변했군. 마치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고안된 것 같은데.”

하이블은 복음전도의 사역에 있어서 구도자 예배를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윌로우 크릭은 형식적인 주중 야간심방전도 프로그램이 없다. 그 대신에, 교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주말예배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구원의 계획을 나누도록 훈련받고 있다.

하이블은 예배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권하지 않는다.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과 대화하거나 혼자 나왔다면 목회자와 함께 대화하도록 격려한다. 그는 대부분의 회심은 주말예배를 마친 후 주차장이나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미국인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아침과 점심을 겸하여 먹는 습관이 있음-역자주)를 하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동안, 방문자들은 자신을 소개하도록 요청받지

않는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해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원하는 한 가지 사항을 하이블은 사역 초기에 배웠다. 그것은 바로 익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해리는 무엇을 말하게 하거나, 서명하거나, 호명하는 등의 절차는 원치 않는다. 그는 혼자 조용히 탐구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

하이블은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해리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 년, 30 년, 아니 어쩌면 40 년 이상을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한 번의 예배로 단번에 그의 모든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기대한다. 윌로우 크릭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심이란 속도가 느린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수용한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해리는 대부분 6 개월에서 8 개월 정도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회심으로부터 성장함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있어서 회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일 뿐이다. 그 다음 단계는 주중 신자들의 예배이다. 현대 생활에서 새신자가 매주 하루 저녁을 성경공부와 예배에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예배마다 새신자들은 주중예배에 초청된다. 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해 준.이의 개인적인 초청이다.

윌로우 크릭에서, 한 개인의 영적인 성장 다음 단계는 소그룹에 소속되는 일이다. 이 공동체들은 제자훈련을 하고 책임 — 큰 교회 속에 있는 한 “작은 교회” — 을 부여한다.

봉사는 그 다음 단계이며, 윌로우 크릭 교회의 정보망 사역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고, 그들이 봉사할 수 있게 적절한 기회를 준다. 주중예배에 참석하는 회심자들은 작은 공동체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며, 열심히 봉사한다. 이 봉사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해리들을 전도하고 복음전도의 순환을 영속화시키는 마지막 단계로 이어진다.

전위대 개념

월로우 크릭 교회의 기본적인 전략들 중의 하나는 “전위대 개념”이다 (전위대는 부대의 선두에 서서 부대의 진로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경계·수색하며 아군의 전투를 이롭게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말한다. -역자주). 하이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취지를 알아서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새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결코 사역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함

하이블은 수년간 월로우 크릭 교회가 선교 프로그램 개발을 연기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비전을 구체화하고 선교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장로들은 종종 선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주실 것을 기다렸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이후로 선교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었다.

그와 달리 능력있는 사역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 안에 있는 수많은 독신자를 위한 사역을 시작한 적이 있었다. 그 사역은 수개월 간 실패만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중단하게 되었다. 후에, 독신자들을 위한 사역에 열정을 품은 한 신실한 부부가 교회에 들어왔고 그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사역을 개발했다. 물론 어느 기간 동안 독신자들이 그 사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적합한 사람을 주시기 전까지는 성공적으로 필요를 채울 수 없었다.

이것은 배우기 힘든 교훈이다. 그러나 월로우 크릭 교회는 이 개념을 전적으로 찬성한다. 장로들은 그 사역을 인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안하거나 실행하지 않는다. 하이블은 이렇게 말한다. “비효과적으로 이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막대한 힘을 요합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유

지하는 것은 아주 적은 힘으로도 가능합니다. 취지를 이행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확보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자유롭게 주장하십니다.”

전위대의 자격요건

하이블은 전위대는 두 가지 은사를 소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사 전달을 잘 해야만 한다. 만약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불신자들을 불편해 하거나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사역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그 사람은 신자들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인도하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사역을 이룰 수 없다. 만약 목회자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인도하는데, “그들을 성장”시킬 수 없다면, 약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사역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평신도 참여

효과적으로 평신도들이 참여해야 사역이 성장할 수 있기에 평신도 일꾼들을 모집하는 것은 월로우 크릭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다. 하이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집을 할 때, 수많은 목회자들은 그들의 사역에 있어 필요한 바를 채울 만한 사람을 찾는다.”

하이블은 4학년을 담당할 교사를 모집하려는 교회학교 교장을 하나의 예로 든다. “전형적인 접근 방법은 죄책감을 유발시킨 후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충분히 격앙되면, 결국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접근 방법은 종종 재난을 초래한다. 만약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4학년을 맡는다면 아마 자신에게도 무익하고 학생들도 분반공부 시간 내내 싫증을 낼 것이다. 결국, 그 교사는 십중팔구 가능한 한 빨리 사임을 할 것이고 다시는 봉사하려고 자원하지 않을 것이다.

월로우 크릭 교회는 평신도 모집을 위한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다. 새신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부서에서 보람있게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은사들을 발견하기를 권면한다. 하이블은, 평신도 참여의 목표는 “각 회원은 하나의 사역자”라고 말한다. 교회의 정보망 사역은 영적 은사 발견을 위한 학습을 통해서 교인들을 인도하는 세미나를 제공한다. 그리고 상담자들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강력한 은사를 결정하여 적절한 사역의 위치에서 일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한 결과 평신도 참여는 극대화되고 중도 탈락은 최소로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영역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는 바에 만족함이 있을 때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않는다.

전략적인 직원 채용

하이블에 따르면, 목회 지도력을 향한 변화된 태도는 베이비 부머 교회들 사이에서 매우 명백하게 나타난다. “전문화 시대의 목회자들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평신도 사역자처럼, 자신의 은사를 알아 그에 맞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섯 가지 일을 모두 할 줄 아는 목회자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직원의 자격

직원을 채용할 때, 윌로우 교회는 다음 세 가지에 초점을 둔다. 첫째는 영적인 은사, 둘째는 특별한 소명이나 열정(그 사람에게 가장 흥미있는 영역) 그리고 셋째는 기존의 직원들과 기질이나 관계가 “적합한가”의 여부이다. 하이블은 어떤 특정한 사역에 대해 은사나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팀에서 일을 잘한다면 사역의 동기는 저절로 부여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이블은 이 접근 방법을 “전략적인 직원 채용”이라고 부른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직원들이 할당받은 일에 얼마나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직접 사역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기 위해

직원을 고용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무장시킬 수 없다면, 그들의 사역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방해될 받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역할

하이블은 모든 일을 보고해야 하는 부서와 3 명으로 구성된 경영팀과 함께 일을 한다. 비록 경영팀과 부서가 사역을 이끌지만, 하이블의 지도력은 교회의 모든 직원들에게 두루 미친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직원들에게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는 주로 이 일을 매달 직원 회의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직원들은 가을마다 일주일 간의 휴가를 갖는다. 그 때 하이블은 직원들에게 교회의 계획을 밝힌다. 그리고 직원들의 관심사에 대해 들어주는 시간을 갖는다. 하이블은 들어주는 것도 지도력의 한 주요한 부분이라고 믿는다. “좋은 청취자가 되지 않으면 좋은 목회자도 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관계

좋은 지도력에 있어서, 깊은 관계는 무척 중요하다고 하이블은 믿는다. 그의 핵심적인 직원들의 상당수는 그와 15 년을 같이 지냈다. “만약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어느 곳에서라도 함께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과 실패를 경험했고, 서로의 죄들을 고백하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같이 울고 웃으며 동행해 왔지요. 이러한 것은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했지요.”

하이블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그의 직원들과 친근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 매주 화요일마다 250 명 가량 되는 사역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다. 매주 바뀌는 식사 자리는 교제의 폭을 넓혀 준다. 팀 사역의 강조는 사역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밀접하게 교제하도록 해준다. 교회의 상담 직원들은 갈등 해소나 다른 기질을 소유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문제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정기적인 세미

나를 가진다. 그 결과 직원들은 개인적인 성장과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풍부하고 원활한 분위기를 맞본다.

주일 저녁예배 없음

월로우 크릭 교회는 정기적인 주일 저녁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주일 저녁보다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저녁에 “영적인 주사”를 필요로 한다고 하이블은 믿는다.

만약 교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황폐하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가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으면 그 교회의 미래는 밝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그들이 주일 아침예배에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가진다면, 주일 저녁예배는 다소 반감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중에 또 다른 한 첩의 약과 같은 영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는 주일 아침예배 후 더 드리는 예배를 마라톤 선수에게 주어지는 “물 마시는 휴식 시간”으로 비유하면서, 출발점에서 100 야드(약 91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선수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보다도 마라톤 구간의 중간 지점에서 이런 휴식 시간을 갖도록 계획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제안을 한다.

이 주중에 드리는 예배 계획은 청중뿐 아니라 설교자에게도 유익하다. 일반적으로, 주일 저녁예배 때 목회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주일 아침예배를 위해 우선적으로 열중하기 때문이다. 하이블은 만약 주중에 메시지를 전한다면, 주일 저녁보다 더 나은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주일 저녁예배를 드리는 않는 실제적인 이유들이 더 있다. 하이블은 극장과 식당에서 일요일 저녁 손님들의 수가 가장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

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는 이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부머들은 일요일 저녁은 쉬거나 다음 한 주간의 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월요일에 자녀들을 탁아소에 맡기거나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만 한다. 월로우 크릭 교회의 전도 대상이 이러한 계획을 갖기 때문에 하이블은 예배시간을 그에 맞추기로 결정을 했다.

월로우 크릭 교회의 지역적인 상황이 이러한 시도의 중요성을 더 부여한다. “한 시간씩 운전해서 하루에 두 번이나 교회에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하이블은 주일 저녁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소그룹 모임이나 특별한 세미나, 워크숍 등 자유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전을 퍼뜨림

이 교회는 같은 뜻을 품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기꺼이 섬기며 격려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교회는 목회자 수양회를 1년에 세 차례 실시하고 있다. 각 수양회 참석 인원은 500 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늘 대기 명단을 기록해 두기도 한다. 어떤 교회 목회자들은 월로우 크릭 교회의 철학을 연구하고 그 원리들의 적용을 배우기 위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남아메리카 및 유럽에서 온다.

하이블은 열성적이며, 목회자들이 변화를 했기에 성장을 경험한 교회들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며 이 수양회의 참석자들을 격려한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월로우 크릭 교회의 방법들을 개교회에서 적용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하이블은 알고 있다. 그는 목회자들이 자세와 전반적인 전략을 바꾸지 않은 채 월로우 크릭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모방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본다. “구도자 예배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쏘도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도자 예배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역의 일부이어야 합니다.

경쾌한 악단, 짧은 희극 및 실생활과 밀접한 메시지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과 신뢰있는 관계들을 형성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말하기 전까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도자 예배는 복음전도에 대한 변화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하이בל은 전통적인 교회들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철학 전부를 이행하기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목회자 수양회를 마칠 때마다 조금이라도 “개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요약해 준다. 그는 많은 목회자들이 비전을 분명히 하고 실행 가능한 변화들을 시도할 때 그들의 교회를 다시금 활기있게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지평선

빌 하이ב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교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황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가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으면 그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이בל은 윌로우 크릭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밝은 미래를 영위하기 바란다. “나는 사람들이 행사다, 경쟁이다 하며 숫적인 목표들을 말할 때 위험 신호를 봅니다. 우리는 사역에 목표를 두어야지 눈에 보이는 숫적인 효과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그는 사역의 어떤 특정한 분야들이 사람 수로 평가되는 것과 많은 사람이 모여야 장기적으로 예산과 건축 계획들을 세울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의 최근 성장 경향들을 바탕으로 한 그래프를 만들어 조정하고 또한 평가해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출석 목표를 세우는 것은 거부한다. “사람 수가 목회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되지요.”

기본적인 동기든 아니든, 윌로우 크릭 교회에 있어서 사람 수는 하나의 문제거리다. 토요일 오후 6시, 주일 오전 9시 및 11시에 드리는 세 번의 구도자 예배는 수용 한계 상황에 다다라서 토요일 저녁에 한 번 더 드린다. 더 큰 예배당을 짓는 일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교회 주

변의 도로들이 교회가 확장됨으로 야기될 교통 혼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이블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조금씩 채워주시는 만큼 예배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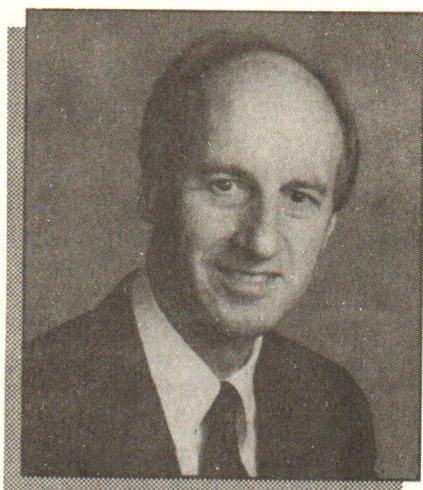
하이블은 분명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결코 전통을 전수하는 일에 흥미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러합니다. 즉,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소멸되도록 놔두고 그것이 소멸되면 슬퍼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련없이 새로운 계획을 시도합니다.”



3

예배를 바꾸면 ...

진행하는 교회
캘리포니아주 밴 나이스시



목회자, 잭 헤이포드 Ⅱ 박사

캘리포니아 주 밴 나이스 시에 있는 “진행하는 교회”(The Church On The Way) 목회자인 잭 헤이포드는 “우리는 개혁의 두번째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신학을 올바르게 했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예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개혁입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가 예배드리도록 자각시키신다고 헤이포드는 말한다. 근본적인 개혁은 교회가 믿음으로 얻는 의와 신자의 제사장직의 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이것은 신교의 초석들이다. 그러나 교회의 신조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관례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것들 대부분이 보존되어 있다.

헤이포드는 앞으로 전도와 성장을 변모시킬 예배 형태의 개혁이 도래하리라 보고 있다. 개교회 안에서 이 변화는 헤이포드가 순례 여정을 지냈듯 서서히 오고 있다.

“진행하는 교회”는 헤이포드가 1969년 목회자가 된 후 크기로나 영향력에 있어서 극적으로 성장해 왔다. 처음 개척 당시에는 18 명밖에 안되는 적은 무리가 로스앤젤레스 근교 밴 나이스 시에 있는 셔먼 가(街)의 한 작은 목조 교회 건물에서 모였다. 원래 밴 나이스 휘스퀘어 교회(The Van Nuys Foursquare Church)라고 지었는데, 여러 이유들 때문에 “진행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명칭은 자신을 “길”(the Way)이라고 부르셨던 예수님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하던”(on the way with Jesus)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일치시켰다(행 9:2; 19:23; 24:14).

진흥에서 예배로

헤이포드가 교회에 왔을 때, 그는 라이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함께 이 교회의 임시 목회직을 수락했다. 그는 휘스캐어 교회의 전국 청소년 지도자였으며, 처음에는 “진흥(promotion) 중심”이었음을 인정한다. 현재 그는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의 생명을 위해서 진흥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행하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을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부담을 심하게 주는 진흥책이나 죄책감을 이용하는 계략들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진행하는 교회’는 참석하기에 행복한 곳이지 떠들썩한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은 성경적인 말씀과 성령충만한 예배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배는 또한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헤이포드는, “진행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열쇠는 전통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예배의 영이라고 말한다. “나는 원래 예배는 신자들을 위한 것이며, 복음전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나의 생각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 100:1).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할 때 그들은 그들의 견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을 만난다. 그 결과, “진행하는 교회”는 전도 설교나 심방 프로그램, 복음전도집회들을 거의 갖지 않고서도 성장을 했다. 죄를 책망하는 것에 설교의 중점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다.

복음전도에 대한 이 혁신적인 접근 방법은 헤이포드 목사와 “진행하는 교회”에 큰 효력을 발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혁신적인 방법은 새로운 예배 역학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헤이포드는 “예배에 대한

혁신이 진행중입니다”라고 간단하게 그 방법을 설명한다. 그는 예배에 대한 혁신이 한 세기 동안 지속돼 왔으며, 이것은 곧 미래의 소망이라고 말한다.

예배에 다시 초점을 맞추다

헤이포드가 말하는 것은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 의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진행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전통적으로 드러졌던 형식적인 예배 사이에 중요한 차이를 둔다. 예배의 교리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통합시키고 사람의 무가치함을 강조하는 노력 속에 하나님께 많이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행위들”에 맹목적인 복종을 초래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많은 교회들이 “수행 중심이 되었고, 순전한 사랑, 온정 그리고 감정 등에 대해서는 밀봉하여 인을 치고 있다”고 본다.

예배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개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헤이포드는 치료의 한가지 방안으로서, “교회는 예배를 ‘재정의하고, 끄르고 개봉해서’, 그 본연의 능력과 영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서 “재정의한다”는 것은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의 친근함을 포함한다.

예배를 “끄른다”는 것은 분파적인 편견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손을 드는 것은 더 이상 “카리스마적”인 표현의 행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였던 동작이라고 헤이포드는 생각한다. 예배를 “개봉한다”는 것은 예배가 전인적인 변화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헤이포드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뿐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를 드림으로 얻게 될 것에 관해

서도 관심을 가진다.

헤이포드는 구약에서 짐승의 생명으로 희생의 값을 치렀던 것처럼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 삶을 함께 드려야만 한다고 본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배가 아름다울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 있어 아름다움은 항상 부차적인 것이며, 그보다는 사랑스러운 생명이 선행하지요.” 헤이포드는 오순절적이고 은사주의적임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희생이 없어 감정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예배, 또한 그가 “훈훈한 떠들썩함”이라고 부르는 예배중의 혼란상태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표한다.

예배와 교회성장

헤이포드는 교회가 예배의 세 가지 형태를 추구할 때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첫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예배자에게는 그의 의무들과 정결함을 포함하는 제사장적인 사역이 있다. 세번째로, 예배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왕국의 권위를 포함한다.

헤이포드는, 제사장으로서 신자들은 또한 왕되신 그 분 아래에 있는 왕들이며, 왕국의 권위와 능력 안의 하나님의 임재가 논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예배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개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의도되었다고 주장한다.

헤이포드가 쓴 ‘그의 위엄을 예배하라(Worship His Majesty)’는 예배의 개혁에 대해 그가 주장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그 책에서 그는 왕국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신자들의 특권인 반면, 그 통치는 예배를 통해서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심지어 열매 맺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조차, 너무도 관대하셔서 피조물과 그의 능력을 주시는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고백해야 함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한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그저 순종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다. 헤이포드는 순종이란 참된 예배가 요구하는 결정적이며 궁극적인 반응이라고 말한다.

“진행하는 교회”에서의 예배

“진행하는 교회”에서의 예배는 잭 헤이포드가 강대상으로 올라갈 때 강렬해지는 것 같다. 그 전엔 없던 생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왜 헤이포드가 인도할 때 예배의 의미가 보다 증강되는가?” 잭 헤이포드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자신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함께 동참하도록 초대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헤이포드가 경험하는 바를 경험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상처와 외로움을 감싸주는 가까운 사람의 관심을 느낄 것입니다.

헤이포드는 그의 설교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공부한다. 그는 예배시간에 할 것과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행할 것인지 주의깊게 계획한다. “나는 그런 생각들을 토요일 저녁 기도할 때 얻습니다.” 그는 주일 아침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사람들을 그 예배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 때 그는 다 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몸을 돌려 ‘당신은 이 예배를 좋아할 것입니다. 훌륭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는 회중들이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또 그들의 밝은 웃음을 본다.

찬양 예배

헤이포드는 경쾌하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다 함께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한다. 찬송과 찬미 합창들의 작곡자로서, 그는 아무 의미 없이 가사와 멜로디를 반복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함으로 마음이 심령과 서로 상호 작용을 할 때 생기는 성숙한 마음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예배를 시작하기도 한다. “오늘은 새로운 찬송을 배울 것입니다.”

찬송을 가르친 후에 잘 배웠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 후반에 회중에게 한번 더 그 찬송을 부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이 만든 새 찬송가를 3주마다 하나씩 가르친다. 또한 회중이 그 곡을 익힐 때까지 여러 번 부른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다같이 배워 봅시다.” 그러므로 회중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른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헤이포드는 느린 템포의 경배 합창과 더욱 주관적인 표현이 담긴 찬송들로 점차 바꾸어 간다. 헤이포드는 예배 중에는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찬송가를 보면서 찬양을 하면, 회중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들의 무릎만 보며 부르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찬송을 할 때 위를 바라보도록 오버헤드 프로젝터(overhead projector-문자나 도표 등을 스크린에 영상으로 투영하는 교육기기)를 사용한다. 그는 항상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믿음의 찬송을 포함한다. 그는 예배에서 역사 의식을 지니기 원한다. 보통 그의 아내가 이러한 찬송을 인도하는데, 이 찬송은 주보에 인쇄하여 나누어준다.

비록 성가대도 이 교회의 지체이기는 하지만, “진행하는 교회”는 예배를 인도할 때 성가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헤이포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우리는 강대상 중심 교회가 아니고 회중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이며, 성경이 우리 개개인에게 모두 ‘찬송하라’고 명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가대가 우리 대신 찬송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가대에게 회중이 드릴 예배를 대신하게끔 하는 교회가 종종 있다고 한다.

성찬식이나 다른 특별한 경우는 가끔 성가대가 새로운 찬양을 지도하기 위해서 동원된다. 성가대석이 따로 없어 그들은 계단 위에서 찬송을 한다. 그러나 그 때에도 헤이포드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성가대는 공연이나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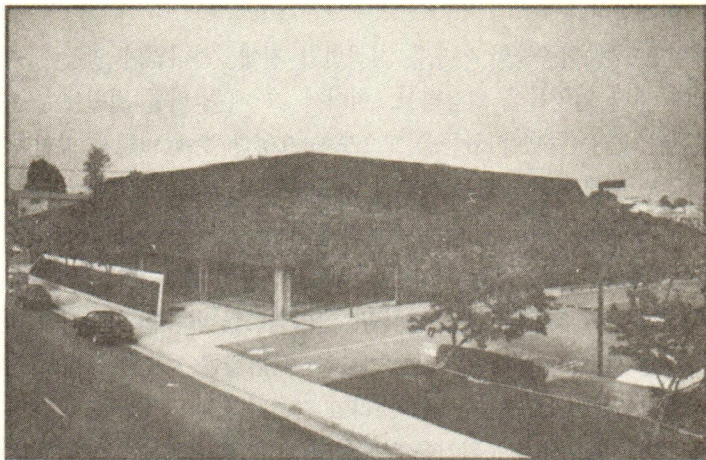
기도와 사역 시간

헤이포드는 아침 예배에 “사역 시간”이라고 명명한 순서를 넣는다. 이 순서에서는, 회중들이 소그룹으로 기도하면서 지체들의 상호 작용에 주의가 집중된다. 기도 시간은 약 4 분에서 5 분 정도를 할애하는 데 반해, 사역의 시간은 12 분에서 15 분 정도가 소요된다. 헤이포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역의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을 주장하십니다.”

청중은 기도 모임에 참여하도록 요구받는다. 헤이포드는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여할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속에 있는 저항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시간이 개인적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러나 종종 기존의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순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헤이포드는 주일 아침에 회중에게 기도 모임을 갖게 한다는 점에 대해 비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욱 이상한 일입니다.”라고 대답한다.

헤이포드는 예배를 드릴 때 자연스러운 진행에 초점을 둔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복음화하는 과정의 첫 단계가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 그럴 때 두번째 단계가 자연적으로 뒤따른다. 기도 모임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준다. 그들은 기도가 끝난 후 누군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거나 껴안아 줄 때 감동을 받는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상처와 외로움을 감싸주는 가까운 사람의 관심을 느낄 것입니다.”라고 헤이포드는 힘주어 말한다.

소그룹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때 누그러진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즐거워하는 것을 헤이포드는 본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소그룹을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많은 치유가 이루어



진행하는 교회(동부 성전), 캘리포니아주 밴 나이스시

어진다고 믿는다.

이 소그룹 기도 시간을 돕기 위해서, 헤이포드는 종종 교회의 중앙으로 걸어간다. 그는 강대상에 대한 회중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원한다. 그는 회중들이 이 교회는 “강단에 의해 조종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조종되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기 원한다. 본질적으로, 그는 큰 원을 만들어 성전의 중심에 서 있다. 모든 사람들이 서서 그를 본다. 그러면 그는 “작은 원들을 만듭시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이 강단에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그룹을 만들고, 서서 그를 응시할 때 헤이포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구하는 것뿐 아니라, 그 분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향하신, 또한 당신을 통하여 나타날 그 분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는 회중들에게 각자의 문제들과 상처들과 소원하는 바에 관해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라고 권면한다. “만약 당신이 나누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우

리는 이해합니다.”

헤이포드는 회중들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기도예 대한 언약들을 인용하고, 이어서 그 배운 바를 실천에 옮기도록 격려한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모으도록 요청한 후에 이렇게 말한다. “한 사람도 원 밖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로 그들을 안심시킨다.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한다면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고 기도한 후에 함께 기도한 사람과 포옹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했음을 표현하라고 격려한다.

오르간을 연주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 “기도하는 동안 울리는 악기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 의식을 버리게 합니다.” 기도 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헤이포드는 부드럽게 찬송을 시작한다. 기도를 마친 사람들은 함께 찬송을 부르게 되고 나중에는 모두 함께 찬양하게 된다. 헤이포드는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 시간을 끝마친다. “여러분들이 서로 껴안을 때, ‘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설교와 가르치는 시간

헤이포드는 예배의 세번째 순서에 “가르치는 시간”이란 순서를 넣는다. 그는 만약 당신이 할 말이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그는 전통적인 설교보다는 가르치는 쪽에 더 가깝다.

“나는 가르칠 때에 나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겨온 역경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회중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헤이포드는, 어떤 목회자들은 회중 앞에서 자신들이 이겨온 역경들에 대해 고백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헤이포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추구가 거룩함이라면 그 사실이 분명한

동안은 인간적이라는 것 때문에 당신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헤이포드는 수년 전에 전통적인 복음전도의 방법을 사용하던 것을 중지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에 의존하여 전도하였던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오라”는 요구와 전도를 위한 찬양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일보다도,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해 줌으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메시지를 들음으로 깨닫고, 해야 할 바에 대해서 듣는다. 첫째로, 그들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둘째로, 그들은 기도 모임을 가짐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는 사랑을 느낀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가르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해야 할 바를 배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결론

헤이포드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여러분들 중 몇몇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애에 초청한 적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당신의 생애에 초청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과거의 내 모습과도 같습니다. 나는 내 죄를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했습니다. 그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입니다. 그 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분은 말씀대로 돌아가셨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결론을 맺을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헤이포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 이렇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머리를 들고 이쪽을 보신 후 손을 들어 내게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새신자가 된 이들에게 구원을 받은 후 이렇게 하라고 한다. 헤이포드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손을 들거나 통로를 걸어나오는 일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믿음의 헌신을 한 후에는 쉬워지리라고 믿는다. 또한 공적인 고백이 새신자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새로운 믿음을 강화시키리라고 믿는다. 헤이포드는 회심자에게 이처럼 격려한다. “옆사람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그는 죄책감을 유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음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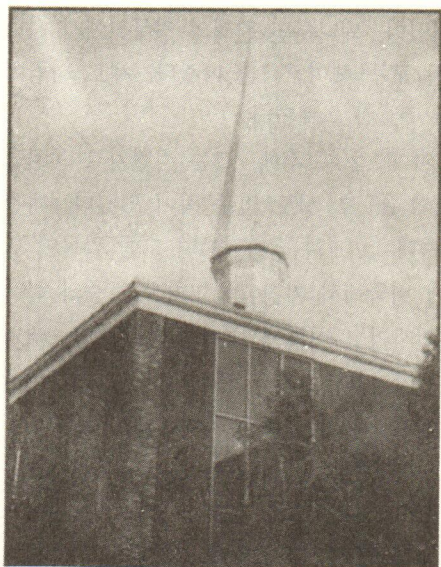
“지금은 거룩한 순간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헤이포드는 그들에게 앞으로 나와 강단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새신자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인들에게 소개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헤이포드는 회심자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신 분들은 옆방으로 가서서 주님을 위해 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자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원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는 출입구 위에 적혀 있는 “새생명반” 표찰을 가리키며 이와 같이 말한다. “우리는 그 방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도우며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헌금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예배당 안 곳곳에 설치된 텔레비전 모니터에서 광고가 나간다. 많은 교회가 광고를 길게 하여 지루하게 만들기도 한다.

축도는 하지 않는다. 대신에 회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옆 사람과 인사하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마십시오…….”

한 교회, 두 장소

잭 헤이포드는 산페르난도 밸리의 베이비 부머들을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20년 전에는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버스가 복음전도 활동에 좋은 수단이었던 반면, “진행하는 교회”에서는 젊은 부부들을 전



진행하는 교회
(서부 성전,
이전에는 제일 침례교회였음),
캘리포니아주 밴 나이스시

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있다. 현재는 교회학교가 붐을 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젊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장하는 교회학교처럼, 교회는 공간과 직원 채용과 자원자들을 모집하는 일 등의 일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공간 문제는 장소를 하나 얻음으로 해결되었다. 섬기라는 도전에 대한 회중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교회는 전도에 열정적이었다.

헤이포드가 부임했을 때 이 휘스퀘어 교회의 교인은 18 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200 명이 넘게 모일 수 있는 강당에서 모이고 있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오순절 교파의 형식에 따라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한 “형제”라는 용어에 내포된 뜻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고, 헤이포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족같이 느끼고 서로를 알기

원했다. 이 목표는 분명히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원래의 양무리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헤이포드를 따랐다. 새로 사람을 들어오면 “가족”으로 남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였다.

헤이포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약 2 주 후에, 그는 셔먼가로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정지 신호를 받아 약 30 초 정도 멈춘 적이 있었다. 마침 그 곳은 “제일 침례교회” 근처였는데 그 교회를 바라보던 그는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학교 중의 하나였던 그 교회에 관한 느낌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고백했다. “주님, 제가 저 교회를 향해서 느끼는 바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건물로부터 고개를 돌리자 그 열기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차 안에서 헤이포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확신했다. “나는 네가 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는 밴 나이스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중요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헤이포드는 그 곳을 떠날 때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잭 헤이포드가 제일 침례교회와 맺게 될 미래를 예견해 해주는 것이었다. 그 무렵 밴 나이스는 중산층에서도 상류층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헐리우드로부터 10 마일(약 19 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특별히 영화계에 종사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수년간 그 지역은 다양한 인종들의 고향이 되어 왔으며, 그들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제일 침례교회는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서쪽으로 이전하기를 계획했고, 따라서 교회를 팔려고 내놓았다.

“진행하는 교회”는 이전을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잭 헤이포드가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지 않는 듯했다. “우리의 소명은 이 도시를 섬기는 것이며, 이 도시를 위해 목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중 안에 있는 모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찾는 중입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조금씩 자산을 늘려가며, 점포나 아파트들을 매입했다. 심지어는 사역을 위한 건물로 쓰기 위해서 술 파는 가게까지 사들

였다.

그러던 어느날 제일 침례교회 목회자인 제스 무디 박사가 잭 헤이포드를 찾아왔다. 그는 제일 침례교회 시설을 “진행하는 교회”에 팔기 원했다. 그 교회는 약 400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여러 필요를 충족시켰다. 그래서 그 교회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 시가는 1,100만 불(약 88 억원)이었다. 수리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400만 불(약 32 억 원)을 합하면 1,500만 불(약 120억 원)로 붙어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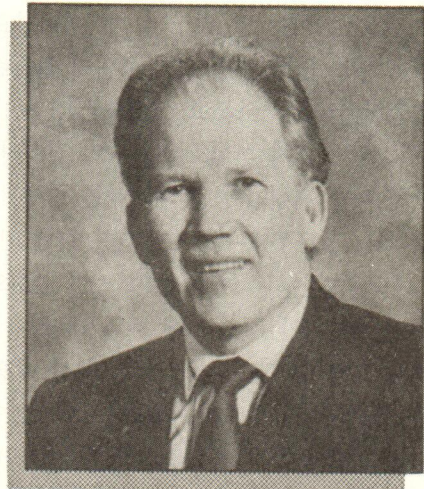
휘스퀘어 강당은 2,400 석을, 제일 침례교회 강당은 1,600 석을 보유하고 있다. 회중들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의 강당을 번갈아 사용할 것이다. 강당과 주차장에 부가해서, “진행하는 교회”는 성가대 석과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10 에이커(약 1만 2,240 평)의 대지 위에 총 12만 5천 평방피트(약 3,500 평) 상당의 건물 공간을 확보했다.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구 교회는 앞으로 더 언급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교회의 움직임은 어떻게 이 힘찬 회중이 끊임없이 혁신과 진실로 진행되는 교회가 되기에 개방적인가에 관한 다른 신호인 것이다.

4

셀그룹 사역은 효과적인가?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오리곤주 포틀랜드시



목회자, 데일 갬로우웨이 목사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는 오리곤 주 포틀랜드 시에 위치한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New Hope Community Church)일 것이다. 목회자 데일 겔로우웨이가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치유는 오늘날 교회의 생명을 형성하고 있는 약 500 개의 그룹들 속에서 명백한 사역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부르심과 꿈에 의해 이루어짐

겔로우웨이는 열 다섯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역의 부르심을 잊을 수가 없다. 부르심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는 기독교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1970년 12 년간 함께 살던 아내와 이혼을 함으로 그의 생애가 산산조각이 나기 전까지 세 교회를 담임했다. 그리고 그녀를 태운 비행기가 먼 중서부를 향해서 떠올랐을 때, 한 교회를 담임하던 데일 겔로우웨이의 모든 꿈도 함께 떠나 버린 것이다.

이혼을 한 사람이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목회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였다. 겔로우웨이는 미국에서 교회 출석률이 가장 낮은 북서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었다. 이 지역은 또한 50 퍼센트의 이혼율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지역이기도 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를 용서하려고 했던 지역이었다.

겔로우웨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가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고 있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그는 마침내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른다. 이 교회는 교파적인 편견들이나 스스로 만든 교회의 한계에 의해서 속박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었다. 이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겔로우웨이는 이 교회를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라고 부르기로 결정을 했다.

그가 이혼한 지 2년 만에 목회자의 딸인 마지 왓슨이 겔로우웨이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왔다. 둘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마지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는 그의 비전에 겔로우웨이만큼이나 헌신되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겔로우웨이는 캘리포니아 주 아나하임 시에 있는 로버트 술러의 수정 교회에서 열렸던 수양회에 참석하는 동안, 뉴 호프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그리스도께 헌신을 다짐했다. 그는 수정 교회의 기도탑 맨 위층에서 술러의 표어인 “가능성의 사고”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한다. 거기에서 데일은 10 주년이 될 때 1,000 명의 회중을 가진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비전을 가졌다.

교회를 시작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데일과 마지는 그들의 집을 매각 처분하고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 차익 6천 불(약 480만 원)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천 속에서의 설교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는 1972년 10월 포틀랜드 시 82번가의 드라이브인 극장(노천극장)에 있는 간이음식점의 지붕 위에서 마지가 찬송을 인도하고 데일이 설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약 50 명의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행해진 그의 첫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

겔로우웨이는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시작했던 술러의 성공적인 목회를 듣고 자극을 받았다. 겔로우웨이는 오랜 후에 이러한 일을 회고해 보며, 술러는 좀처럼 비가 오지 않는 남가주에서 이런 사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오리곤 주에서 드라이브인 극장을 이용하여 사역을 시작

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이었지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대부분은 우비를 입은 채 진행되었지요.”라고 말한다.

겔로우웨이의 전략은 세 가지이다.

- 주일 아침에 적극적이고 격려를 주는 예배를 가진다.
-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모든 사람을 목회 안에 참여시킨다.
- 사람들은 각 지체와 긴밀히 연락되도록 셀그룹들을 가진다.

데일 겔로우웨이는 뉴 호프를 시작하기 전에 소그룹의 필요와 효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초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시무하는 조용기 목사가 소그룹의 개척자이지만, 겔로우웨이는 그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다. 겔로우웨이는 1978년에야 비로소 당시에 약 17만 명이 출석하고 있던 이 교회의 소그룹 운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한다. 겔로우웨이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의 교회에서 소그룹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가 배운 바를 사용했다. 오늘날 그는 조용기 목사의 국제교회성장연구소의 이사 중 한 사람이며 또한 조 목사의 목회자 수양회에서 강사로 활약을 하고 있다.

TLC(Tender Loving Care-따뜻한 사랑의 보살핌) 그룹들의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제자 삼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 그리고 목양하는 일이다.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성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8년 동안 이 교회는 12 군데나 이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겔로우웨이의 비전을 명예롭게 하였고, 10주년이 되기 몇 달 전에 이 교회는 1,000 명이 넘는 교회 회원을 영입하였다.

10주년이 되었을 때, 교회는 노천극장이 아닌 자체 소유의 건물에서 모였다. 1990년까지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는 5천 명 이상의 회원들을 가

진 교회로 성장을 했다. 이 교회의 새로운 목표는 2,000년까지 2만 명의 성도를 모이게 하는 일이다. 통계적인 측정에 의하면, 이것은 이 교회의 1990년 회원수에 비해서 매해 28 퍼센트의 성장을 의미한다.

오늘날 주간 고속 도로 205번을 타고 남쪽으로 운전을 하며 가다가 동쪽을 바라보노라면 33 미터 길이의 십자가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한 북서부 상가인 클라커마스 타운 센터 위에 당당하게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뉴 호프 교회는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14 에이커(약 1만 7천 평) 외에, 바로 거리 건너에 있는 골프장 27 에이커(약 3만 3천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약 십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이 장소에서 15 분 이내의 거리에 살고 있다.

교회는 1986년 12월에 천만 불(약 80억 원)의 비용으로 현재의 11만 5천 평방피트(약 3,200 평) 규모의 시설을 완공하면서, 이 지역에 두번째 교회를 세웠다. 3,000 석의 예배당을 보유한 교회로 북서부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것이다. 이 성전이 채워질 때, 캘로우웨이는 여러 번의 예배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상처받은 사람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

아무나 큰 건물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어떻게 성전을 성도들로 가득 채우도록 이끌 것인가? 또한 그들이 교회에 계속 나오도록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데일 캘로우웨이는 이에 대해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역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다양한 셀그룹 사역들을 일컬어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라고 묘사한다. 교회 성장 지도자들은 이것을 “옆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략이라고 부른다. 옆문 전도는 3 단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에게로 인도하라. 둘째로,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라. 셋째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

로버트 쉐러 박사가 캘로우웨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을 찾아 그 필요를 채워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 그 상처를 치료해 주라”는 말은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목회를 위한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뉴 호프 교회는 밤낮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데 헌신하였다. ‘승리의 새생활’은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다. 적극적인 독신자들을 위한 사역도 있는데 이것은 북서부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역으로는 가장 큰 규모가 된다. 다른 사역들로는 혼혈 가족 시역, 별거 생존, 이혼에서의 회복, 상담 사역, 특별 교육 사역, 또 미취학의 아동들을 위한 어머니 및 성폭행의 희생자들과 무절제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 등이 있고 다른 유사한 후원 그룹들도 많이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는 이러한 당신을 돕기 위한 사역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내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한 예배위원이 말했다.

셀그룹은 곧 교회

겔로우웨이는 그의 교회의 셀그룹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셀그룹은 우리 교회의 일부가 아닙니다. 셀그룹이 곧 교회지요.”라고 대답했다. 현재 그들은 거의 485 개의 셀그룹을 가지고 있고, 그 모임들에 참석하는 참석자 수도 매주 4,800 명 가량이 된다. 겔로우웨이가 70년대 초반에 그의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는 10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 개의 셀그룹을 가지는 것이 바람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비율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들은 TLC 셀그룹이라 불리며, “TLC”란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Tender Loving Care)을 나타낸다.

TLC 그룹들의 목적

겔로우웨이는 기술적으로 TLC 그룹의 세 가지 목적을 설명한다.

- 첫째로, 제자를 삼는다.
- 둘째로, 복음을 전한다.

· 셋째로, 목양을 한다.

그는 각 그룹에 6개월마다 새로운 한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표가 주어졌음을 설명한다. 그는 그룹 지도자들에게 직접 구령을 하러 나가도록, 사람들을 찾아 회심시키도록 촉구한다.

겔로우웨이는 또 TLC 셀그룹을 인도하는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한 시간 정도의 모임을 계획하도록 지시한다. 그는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잘하고, 모든 사람들과 눈이 잘 마주치는 곳에 앉도록 하며, 항상 자리를 하나 비워두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라고 권면을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빈 자리들을 남겨두지는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빈 자리들이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겔로우웨이는 병원 심방을 위한 요청과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 및 결석자들의 문제 등을 TLC 셀그룹을 인도하는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전한다. 그들은 차례로 전도와 양육, 혹은 격려를 위해서 그들의 TLC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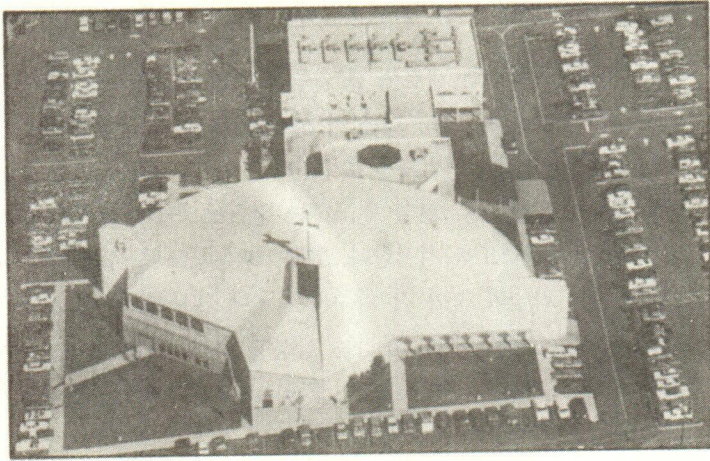
TLC 그룹들은 12 주 정도의 정해진 기간 동안 함께 만나기로 “언약”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중단되는 그런 그룹들이 아니다. 겔로우웨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TLC) 그룹들은 끝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TLC 그룹들은 성경연구반같이 봉사하지는 않는다. 그들도 성경연구를 하기는 하지만, 주요한 초점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다.

TLC 그룹들은 그저 “나누는” 그룹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겔로우웨이는 나누기만 하는 그룹들은 잠시 존재하다가 이내 사라져버린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의 TLC 그룹들은 필요뿐 아니라 과제 중심이기 때문에 영속적인 흐름을 갖게 되리라 믿는다.

TLC 그룹의 활동

셀그룹 안에서 활동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주중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오리곤주 포틀랜드시

에 집에서 모이는 교회학교반 정도로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에서의 TLC 그룹들은 세 가지 주요한 활동에 참여한다.

첫째로, 그들은 함께 기도한다. TLC 그룹들은 짧은 대화식 기도로 시작한다. 회원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들의 진보 상태를 알아본다.

그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므로, 그들은 함께 연합이 된다. 이것은 서로를 위한 사역뿐 아니라 전도를 위한 기본이 된다.

둘째로, 그들은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 겔로우웨이는 “이것은 결코 형식적인 성경공부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경공부입니다.”라고 지적한다.

겔로우웨이의 설교뿐 아니라, TLC 그룹들에서 배운 교훈들은 계속적으로 전달된다. 겔로우웨이는 사람들은 “침투에 의해서 가장 잘 배운다”고 말한다. 하나의 예로 그는 6 주 동안 청지기직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

했다. 그리고 TLC 그룹들은 청지기직분을 공부하면서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결과적으로 헌금이 극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한다.

기도도 같은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는 6 주 동안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했고 TLC 그룹들은 6 주간 기도에 관해 공부했다. 역시 영적인 결과가 극적으로 나타났다.

공부 그 자체는 전통적인 장년 교회학교 교실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르쳐지지 않는다. 깰로우웨이는 실천적인 경향이 강한 공과를 쓴다.

그룹들을 인도하는 평신도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공과 시간에 토론과 상호 교환을 하도록 돕는 두 페이지의 질문서를 받는다.

“좋은 TLC 그룹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깰로우웨이는 주장한다. “만약 리더들이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배움의 효과는 매우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을 한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과 기도 응답 및 삶의 고충을 털어놓는 일 등을 서로 간에 나눈다. 이렇게 할 때, 깰로우웨이는 사람들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서로 기도하라”(약 5:16)는 야고보서의 권면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고 말한다.

그런 후에,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실제로 서로를 돕는다. 여기에서 몸을 섬기는 일에 관한 성경적인 명령이 발생한다고 깰로우웨이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함께 무엇을 먹으며 교제한다.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한 사람이 나에게 그의 TLC 그룹의 모임은 한 주간의 가장 기쁜 순간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첫번째 일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 그 주간의 소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말하고 난 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며 참여하는 토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피자를 주문해서 커피와 함께 먹으며 교제를 계속합니다. 나는 그 어느 것보다도 이 모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TLC 그룹들의 선택

겔로우웨이는 “미국인들은 선택을 좋아합니다”라고 말한다. 회원들과 방문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 그룹에 가입한다. 이 전략은 교회가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그룹들로 인도하는, 일리노이 주 사우스 배링톤 시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와는 대조를 이룬다.

TLC 그룹들의 의미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는 ‘가이드 포스트(Guidenposts)’ 잡지의 설립자이자 ‘적극적인 사고의 능력(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의 저자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 의해서 가이드 포스트 교회 상을 수상했다. 필은 이 상을 겔로우웨이에게 시상할 때, 수상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로 TLC 프로그램을 들어 설명했다. 필은 지역 주민들에게 영적이며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한 이 프로그램을 치하했다. 포틀랜드의 시장 클락은 10월 26일을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의 날”로 선포하는 선언서를 낭독했다.

회심에 의한 성장

TLC 그룹들 외에도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는 2부로 드리는 오전 예배와 같은 시간에 모이는 교회학교가 있다. 강력한 유년교회학교와 함께 여러 형태의 장년반들이 속속 세워지고 있어서 그 중 원하는 반을 선택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반들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학교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들을 삼는 교회의 전체 구도에서 오직 일부분에 불과하다.

“우리는 한 주간 내내 계속되는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역들을 계속 늘려나감으로써 폭발적 성장을 기하려 합니다.”라고 겔로우웨이는 설명한다. 이 말은 TLC 그룹들이 매일 밤 도시 전역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 교회의 건물을 가리키며 “당신이 언제 교회에 오든지 당신은 각 부류의 그룹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주일 저녁보다 수요일에 청소년들은 더 잘 모인다.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지요.”라고 겔로우웨이는 말한다. 덧붙여 “유유상종”의 원리라고 설명한다.

교회가 “치유하는 목회”로 일관해 왔으므로,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에 마음이 끌렸다. 겔로우웨이는 TLC 그룹들을 통해 교회에 들어오는 485 개의 “입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참된 성장이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신자를 데리고 와서 성장하지는 않았다. 현재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80 퍼센트는 이전에 교회에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젊다. 이 교회는 전적으로 회심자를 기반으로 성장한 교회이다!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겔로우웨이는 다른 사람들을 복음전도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역 초기에, 대학생선 교회의 지도자가 어떻게 개인 구령자가 될 수 있는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수년 동안 그는 평신도들에게 이러한 것을 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 수고가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겔로우웨이는 현재 평신도 목회자들의 90 퍼센트가 매달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고 있다. 그는 TLC 그룹들과 필요를 채우는 사역들은 너무나 많은 대상자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 사역은 평신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사역의 자연적인 과정이 된다.

평신도 사역이 강조됨

겔로우웨이는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에서 평신도사역을 강조한다. 평신도 목회의 세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훈련과정에 있는 평신도 목회자들.
- 2단계, 훈련 받은 평신도 목회자들.

· 3단계, 5 명의 평신도 목회자들—이들은 각각 교회의 다른 모임들을 인도한다.—을 감독하는 평신도 목회자 리더.

이 교회는 일 년에 세 차례 “슈퍼볼” (미국 프로 미식축구의 왕좌 결정 전-역자주) 즉 평신도 목회자 훈련 기간을 갖는다. 슈퍼볼이라고 이름지은 것은 이 단어가 평신도 목회자가 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흥분감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TLC 그룹들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단계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 목요일과 금요일 및 토요일에 모이게 된다.

그들이 “슈퍼볼”을 마치면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그들은 약 100 일간 감독을 받게 된다. 이 기간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평신도 목회자”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 사역을 해야 한다.

목회 구조

“1984년 나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TLC 그룹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재조직했습니다.”라고 겔로우웨이는 설명한다. 그 때에는 2 단계의 사역이 있었다. 우선은 목회자들이고, 그 다음은 TLC 지도자들이었다. 현재, 모든 목회자들은 실제로 그의 사역의 대부분이 수행되는 수단인 TLC 그룹 사역을 인도한다. 셀그룹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교회가 목회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재조직하려는 노력의 방안으로 겔로우웨이는 그의 교회를 지리적으로 구역을 나누었다. 구역 목회자는 그 구역의 모든 회원들과 대상자들 및 평신도 목회자들과 TLC 그룹들을 감독하도록 선정되었다. 교회가 셀그룹 사역에 있어서 성장과 확장을 계속하면서, 특별한 필요들과 사역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특별” 구역들이 더해지게 되었다.

현재 이 교회는 7 개의 특별 구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승리의 새 생활, 독신자 사역, 청·장년 사역, 노년 사역, 어린이 사역, 학생 사역 및 음악 사역 등이다. 이러한 특별 구역들은 그 구역의 평신도 목회자들과 셀그룹을 감독하는 그 구역 목회자를 가지고 있다.

목회 지도력

“우리 TLC 그룹들의 비결은 지도력이지요.”라고 겔로우웨이는 말한다. “그룹들은 지도력 중심이고 배가 중심입니다.” 이것은 구역 목회자들은 항상 사람들을 사역의 더 중요한 역할로 고무시킬 잠재적인 지도력을 찾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시상합니다.”

평신도 목회와 지도력에 대한 교회의 강조는 겔로우웨이 자신의 책무를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할 일은 우선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500 명의 평신도 목자들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는 “나는 사역을 나눠주는 것과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고백한다.

이 글을 쓸 때, 500여 명의 평신도 목회자들이 TLC 그룹들을 지도하고 있다. 겔로우웨이는 “우리의 목표는 1995년까지 매주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 그룹에 참여할 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천 명의 평신도 목회자를 확보하는 일입니다.”라고 말한다.

사역 방법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부 조직에 관한 남침례교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라고 겔로우웨이는 말한다. “우리는 그룹 지도자들을 그룹 목표들을 향해서 일하도록 정렬시킵니다. 즉 우리가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그 명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우리의 TLC 그룹들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거대한 TLC 정보망과 더불어 뉴 호프는 전화 연결 체제를 도입했다. “우리는 8 주에 한 번씩 우리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전화합니다.”라고 겔로우웨이는 말한다. “우리는 또한 8 주에 한 번씩 모든 대상자들에게 전화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정보를 처리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돕도록 평신도 목회자들을 모집하는 구역 목회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전화 사역은 심방에

대해 결코 들은 적이 없으며, 갈라진 틈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될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성공적인 교회는 관계적이고, 필요 중심적이며, 관련성이 있고, 사람들을 돕는 것에 목표를 둔다.

새로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즉각 봉사에 참여한다. 그러나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비활동적이었던 회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란 힘들다고 겔로우웨이는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들이 즉각적으로 일을 하도록 조치합니다.” 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그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라고 도전하셨던 예수님처럼 행합니다.”

사역의 동기

이 교회에서는 동기가 문제되지 않는 것 같다. 겔로우웨이는 이것을 얼마간 책임의 조직과 관련지어 생각한다. 열심과 바라는 바는 책임에서 기인한다고 믿고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주간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결과, 아무도 갑작스럽게 옆길로 새지 않으며, 어떤 그룹도 새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분열되지 않으며, 어떤 그룹도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 “사람들은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에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에서 맡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겔로우웨이는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겔로우웨이는 “평신도 목회자들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신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라고 말한다. 금요일 직원 회의에서 보고서들이 토의되고 분석된다. 평일에 이 교회는 포틀랜드

시와 그 인근 전역의 13,000 명의 사람들과 접촉을 한다.

사역 모델

많은 사람들이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를 비전통적인 교회라고 한다. 데일 겔로우웨이는 “나에게 있어서는 전통적인 목회인이 비전통적인 목회인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에 처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이 제자가 되도록 도우며, 또한 그들이 제자들을 생산해 낼 수 있 기까지 성숙하도록 돕는 사역들을 창출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응답한다.

겔로우웨이는 그의 접근 방법이 90년대 교회를 위한 모델이 되리라고 믿는다.

“성공적인 교회는 관계적이고, 필요 중심적이며, 관련성이 있고 사람들을 돕는 것에 목표를 두지요.”

뉴 호프의 신학

웨슬리안

데일 겔로우웨이의 뿌리는 웨슬리안 신학에 있다. 나사렛 교단에서 성장한 겔로우웨이는 “요한 웨슬리는 ‘구원 사건’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교 마지막에 강단 초청을 하며 사람들에게 결정을 촉구하는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훌륭한 관계적인 복음전도에 대한 접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웨슬리가 설교 마지막에 그의 손을 내밀면서 “만약 당신의 심령이 나의 심령과 같다면 내 손을 잡으시오.”라고 했던 것을 지적한다.

겔로우웨이는 웨슬리가 했던 복음주의적인 부흥의 힘은 원래 작은 모임이나 사회적인 모임 안에 있었지, 군중에게 설교하는 데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그는 “작은 모임을 통해 사람들은 책임감을 갖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더욱 충성을 하게 되었지요. 또한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성서적

겔로우웨이는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는 참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사이에 있다는 점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신학보다 성서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 때 다양한 방법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청을 사역하는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만을 전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설교에 안팎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주 우리 교회에 나와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도록 또한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끊임없이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상처난 곳을 돌보아 줄 때, 그들은 그들을 돕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신 구세주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겔로우웨이는 성결교단을 통해 받은 좋은 영향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충만을 최초로 경험한 후 사역에까지 성령충만함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성령충만함의 확장은 성령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오게 된다.

관계적

“성령님께서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목회자와 교인 사이, TLC 그룹 안의 구성원들과의 사이에 있는 사랑의 관계에서 역사하십니다.” 겔로우웨이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관계들이 프로그램보다 영적 성장에 더 중요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아내와 다투고 목회에 반항하거나 십일조를 하지 않을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겔로우웨이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거룩함은 율법주의나 공허한 고백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한다.

지평선을 넘어서

겔로우웨이는 이 교회가 현재는 3부 예배를 드리지만, 장차 현재의 좌석 3,000 석을 꽉 채운 채 여러 번 더 예배를 드리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큰 새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한 개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지평선을 넘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나서는, 그러한 선구자들 중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7 년간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는 1 년에 평균 500 명에서 700 명의 비율로 성장을 해왔다. “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수를 배로 늘리게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겔로우웨이는 말한다.

1989년 11월 마지막 주일, 나는 구역 목회자들이 평신도 목회자 리더들과 평신도 목회자들의 수고를 치하하는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다. 이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는 데일 겔로우웨이의 또 다른 모습에 접하게 되었다. 겔로우웨이가 교회가 성공한 공로를 구역 목회자들에게 돌리면, 그들은 평신도 목회자 리더들에게, 평신도 목회자 리더들은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평신도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에게 돌린다. 목회자에게 “아침을 하는” 법도 없고, 겔로우웨이는 자신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 승격을 시키는 법도 없었다.

이것을 보며 나는 이 교회의 저력을 이해했고, 데일 겔로우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데일 겔로우웨이와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목회 연구를 위해서 캐시 밀즈가 쓴, ‘깨어진 회원들, 고쳐진 몸: 사랑과 회복으로 사역을 세운다(Broken Members, Mended Body: Building a Ministry with Love and Restoration)’를 읽어 보라.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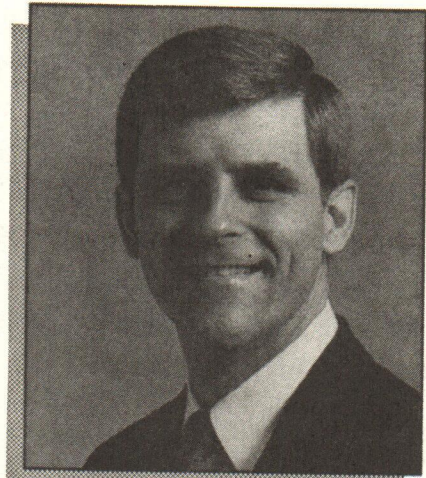
1876

1877

5

교구 교회에 대한 비전

페리미터 교회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목회자, 랜디 폼 목사

교회는 목회자의 연장이자 그림자인 까닭에, 애틀랜타의 전 수도권 인구를 전도하려는 페리미터 교회(Perimeter Church)의 훌륭한 지역 프로그램은 담임 목회자인 랜디 폼의 독특한 비전을 보여준다.

폼이 원래 품었던 비전은 페리미터 고속도로 위에 100 개의 혁신적인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 교회는 이러한 비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사역은 수도권 전 지역을 전도하며, 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는 애틀랜타의 모든 지역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주님, 우리에게 페리미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나는 애틀랜타의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교회를 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도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페리미터 교회는 “지역교회”를 고안하였고 이 교회는 여러 장소에 세워졌다. 이 교회는 각 회중에 한 명의 목회자를 두는 동시에 한 명의 담임목회자가 있으며, 각 회중으로부터 3 명의 장로들로 구성된 한 위원회와 각 회중에 의해서 수행되는 하나의 전도 프로그램을 가졌다.

미국에서 혁신적인 교회 중의 하나인 이 페리미터 교회는 독특한 면모들을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 초점을 맞춘 다섯 가지 부문은 다음과 같다.

- (1) 이 교회는 확장된 지리적인 교구 교회이다.
- (2) 이 교회는 목회 지도력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을 반영한다.
- (3) 이 교회는 베이비 부머 교회의 특색들을 가지고 있다.
- (4) 이 교회는 혁신적인 계획을 사용한다.

(5) 이 교회는 새로운 교파주의의 출현을 반영한다.

움트는 비전

랜디 폼은 1977년 여름에 페리미터 교회를 설립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다. 앨라배마 주립대학에 다니던 시절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랜디 폼은 진지하게 목회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 선교사역을 할 생각이었지, 개교회를 시작하게 되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시시피 주 잭슨 시에 위치한 개혁장로회 신학대학원에 등록을 했다. 거기에 다니는 동안, 그는 선교 정책가인 존 학개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라.”는 말을 했었다. 이 도전이 페리미터 교회의 좌우명이 되었고 폼의 생애를 인도하는 신념이 되었다.

폼이 신학대학원을 마쳤을 때, 그를 후원하는 교파인 미국 장로교(the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PCA)는 교단 차원에서 교회 개척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 교단은 언제나 하나의 핵심세력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해 나갔다. 그들은 남부의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발판을 잡기 원했다. 폼은 전통적인 목회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기 원했고 막 태동하던 그 교단은 그 모험에 끼이 위험 부담을 지려고 했다.

미국 장로교는 애틀랜타 북부로 향하는 폼의 이사 비용을 담당했다. 미국 장로교는 그에게 매달 봉급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 첫달 봉급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주머니에 10 불(약 8천 원)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애틀랜타 북부에 도착을 했다. 이 젊은 교회 개척자는 아파트 보증금이나 첫 월세 그리고 관리비를 지불할 돈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아내 캐롤과 함께 하나님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했다. 그들은 막바지 순간에 필요한 돈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해결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

다. 폼은 돈이 도착할 것을 기대하면서 금요일 오후 4시까지 기도 응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돈을 마련하지 못한 그는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대 사무실로 내려갔다.

“주말에는 사무실에 돈을 보관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금요일 오후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며 월요일 아침에 가져오라고 아파트 관리인이 말했다.

그날 밤 그들은 다음날 우편함에 돈이 들어왔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우편함은 비어 있었다. 토요일 밤에 그는 자다가 일어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날 아침 랜디와 캐롤은 찰스 스탠리 박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애틀랜타의 도시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에 참석했다. 그들은 텔레비전에서 봤기 때문에 스탠리가 위대한 강해 설교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심령은 메말라 있었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다.

랜디와 캐롤은 교회 건물로 들어가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한 친구를 만났다. 좀더 긴 이야기를 나누기 원했기 때문에 예배당 뒷좌석에 함께 앉았다. 그 친구는 신학교 시절에 폼이 보내주었던 그 돈을 도로 폼에게 돌려주었다.

랜디는 방세와 보증금과 식료품 값으로 600 불(약 50만 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그의 필요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친구에게는 이것에 관해서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헌금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친구는 백지수표를 꺼내서 그 위에 금액을 썼다. 폼은 그가 그것을 헌금함에 넣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친구는 폼의 주머니에 그 수표를 넣었다. “자네가 필요한 곳에 쓰기 바라네.”

예배 시간 내내 폼은 그 수표의 액수를 보고 싶었다. 그는 수표 액수를 본 후에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수표는 600 불(약 50만 원)짜리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소개받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랜디 폼이 애틀랜타로 왔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면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의 이름과 주소를 묻곤 했기 때문이다.

폼은 이것을 교회를 시작하는 “소개받는 방법”이라고 부른다. 그는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을 주었던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런 뒤 폼이 그들에게 전화를 하면 만날 것을 약속한다. 그런 식으로 그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을 섬기러 간 것이지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간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들에게 성경공부를 하도록 권면을 했지요.”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교회에 대해서 말한 후에 성경공부에 관심이 있는지를 물으며 첫날을 보냈다.

그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과는 아침 일찍 조반을 함께했고, 어떤 사람들은 점심 식사 때나 저녁에 만났다. 이 사람들 중의 몇몇은 큰 성경공부들 중의 일부가 되었다.

첫번째 시설

1977년 7월 하순 20 명의 무리가 주일 저녁예배를 드리려고 래디슨 호텔에서 만났다. 새로운 교회가 진행중이었다. 5 명의 운영 위원회가 교회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그들은 9월 13일을 예정일로 정했다. 날씨가 임박해 오자, 랜디는 행동에 옮기기로 결정을 했다.

그 무렵 오륙십 명이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었다. 랜디의 눈에 부지로 적합해 보이는 곳은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그는 아내에게 데이즈 호텔의 백만장자 주인 세실 데이를 만나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가 세실 데이를 만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였다. 데이즈 호텔의 회장 같은 사람은 초년생 목회자에게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세실 데이는 수많은 돈을 그리스도인의 복지를 위해서 기부하는 박애주의자였다. 때문에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랜디 폼이 데이즈 호텔 내 회장실로 걸어 들어갔을 때, 때마침 비서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폼은 살짝 열려져 있는 세실 데이의 방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안을 들여다보려고 할 때, 데이가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고 그들은 깜짝 놀랐다. 재빨리 폼은 데이에게 교회를 세우려는 자신의 비전과 함께 의견을 말했다. “시설을 임대하고 싶습니다.” 데이는 자신의 바쁜 일정을 설명해 주고 잠시만 기다려 주면 만나주겠노라고 했다. 몇 시간 후에 세실 데이는 그에게 5 분을 내주었다.

데이 부동산 회사는 큰 현대식 고층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최근에 버포드 고속도로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2층 건물에서 나와 이전했다. 데이 부동산 회사에서 임대 업무를 관장하는 대리인이 랜디 폼에게 빈 건물을 보여주면서 전세는 한 평방피트당 4 불(약 3,200 원)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매달 1,700 불(약 136만 원)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거기에 약 300 불(약 24만 원)의 관리비를 더하게 되면 매달 2,000 불(약 16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폼에게는 한 달에 200 불(약 16만 원)조차 없었다. 그러니만큼 이 일은 믿음을 요하는 일이었다.

그런 후 그 부동산 대리인은 폼에게 세실 데이는 새로운 교회에 전세금을 할인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와 전화 통화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장님은 정말 당신에게 할인해 주기를 원하는군요.” 매달 관리비 없이 50 불(약 4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맨 먼저 건물을 주셨는데, 첫번째 주일 아침예배는 새로운 건물에서 드렸다.

이것은 이 교회가 개척되는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다. 새로운 건물에서 첫 주일 아침예배가 드려진 것은 1977년 9월 25일이었다.

확장과 성장

기도 모임은 가정에서 가졌으며, 이것은 미래의 가정 모임의 전조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도력과 제자의 삶을 훈련하기 위해 모이는 남자들을 위한 DAWN(Discipleship And Weekly Nurture) 그룹이 있었다.

두번째 사역은 1980년에 조지아, 매리에타 근처로 모교회에서 약 10 마일(약 1.6 킬로미터) 떨어진 주간 탁아소에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회중이 3 년마다 세워지고 있다. 모교회가 약 20 마일(약 3.2 킬로미터) 동쪽에 위치한 귀넷 카운티에 땅을 매입했을 때에도 절반 정도의 사람들만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했을 뿐 다른 사람들은 그 곳에 머물러 있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혁신적이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게 되어있다.

오늘날, 페리미터 교회는 4 개의 회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회중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둘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얼마 전에 건축을 시작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막 건축을 시작했다. 1989년 여름, 디카터에 있는 중상류층 흑인 회중과 아덴에서 시작되었던 학생 회중이 이 교회에 합류했다. 이 교회는 원래의 비전대로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애틀랜타로부터 90 마일(약 145 킬로미터)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지아 주립대학에 다녔던 그들은 랜디 폼의 본래의 비전을 나누었고, 대학도시에 페리미터 형의 교회를 시작했다.

선교를 위한 모범

“우리는 일정한 모범이나 기준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교라는 차원에서 생각합니다.”라고 폼은 말한다. 지역적으로 확대된 교구라는 이 모범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속적인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선교에 대해 중의 역할을 한다. 폼은 “우리는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신학을 규정하고, 우리 신학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외 모든 면에서는 선교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맞추는 것입니다.”라고 이어서 말했다.

적합한 비전

전통적인 장로교는 지역적으로 확대된 교구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는 페리미터 교회의 성과에 협조적이었고, 폼은 미국 장로교에 헌신했다. “전통적인 모델은 아니지만, 비전은 미국 장로교와 조화를 이룹니다.”라고 폼은 말한다. “우리는 장로교회의 전통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 교회 안의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발전적인 형태

초기에, 다른 장로교회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약 50 명의 사람들이 왔다. 폼은 그들에게 페리미터 교회에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혁신적인 반면 그들은 전통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왔고, 그들 대부분이 이전의 교회로 되돌아감으로써 폼이 염려하던 바가 사실로 입증되었다.

지금도, 폼은 “우리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혁신적이지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게 되어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조정할 수 있는 조직

페리미터 교회가 새 교회들을 계속 개척하고 있을 때, 폼은 “나는 새 교회를 시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 스스로 새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연기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원치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즈음에 찰스 풀러 복음전도협회의 회장인 칼 조지와 상담을 했다. 그는 한 교회에 여러 회중들이 있으면 비전을 성취할 수 없다고 충고했다. 폼이 그의 모범을 재고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 비전은 이 모델과 더불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비전은 모델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을 했다.

페리미터 교회는 그 모델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새 조직을 결정했다. 그들은 본래의 일에 재헌신했다. 그들은 모든 회중들이 “특수화”할 것을 결정했다. 다시 말해 각 회중은 나누어 조직되고 고유한(자주적으로 후원하고 조직하고 유지하는) 하나의 독립 교회가 될 것이었다.

각 교회는 예산의 5 퍼센트를 PMI(Perimeter Ministries, Inc.)라고 불리는 새 조직에 주게 될 것이다. 폼은 새 조직의 최고경영자이지만 직접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고 업무진행 책임자를 두고 경영할 것이며 나는 계속해서 모교회에서 목회를 할 것입니다.” PMI의 주요 목적은 교회 개척, 구제 사역과 교회 재원이 될 것이다.

폼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새교파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대답한다. “미국 장로교는 우리 교제의 기반이며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PMI는 교회 개척과 구제 사역을 담당할 것이며, 미국 장로교의 기능을 대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로교적인 정치

한 교회와 많은 회중이라는 기존의 조직 속에서 “당신은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회중들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라고 폼은 질문을 받았다. 그는 명령하지 않고 방향 설정과 양질의 목회를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했다고 대답했다.

폼은 “모든 목회자들은 매주 모이며, 내가 그 회의를 주재합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나는 최고경영자이지만, 그들에게 정책과 목회를 지시하지 않습

니다.”라고 덧붙여 말한다. 그들은 상호 관계와 총체적인 계획 및 주요 예산 승인을 위해서 함께 만났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가치관이 회중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모든 교회들이 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폼은, 각 목회자는 가르치는 장로 혹은 리더 중의 리더라고 여긴다. 전통적인 장로교처럼 장로들은 교회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폼은 “우리는 결재를 받으려고 장로들에게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조정하도록 “사람들의 상황”을 가지고 간다. 이것은 분배된 문제 해결과 분배된 지도력인 것이다.

치리하는 장로들은 교회의 정책을 수립하며, 목회자들은 회중을 목회한다. 치리하는 장로들에게는 각각 정보나 아이디어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책임지는 목회의 영역이 있다. 일례로, 가정 친교 그룹들을 관장하는 장로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매달 그의 리더들에게 전화를 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 - 무장시켜 주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지도력

폼은 목회 지도력에 대한 그의 새로운 모델이 페리미터 강단에서 보다 혁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자는 목회를 하고 평신도들은 섬김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다른 교회에서는 목회 지도력에 대한 두번째 모델이 사용되었다. 이 모델이란 목회자와 직원들이 목회 안에 있는 모든 평신도들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배치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와 그 목회자를 섬기는 직원들의 가장 주요한 취지는 교회 안에서 평신도를 임명하는 것이다. 이 두번째 모델이 갖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직원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페리미터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셨음을 믿는다. 직원들은 사역의 할당자가 아니라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켜 주는 사람이며, 담임 목회자는 교회 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장시킨다. 폼은 직원을 가리켜 리더-

무장시켜 주는 사람이라고 칭한다.

목회자-무장시켜 주는 사람이라는 모델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폼은 그의 교회에 다니지만 사역에는 비활동적이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비로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평신도를 예로 들어 말한다. 애틀랜타 외곽에 있는 그의 교구 목회자가 랜디 폼에게 전화를 걸어 어려운 수술을 받기 위해 에모리 대학 병원으로 가고 있는 그의 교구민 중 한 사람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폼은 불치의 암에 걸린 평신도를 만나 목회 심방과 에모리 대학 병원에 있는 환자를 돌보는 목회적 책임을 맡겼다.

“랜디,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그 평신도가 말했다.

“그러면 나는 실패했군요.”라고 폼이 대답을 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이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병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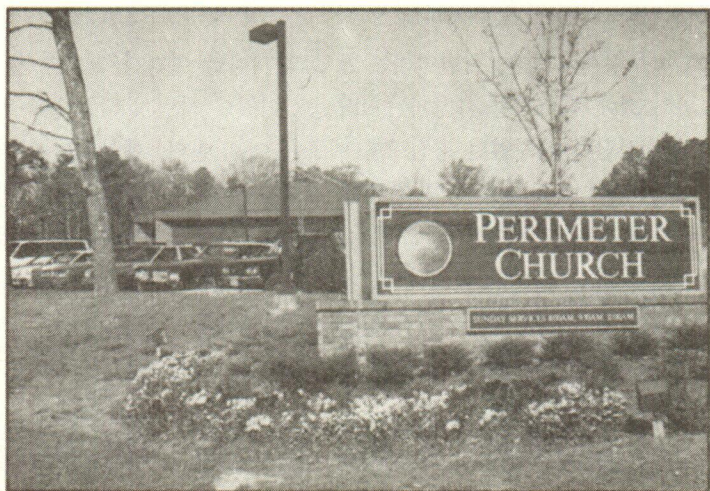
폼의 역할은 사역을 하도록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것이며, 모든 목회를 혼자서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의 목표는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을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 사역을 위해 어느 정도 훈련을 마친 그는 한 환자를 방문했다. 그리고 나서 폼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또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병원으로 가서 그가 죽기 전에 전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폼은 대답한다. “아니오, 당신이 가서 그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 평신도가 자신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자, 폼은 또다시 “그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당신을 무장시키지 못했소.”라고 말했다.

즉시 그는 그 사람에게 믿음 나누는 법을 가르쳐 다시 병원으로 보냈다. 이렇듯 폼의 역할은 사역을 하도록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것이며, 모



페리미터 교회,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든 목회를 혼자서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의 목표는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을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변화의 충격을 흡수하라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변화를 멈추지 마십시오.” 랜디 폼은 오늘을 충고한다.

“나는 변화를 극적으로 팔곤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렇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변화라는 이 물건을 그는 정말 장사꾼처럼 기가 막히게 팔아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회중들로 하여금 혁신적인 방법으로 극적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도전했던 방법을 설명했다. “5년 전 나는 사람들에게 자료물을 가지고 와서 왜 우리가 장소를 팔고 교회를 다른 부지로 옮겨야 하는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폼은 자신이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일들을 하는 이유와 그것을 하는 방법만을 설명합니다. 나는 그들이 알아야 할 것과 시기에 대해 말할 때에도 앞으로 무엇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적게 설명합니다.

“나는 변화에 관해 너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다루기보다는 정보 부족으로 생긴 문제를 다루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어떻게 사역에 참여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관심을 보이는 반면 교회 사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는 일찍이 새신자들조차 변화에 반대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변화였기 때문이다. 이 반에 참석한 새신자들은 교회에 등록하도록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페리미터 교회의 성격을 발견하고 이 교회가 제공하는 바에 접근하도록 초청되었다.

이 모임에서, 폼은 교회를 위한 그의 비전을 전달한다. 그리고 교회의 혁신적인 구조와 형태를 설명하고 변화를 위해서 참석자들을 준비시킨다. “변화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는 다른 교회들이 신학과 정치적인 면에서 변화하는 반면, 페리미터는 모델과 방법 등에 있어서 다르다고 설명한다. “만약 새 회원들이 변화를 기대하고 온다면, 그들은 모델이나 방법 때문에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폼은 주장한다.

이 반의 마지막 과정에서, 회원 대상자들은 교회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도전을 받는다. 이를테면, 목회의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도전을 받는다. 폼은 이 반을 거치면 그 반의 90 퍼센트가 교회에 등록하게 된다고 보고한다.

페리미터 교회의 예배 형태들

원래 페리미터 교회의 예배는 찬양과 찬송 그리고 성가대에 있어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와 매우 비슷했다. 그러나 수년간 예배 형태가 과감하게

바뀌었다. 예배자들은 더 이상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으며, 오버헤드 프로젝터에 의해서 소개된 음악을 배운다. 앙상블이 성가대를 대신한다.

성전은 더 이상 성만찬 탁자와 강단이 앞에 있는 성단소가 아니다. 강단은 공개되어 있고, 폼은 강단 없이 그저 성경을 손에 들고 회중 앞에 선다. 음악으로는 피아노와 오르간 대신에 오케스트라를 사용했고 예배에 드라마를 첨가했다.

폼은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예전에 나는 전통적인 크리스천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인도하는 일을 막는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장벽들을 허물려고 합니다.”

그는 찬송과 찬양, 그리고 성단소와 성가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예배의 요소들이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성가대 합창을 듣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독창과 앙상블을 듣기 위해서는 연주회에 참석합니다. 그 주간에 그들이 들었던 것과 같이 주일날도 같은 방법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폼은 그 교회의 전통적인 유산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달에 한 번 주일 저녁예배 때 전통적인 성만찬 예배를 갖는다. 설합에서 찬송가를 꺼내오고, 교회 앞에는 강대상을 놓고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를 드린다.

설교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폼은 “나의 설교 스타일은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이지요.”라고 대답했다. 어떤 사람은 폼이 청중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대화식 설교’라고 불리며 폼은 스스로 단지 의사 전달자일 뿐이라고 말한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설교는 성경을 한구절 한구절 설명하는 강해식 설교라고 생각하였던 그의 사고가 바뀌었다.

현재 그는 성경의 논점들과 주제들에 관련되는 한 성경 해석과 함께, 설교에 대해서 조화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하며 또한 답변을 위해서 그들을 성

경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 교회는 규칙적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현대식 전도를 위한 쇼들을 고안하여 무대에 올린다. 최근에 페리미터 교회는 “옛날”이라는 뮤지컬의 입장표를 3,000 장이나 팔았다. 사람들은 베이비 부머들의 음악인 60년대의 음악을 분석하기 위해서 옛날로 되돌려졌다. 그들이 60년대 베이비 부머들을 감동시켰던 세속적인 노래들을 불렀을 때, 그 음악은 필요들과 상처들 및 동기들이 설명되어졌다.

쇼가 끝나갈 무렵, 랜디 폼은 60년대의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대답이 되시는지에 관해서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긴 기도’를 해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들의 필요와 관련이 되는지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쇼가 끝난 후에, 사람들은 그들의 친구들을 다과와 대화가 준비되었던 식당으로 데려갔다.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일은 제공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이 시간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교회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보낼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식당에 앉아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했다. 전도에 대한 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2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

요약

랜디 폼은 전통적인 예배 모델을 따랐던, 지역적으로 확대된 교구 교회인 한 혁신적인 교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수년간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적인 예배 모델은 창조적인 형태의 예배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100 개의 장소에 분산해서 모이는 회중을 가진 한 교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더욱 발전되었다.

메시지는 바뀐 것이 없으나, 발전적인 모델은 끊임없이 나타난다.

1911年

1月 1日 星期日 晴
2月 1日 星期日 晴
3月 1日 星期日 晴
4月 1日 星期日 晴
5月 1日 星期日 晴
6月 1日 星期日 晴
7月 1日 星期日 晴
8月 1日 星期日 晴
9月 1日 星期日 晴
10月 1日 星期日 晴
11月 1日 星期日 晴
12月 1日 星期日 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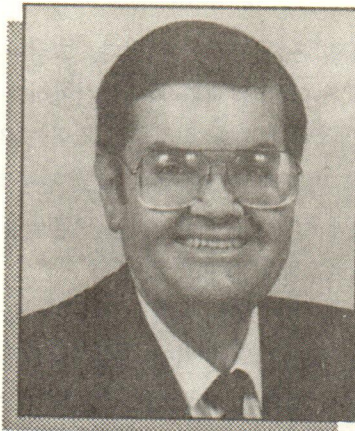
1912年

1月 1日 星期日 晴
2月 1日 星期日 晴
3月 1日 星期日 晴
4月 1日 星期日 晴
5月 1日 星期日 晴
6月 1日 星期日 晴
7月 1日 星期日 晴
8月 1日 星期日 晴
9月 1日 星期日 晴
10月 1日 星期日 晴
11月 1日 星期日 晴
12月 1日 星期日 晴

6

도심지 교회의 새생명

제일 침례교회
플로리다주 잭슨빌시



목회자, 호머 린드세이 II · 제리 바인 박사

플로리다 주 잭슨빌의 도심지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는 남침례회에서 급성장하는 큰 교회들 중 하나다. 한 10 년간 도심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외로 빠져나가도록 부추기는 사회적인 압력을 받았을 때도, 제일 침례교회는 그 자리를 고수했다. 현재 이 교회는 평당 가장 비싼 값을 호가하는 도시의 심장부에서 가장 넓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제일 침례교회의 힘은 전통주의에 있다. 그러나 사실 이 교회는 전통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교회가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보수적인 입장과 분리주의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이지, 이 교회가 취하는 행동이나 비전의 측면에서는 결코 전통적이지 않다. 이 교회는 독신자들과 대도시에 살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회 사역과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 교회는 “현대적인 그리스도인 베이비 부머” 음악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베이비 부머들을 전도하고 있다. 또한 전도 방법이 혁신적이라거나 예배 형태가 현대적이진 않지만,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는 교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도심지 목회를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다른 교회들은 포기하지만 이 교회는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한 회중, 두 목회자

제일 침례교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역하는 목회자가 두 명 있다는 것이다. 호머 린드세이 2세 박사와 제리 바인 박사인데 이들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 둘은 각자가 가진 은사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그들의 타고난 재능은 이 시대와 이 교회를 위해 예정된 것 같다.

린드세이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4년간 협동목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하는 목회가 내겐 새로운 경험이 아니지요. 그래서 나는 매주 세 번 해야 하는 설교를 적절히 잘 해낼 수 있었지요.”

린드세이 목사는 앨라배마 주 모빌 시에 있는 도핀 웨이 침례교회의 목회자인 제리 바인을 조지아 주의 서로마 침례교회로 추천을 한 바 있었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였고, 그들이 만났을 때 린드세이는 바인에게 잭슨빌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에서 자신과 같이 담임 목회자로서 일할 것을 제의하고 기도해 보도록 부탁했다. 그들이 다섯 번 만나는 동안 그들 앞에 놓여진 큰 문제에 관해 의논을 하고 기도를 했다.

“그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이 생각을 집사들에게 제안했고 그들은 제리 바인을 목회자로 청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린드세이는 이렇게 강조했다. “우린 둘 다 목회자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협동 목회자”라고 불렀지만 곧 사용하지 않았다. 단지 목회자라고 불렀다.

바인은 그의 목회지 가운데 제일 침례교회가 가장 도전적인 곳이라고 생각한다. “신약을 연구해 보면, 목회자라는 용어는 복수로 쓰여 사용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명령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만, 받아들일 만한 신약 모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바인은 약 3,500명 정도 참석하는 오전 8시 예배 때, 린드세이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오전 11시 예배 때 설교를 한다. 바인은 주일 저녁예배 때, 린드세이는 수요일 저녁예배 때 설교를 한다.

1983년 호머 린드세이 2세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3개월간 강단에 서지 못했다. 후에 그는 심장 개복 수술을 했고 6개월간 강단을 비워야만 했다. 7년 동안 두 번씩이나 목회할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두 목회자를 두시고 그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내가 병상에 있었을 때도 교회 일은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린드세이는 협동목회자라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왜 협동목사를 두고 있지 않은지 의아해 한다. 그는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비슷한 기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는 구식으로 구령하는 교회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령하는 데 헌신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주요한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 전부이기도 하다.

바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와 린드세이 박사는 목회자로서 함께 교회를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목회자들은 협동하는 인격과 교인들 편에서 생각하는 성숙함과 목회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린드세이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자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를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세우는 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대해 주셨고, 저 또한 바인 박사에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원수이지, 서로에게는 적대시하지 않지요.”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각 부서의 책임자들을 만난다. 제리 바인 박사가 남침례회 회장으로 일했을 때는 린드세이 목사가 직원들을 관리했다. 반면에 린드세이가 심장마비로 일을 못했을 때는 바인이 그들을 관리했다.

두 사람은 같은 직무 설명서를 가지고 있다. 린드세이는 “내가 바인 박사를 고용한 것이 아니며 교회가 나를 청빙한 것처럼 그도 청빙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바인 박사에게 무엇을 지시하거나 혹은 어떻게 그의 직무를 이행하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목요일 행사로 함께

면에서 동등하다. 들은 각자가 가진 은사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그들의 타고난 재능은 이 시대와 이 교회를 위해 예정된 것 같다.

린드세이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4년간 협동목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하는 목회가 내겐 새로운 경험이 아니지요. 그래서 나는 매주 세 번 해야 하는 설교를 적절히 잘 해낼 수 없었지요.”

린드세이 목사는 앨라배마 주 모빌 시에 있는 도핀 웨이 침례교회의 목회자인 제리 바인을 조지아 주의 서로마 침례교회로 추천을 한 바 있었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였고, 그들이 만났을 때 린드세이는 바인에게 잭슨빌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에서 자신과 같이 담임 목회자로서 일할 것을 제의하고 기도해 보도록 부탁했다. 그들이 다섯 번 만나는 동안 그들 앞에 놓여진 큰 문제에 관해 의논을 하고 기도를 했다.

“그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이 생각을 집사들에게 제안했고 그들은 제리 바인을 목회자로 청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린드세이는 이렇게 강조했다. “우린 둘 다 목회자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협동 목회자”라고 불렀지만 곧 사용하지 않았다. 단지 목회자라고 불렀다.

바인은 그의 목회지 가운데 제일 침례교회가 가장 도전적인 곳이라고 생각한다. “신약을 연구해 보면, 목회자라는 용어는 복수로 쓰여 사용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명령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만, 받아들일 만한 신약 모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바인은 약 3,500명 정도 참석하는 오전 8시 예배 때, 린드세이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오전 11시 예배 때 설교를 한다. 바인은 주일 저녁예배 때, 린드세이는 수요일 저녁예배 때 설교를 한다.

1983년 호머 린드세이 2세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3개월간 강단에 서지 못했다. 후에 그는 심장 개복 수술을 했고 6개월간 강단을 비워야만 했다. 7년 동안 두 번씩이나 목회할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두 목회자를 두시고 그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내가 병상에 있었을 때도 교회 일은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린드세이는 협동목회자라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왜 협동목사를 두고 있지 않은지 의아해 한다. 그는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비슷한 기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는 구식으로 구령하는 교회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령하는 데 헌신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주요한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 전부이기도 하다.

바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와 린드세이 박사는 목회자로서 함께 교회를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목회자들은 협동하는 인격과 교인들 편에서 생각하는 성숙함과 목회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린드세이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자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를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세우는 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대해 주셨고, 저 또한 바인 박사에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원수이지, 서로에게는 적대시하지 않지요.”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각 부서의 책임자들을 만난다. 제리 바인 박사가 남침례회 회장으로 일했을 때는 린드세이 목사가 직원들을 관리했다. 반면에 린드세이가 심장마비로 일을 못했을 때는 바인이 그들을 관리했다.

두 사람은 같은 직무 설명서를 가지고 있다. 린드세이는 “내가 바인 박사를 고용한 것이 아니며 교회가 나를 청빙한 것처럼 그도 청빙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바인 박사에게 무엇을 지시하거나 혹은 어떻게 그의 직무를 이행하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목요일 행사로 함께

점심을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일 오전예배를 2부로 드리며, 이를 TV로 방송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두 예배 모두 약 28,000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구식 영혼구령

“우리 교회는 구식으로 구령하는 교회입니다.”라고 린드세이 목사는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령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요한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 전부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수요일 저녁마다 실시하는 전도심방 프로그램에 1,500 명이 참석하고 있다. 린드세이는 “당신은 우리들이 우리의 친구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구령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바인은 이에 덧붙여 말한다. “구령은 제일침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교회는 구령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 각 교회학교 공과의 4분의 1은 구령에 대하여 가르친다. 이 교회는 자체적으로 교과과정을 만들어 쓰고 있고, 남침례회 교회학교 위원회는 이것을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출판하고자 고려하고 있다.

“우리는 교인들에게 구령하는 일을 훈련하기 위해 5일 밤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라고 린드세이는 설명했다. “이 계획이 50년대에는 유효했지만, 80년대와 90년대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에 침례교 훈련총회를 통해서 구령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나 전 교인의 20 퍼센트 정도만이 참석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구령자가 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학교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곳에 교인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기 때문이지요. 격주로 교회에 나오는 교인일지라도 어느 정도 구령에 관한 훈련을 받고 있는 셈이지요.”라고 린드세이는 싱긋 웃으며 이야기한다.

제일 침례교회는 시·지방 정부도 늘 미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라고 광고하곤 하는 잭슨빌 시의 전 지역을 전도하려고 노력한다. 전도를 목적

으로 하는 방문 활동은 청소년들이 매년 전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과 함께 시작한다. 이 조사를 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들라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찾게 된다.

청소년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잭슨빌 도심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계십니까?” 그들은 교회에 나간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으면, 감사를 표하고 다른 집으로 향한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답하면 그 청소년들은 그들의 자녀 이름과 학년, 또 답변자의 이름과 주소를 얻으려고 한다. 이 정보는 컴퓨터로 입력되고, 이어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알려진다. 이 명단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교회학교의 임무이다.

각 교회학교 받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전도 지도자들이 있다. 린드세이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모임은 매주 전도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명단은 매주 수요일 저녁 심방 시간에 전도 지도자들에게 할당된다. 각 전도 지도자들은 항상 6 명을 전도 대상자로 맡는다. 전도 대상자 중 한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또 다른 전도 대상자가 그 지도자에게 맡겨진다. 각 전도 지도자는 항상 6 명의 전도 대상자를 맡게 된다.

전도 지도자들은 혼자 심방하지 않고 다른 한 명의 전도 지도자와 함께 나간다. 그러므로 그 팀은 한 사람당 6 명씩, 즉 12 명의 대상자들을 돌보게 된다. 교회는 전도 지도자들이 그들의 12 명의 대상자들에게 3 주마다 심방을 하거나 전화나 서신을 통해 연락하기를 기대한다.

린드세이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각 대상자들이 교회로부터 여섯 번의 방문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에게 어느 집이든 처음 방문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들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그들을 교회학교에 초청하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이 책에 이미 언급한, “옆문 전도”의 원리를 사용한다. 이 원리는 3단계로 “청중을 얻는 것”을 포함한다.

린드세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첫째로, 대상자를 그리스도인에게로 인도하라.
- 둘째로, 이들을 교회에 인도하라.
- 셋째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

린드세이는, 어떤 사람들은 도심지보다는 가까운 교회로 나가기 원한다. 그러나 이 교회의 성장은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였음을 의미한다. 한 사람이 계속되는 여섯 번의 방문을 받고도 전도자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면 그제야 그 이름이 명단에서 지워지며, 새로운 대상자가 그 전도지도자에게 주어진다.

장년 교회학교

형제들의 깊은 만남

제일 침례교회의 또 다른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형제회”가 있다. 1977년, 린드세이는 296 명의 형제들만으로 구성된 형제회를 시작했다. 이 모임은 지금도 연령을 초월하여 1,200 명의 형제들이 참석하고 있다.

린드세이가 형제회 회장이다. 그는 매 주일 아침, 개회 모임을 인도하며, 설교하며, 동기를 부여한다. 그는 이 기관이 성공적인 성장을 하는데 원동력이 된다. 그는 “형제들이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열쇠입니다.”라고 말한다.

바인은 형제회 응원단장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회 사역은 우리 교회에서 추진하는 가장 고무적인 사역들 중 하나입니다.”

매 주일 형제들은 1,200 석의 식당에 모인다. 그들은 커피와 도너츠를 들며, 소속된 반의 탁자 주위로 모인다. 이 모임은 15 분간이며, 모든 참석자들은 찬송을 하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인도한다.

이어서 그들은 교실로 향한다. 가장 큰 반은 70 명이며, 보통 35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한 반당 10 명의 장년들로 구성하는, 전형적인

남침례교회의 방법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이 교회는 형제회가 28 개나 있다.

린드세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록 음악은 기독교와 배치되며 거룩하고 영적인 모든 것과 상반됩니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린드세이 목사는 “형제를 성경공부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당신은 좋은 교사들, 즉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대부분 형제회 교사들은 남침례교회의 일반 목회자들만큼이나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린드세이는, 그 교사들은 성경공부를 위해 6 시간 내지 7 시간 정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애에서 그것이 가장 중대한 과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훌륭한 교사들이 훌륭한 형제들을 배출하기 원합니다.”

자매들의 깊은 만남

이 교회 여성교회는 남침례회의 전통적인 전략을 따르고 있다. 4 명 내지 10 명이 모이는 소그룹반들은 성경 토론과 교제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린드세이는 이렇게 말한다. “자매들은 이러한 접근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형제들은 토론을 하거나 질문을 받는 모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매주 전도심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수요일마다 모여 여러 가지 정보와 해야 할 일들을 나눈다.

장년들을 성별로 나누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도 한데 그것은 주로 “형제들이 아니라 자매들이 합니다”라고 린드세이는 말한다. 어떤 대상자들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형제들이 와보고 난 후에는 이러한 방식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고 그는 말한다.

바인은 이 같은 반대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한다. “이런 방법은 형제들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지요.”

독신자들을 위한 사역

이 교회는 매주 평균 출석이 850 명 이상 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독신자 사역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다. 린드세이는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장년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 선구자적인 교회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독신 부모들을 위한 반에는 100 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소그룹으로 분반을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교회는 독신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성경의 교훈들을 주제로 12 개월 짜리 교과과정을 개발해 놓았다.

장년을 위한 다른 사역들

대학부는 200 명 이상 출석하고 있는데, 주로 18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인들을 위한 부서는 25세에서 35세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석 인원은 300 명을 넘고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부도 구성되어 있는데, 80 내지 100 명 가량 출석하고 있다. 교회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에 관한 12 개월의 교과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재혼을 한 사람들은 신혼 II 반에 참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독특한 문제들에 대한 필요를 도움받는다. 이 반에는 약 100 명 가량이 참석하고 있다.

음악: 침례교적이며 복음전도적

이 교회의 음악은 전통적인 침례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린드세이 목사는 다시금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내가 목회자로 부임했을 때

우리는 음악을 바꾸었지요. 바하와 베토벤의 성가들을 제했고, 찬송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세 번의 아멘'도 제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전도적인 음악을 도입하여 찬송들과 복음성가들을 불렀습니다.”

바인 목사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나는 음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와 그 말씀을 받는 회중들을 준비시킨다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음악이 복음전도적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연주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록을 포함한 현대 음악은 피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령을 뜨겁게 하는 복음적인 음악을 원합니다.”

이 교회는 부머들이 몰려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 있는 록 밴드가 없다. 린드세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교회는 전기 기타나 드럼으로 하는 현대 음악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거리낌없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록 음악은 기독교에 배치되며 거룩하고 영적인 모든 것과 상반됩니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록 음악에서 사용하는 드럼들은 없지만, 오케스트라의 케틀드럼은 있다. 4 개의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모두 바이올린과 콘트라베이스와 관악기와 케틀드럼을 포함하는 50 개의 악기와 그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복음적인 오케스트라(Gospel Orchestra)는 오전 8시에 연주를 하며, 강단 위에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Chancel Orchestra)는 오전 11시에 한다.

이 교회는 또한 중·고등부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어 만약 장년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참석하지 못하면, 그들이 빈 자리를 메운다.

역사와 지평선

호머 린드세이 1세는 1940년에 제일 침례교회 목회자가 되었으며, 현재 이 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그의 아들 호머 린드세이 2세는 1967년 1월 1일에 협동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4년 후 그의 아버지는 은퇴를 하였는데, 당시 그의 나이 칠십이었다. 린드세이 1세는 1981년에 별세했다.



제일 침례교회, 플로리다주 잭슨빌시

호머 린드세이 2세는 아버지가 다져 놓은 기초를 토대로 하여 사역을 계속했다. 그의 아버지는 훌륭한 설교로 교회를 이끌었던 반면 그는 복음 전도에 대한 전적인 헌신으로 교회를 이끌었다. 그의 영적 은사는 교회 행정을 잘하는 것이었다.

70년대 초에, 교회들은 효과적인 “버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잭슨빌에 오기 전에도 린드세이 2세는 마이애미에 있는 그의 교회에서 “버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했지요.”

그는 버스에 어린이들을 가득 채울 수 있었고 그들을 전도함으로 그들의 부모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이애미에서 배웠다. “버스 사역은 회중들이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출석자가 매주 약 800 명에 이른 후에는 교회 출석률이 10 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다.

버스 사역에 대한 열정은 70년대가 저물면서 시들어 갔다. 이 교회는 1978년에 버스 사역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출석률이 대폭 떨어졌다. 이 때는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있던 시기였다. 그들은 새로운 공간 마련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 그 교회는 항상 버스를 이용하여 어린이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을 오전 11시 교회학교로 데려왔다. 그러나, 새 예배당에 대한 심적인 동요와 함께 버스 사역을 할 사역자들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은 버스 사역을 중단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이었다.

그들은 성전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성장했고, 1978년에는 새 성전을 짓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옛 성전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어 린드세이는 형제회가 그 곳에서 모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새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도하고 있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현재 회중은 7,000 명에 이른다. 그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한계를 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건축을 해야만 합니다.”

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예배의 횟수를 늘려야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오전 예배를 2부로 나누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그들은 예배 횟수를 늘리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린드세이 목사는 “우리는 예배를 세 번 드리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들은 1991년에 세번째 성전을 지을 것이다. 9,200 석을 보유하게 될 새 강당은 1,540만 불(약 123억 원) 정도의 경비가 들 것이다.

9,200 석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교회는 약 700만 불(약 56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현찰로 지불을 하고 결코 융자는 받지 않을 것이기에 완공하는 데에는 대략 3 년이 걸릴 것이며, 돈이 들어오는 대로 건축은 진행될 것이다. 이 교회는 건축현금을 걷기 위한 특별한 행사나 그 현금을 걷을 특별 건축헌금 위원회도 없다.

바인과 린드세이는 둘 다 낙관주의자이다. 그들은 계획을 짤 때 서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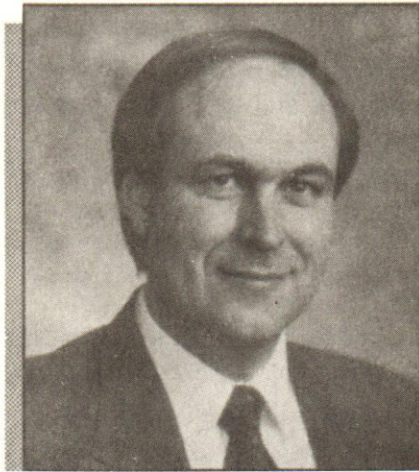
지원한다. “나는 교회 장래에 대해 지극히 희망적입니다.” 바인은 말한다. “교회를 계속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 우리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7

전통은 고수하되 새것을 마다하지 말라

중앙 커뮤니티 교회
캔사스주 위치타시



목회자, 레이 커튼 목사

캔 사스 주의 위치타 시에 소재한 중앙 커뮤니티 교회(Central Community Church)는, 혁신적이며 전통적이라는 모순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고 매우 성공적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유형화한 사람이 바로 중앙 교회의 목사인 레이 커튼이다. 그의 독창성과 창의성은, 현대의 부머 스타일 교회들을 전형화하는 최신의 지도력 전략 유형을 그의 교회에 제공하는, 혁신적인 목회자로서 특징지었다.

많은 영역에서 매우 전통적이지만, 그의 교회는 날카로운 안목의 예배를, 그리고 기능적인 방법의 사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교육적인 프로그램과 실로 독특한 소그룹이나 셀그룹 사역으로 묶는 일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

90년대의 여러 가지 서술이 미래 지향적인 회중으로 만든 중앙 커뮤니티 교회의 변화를 말한다.

- 첫째로, 이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판매전략을 사용한다.
- 둘째로, 이 교회의 지도력은 조사와 혁신에 방향을 두고 있다.
- 셋째로, 이 교회는 지역사회의 현상에 기초하여 그 지역사회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서신,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다른 대중매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인도할 만한” 그룹들에 표적을 맞춘다.
- 넷째로, 이 교회는 관계를 기초로 한 복음전도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다섯째로, 이 교회는 회원들이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사역에 사용되도록 돕는 일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돕는 일에 헌신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교회는 베이비 부머들의 특징인 특출함에 전념하였다.

눈에 띄는 두 개의 논쟁이 최근 중앙 커뮤니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1) “인디애나 주 앤더슨 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중단한 것과 (2) 도심지에서 서쪽으로 4 마일(약 6.5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다. 이러한 외적인 변화들은 자세히 알아볼 가치가 있는 내적인 변화들을 반영하고 있다.

예배 형태의 변화

중앙 커뮤니티 교회는 “강대상 교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담임 목회자인 레이 커튼의 카리스마적인 인격이 아닌 이 교회 사람들이 제공한 예배의 형태 위에서 세워졌다. 어떤 교인은 “우리는 찬송을 단지 부르던 것에서 예배를 경험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내용이 있는 음악

이 교회에서는 예배의 표현으로서 찬양 합창을 하지만, 전통적인 고전 음악이나 전통적인 찬송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배와 예술 담당 목회자인 조지 스크램스테드는, 예배의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기 위해 현대 음악 밴드가 아닌 20 개 이상의 악기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 사람들은 박수 칠 자유가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적인 교회에서나 있을 것 같은 손을 쳐드는 행동도 한다.

회중은 초교파용 찬송가로 찬송을 한다. 주일 저녁예배 때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 찬송을 부른다. 주일 오전에는 다소 자유스러운 찬송가나

복음송만을 부르지 않고 전통적인 찬송, 성가대에서 부르는 경건한 성가 등도 더불어 사용하게 된다. 아마도 현금 때 하는 성가로는 바하나 헨델의 찬양 합창을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큰 밴드” 소리와 더불어 복음 찬송을 혼합하게 될지도 모른다.

조지 스크램스테드에 의하면, 예배의 기초는 신뢰이다. 그는 예배중 어떤 변화라도 허용하려면, 사람들이 서로를 그리고 예배 인도자를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배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젊은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음악과 전통적인 사람들을 위한 고전풍의 음악과 은사주의적인 사람들을 위한 찬양을 한다. 그들은 예배의 어떤 형태에도 편중되어 있지 않다.

스크램스테드는 카리스마적인 사람들은 예배에 있어서 “주제와 내용”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에 실증을 느끼고 있으며, 전통적인 참뜻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은사주의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신학적인 유산을 표현하는 위대한 찬송을 부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단지 단순한 간증 찬양 이상의 무언가 의미심장한 것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스크램스테드는 예배를 통해 완벽한 예술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 즉 미술과 조각 및 춤과 연극과 양질의 여러 대중매체를 이용해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는 교회가 이러한 형태들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유행을 쫓는 아이디어들을 반영시키는 것 이상으로 나를 예배 속으로 끌어 들였습니다.”라고 말한다.

담임 목회자인 레이 커튼은 1974년에는 예배가 전통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느낌으로 찬송을 불렀다. 그러나 항상 일치된 예배 주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찬송을 부르지 않고 음률에만 따라 종종 불렀다고 말한다. “우리는 왜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 시간을 내어서 물어본 적이 한번도 없다.”

예배를 이끄는 성가대

많은 은사 중심적인 교회가 성가대를 폐지했다.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은 “성가대석”을 가리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갇혀서 예배드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장소’라고 신랄하게 묘사한다. 그러나, 중앙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온갖 음악이 성가대로부터 흘러나오며 예배를 이끄는 지도자들처럼 보인다.

독창에 관한 한, 스크램스테드는 “독창자들이 전체 팀에 속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독창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독창은 성가대의 한 대원이 해야만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누군가가 음악 사역팀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치 않고 스타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면, 스크램스테드는 예배의 영 속으로 혼돈이 들어온다고 말한다. 즉 그리스도가 아닌 연주자가 중심이 된다는 말이다.

중앙 커뮤니티 교회는 필요 중심적이며, 사람 중심적이고 또한 예배 중심적이다. 이 교회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거룩하심에 대해 경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스크램스테드가 확고하게 견지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부를 독창곡을 내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라고 말했던, 성가대원이 아닌 어떤 사람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 때 그는 “그것 참 재미있는 일이군요. 하나님은 당신이 독창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 마음에 주시지 않으셨으니까요.”라고 대답했다.

중앙 커뮤니티 교회의 예배에서는 독창자, 성가대, 오케스트라, 심지어는 목회자도 아닌-예배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교회는 필요 중심적이며, 사람 중심적이고 또한 예배 중심적이다. 이 교회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거룩하심에 대해 경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배의 언어와 전례 그리고 뛰어남

“예배 접지기”라는 단어는 교회가 변화를 강조함을 반영한다. 그들은 “강단”을 “성단소”라고 하고, 성가대는 “성단소 성가대”라고 부른다. 그들은 “주보”도 “예배 접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레이 커튼은 “설교”가 아닌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교회 건물”은 “목회 센터”라고 부른다.

이 교회는 전례적인 행사 계획을 따른다.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독립기념주일 등과 같은 때에는 어느 정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예배의 초점은 항상 그리스도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라고 스크램스테드는 말한다. 중앙 커뮤니티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한 예배를 확증하기 원한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뛰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세상은 예술이나 연주회나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항상 최고의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지요. 이제는 교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한 음악과 발표는 외워서 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지원은 최선의 질과 장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뛰어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생존하려면, 이러한 우수성이 예배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라고 스크램스테드는 말한다.

설교 형태의 변화

레이 커튼 목사는 “수년간 사역을 하면서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설교 방식을 바꾸어 왔습니다.”라고 증언한다. 그는 주일 아침 메시지의 초점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노력한다. “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관계적인 형태를 개발해 왔습니다.” 만약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참석한다면,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원한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들과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원한다. 그는 관계와 돌봄 그리고 우정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오도록 동기를 준다고 믿고 있다.

“나는 설교하기를 중단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커

튼은 말한다. 이 목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강대상에서 나와 사람들 앞에 선다. 그들에게 지시하는 대신에, 그는 대화식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설교에 있어서 변화를 분석할 때, 커튼은 “아마 내가 그렇게 많이 는 변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항상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니깐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설교자들의 결과를 볼 때에, 나는 더욱 관련성 있고 긍정적이며 실제적이 되어야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교인들은 커튼의 설교를 들을 때면, 그의 겸손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교회 명칭을 바꿈

바꾸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교회의 명칭이다. 특별히 전통적인 인디애나 주 앤더슨 시 하나님의 교회일 때에는 더욱 그렇다. 교인들 중 한 사람이 “커튼 목사님이 교회 명칭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한다. 그가 명칭을 바꾸는 문제에 관해서 처음 언급했을 때, 비공식 투표가 있었고 지지율이 부족함이 드러났다. 하루는 한 위원회의 일원이 그에게 말했다. “레이, 교인들이 당신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그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입니다.”

커튼은 2 년을 기다렸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교회의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 교회 사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을 쏟았다. 많은 사람들이 교파적인 명칭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 교회가 더 이상 자신을 전통적인 하나님의 교회로 보지 않게 되고, 혁신적인 방법들로 전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보게 되자 그가 메시지를 통해 강조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교회 명칭을 바꾸기 원했다.

지금도 법적인 명칭은 아직도 중앙 커뮤니티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교파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는 광고와 선전에서 사라졌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와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그 새로운 이름이 지역

사회에 대해 열린 자세를 의미하므로, 이 교회는 진짜 커뮤니티 교회가 된 셈이다. 마침내 교회의 명칭을 바꾸는 투표로 향방이 결정되었을 때, 두 가족만이 교회를 떠났다.

장소를 바꿈

이 교회 장소를 바꾸기까지는 3년이 넘게 걸렸다. 이 일은 1979년부터 1982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교회는 1983년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투표로 결정을 했으나, 건축을 하기까지는 4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그 기간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일에 관해서 말하기를 꺼려했다.

교회가 이전한다면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려는, 실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로 교회를 위치타의 서쪽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지도부는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찾아갔으나, 많은 사람들이 불참했다.

교인들이 이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커튼은 마침내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사역에서 무엇을 이루어 놓을 수만 있다면, 이전하든 않든 상관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교회 주위에 있는 부지를 구입하기로 결정되었다. 도심지에 인접한 교회 건물과 예전의 집들은 150만 불(약 12억 원)을 호가했다. 그러나 주차장을 위해서 일부 시설을 헐어야 했다.

그래서 커튼은 위원회에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큰 부지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같은 가격으로 도심에 위치한 작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것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전자를 택하기로 결정했다.

교회의 이전에 관한 투표를 실시했을 때, 85 퍼센트가 찬성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목회 센터 건축을 표결했을 때에는, 95 퍼센트나 되는 다수가 찬성을 했다. 그들이 새로운 시설로 이전했을 때, 교회는 25 가구 정도의 교인을 잃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도시의 동쪽 지역에 살고 있어 위치타를 가로질러 오는 것이 너무 멀다고 느꼈던 사람들이다. 실상 그 교

회는 사람들이 2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운전을 해서 오는 지역적인 교회가 되었으며, 교인수가 무척 증가되었다.

변화를 향한 자세

중앙 커뮤니티 교회의 한 교인이 “커튼 목사님은 자신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에게 말했다. “그는 만사를 서두르지 않고 진행합니다. 그는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여유를 준 후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문구는 이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하도록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교회가 혁신과 변화에 의해서 특징지워지는가에 대한 결론은 한 위원의 다음과 같은 말이 설명해 준다. “이 교회는 커튼 목사님의 방법들 보다는 그의 자세 때문에 앞으로 더 변화할 것입니다.”

한 교인은 이렇게 말한다. “중앙 커뮤니티 교회에 변화가 오는 이유는 자유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내가 변화를 추구하도록 자유를 주고 있지요.”

또 다른 교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필요한 일을 할 뿐이지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합니다. 나는 그것을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이 커튼 목사는 이 책을 저술하기 위해서 교회의 변화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이 교회 목회자가 된 후 15년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좀더 생각을 해 본 후 그는 “나는 미래에 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한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커튼은 “만약 작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치도록 해야지요.”라고 말했다.

커튼은 변화라고 모두 다 성경적이거나 효과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는 그의 지도부에게 왜, 그리고 무엇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물어

보라고 격려한다.

커튼 목사는 또한 그의 지도부에게 휴가 때 다른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찰하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커튼 목사 자신도 수년간 수정 교회의 로버트 솔러나 진행하는 교회의 책 헤이포드 및 많은 다른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방법들과 접근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

조직과 구조

레이 커튼이 부임해 왔을 때 이 교회는 위원회 중심의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위원은 “현재 우리는 목회자가 이끄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그들이 위원회를 없애버렸다거나 목회자가 자기 뜻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커튼은 위원회를 중시하고 있다. 사실상, 이 교회의 강점 중 하나는 커튼이 위원회와 함께 일을 잘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위원들 중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경영자들이나 교회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신 임명된다. 기독교 교육과 청소년 및 전도와 선교에 관한 위원회들은 따로 운영된다. 한 교역자가 이런 분야에 책임을 지고 있다. 그 교역자는 교역자 모임에서 다른 교역자들과 함께 앉게 된다. 비록 레이 커튼도 참석하지 않지만, 마크 디펜바우가 이 모임의 사회자가 된다.

모든 고참 교역자들은 교회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는 12 명의 평신도와 7 명의 교역자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정책과 예산을 회중에게 보이기 전에 검토하고 책정하는 일을 한다. 교인들은 예산과 담임 목회자에 관해 표결을 한다. 담임 목회자가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에는, 모든 직원들은 담임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러한 질문이 던져졌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사임하거나 떠날 때, 더욱 새롭고 고무적인 선택들이 생겨났다. 직원이 더 불어나자 그들은 여러 분야의 사역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 목회자

가 매년 연말에 교회 상태에 관한 메시지를 줄 때 새로운 방향의 윤곽이 잡혔다. 사람들은 고무적이 되었고, 목회자가 새해의 목표들을 나눌 때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 있었다.

그러므로 중앙 커뮤니티 교회의 변화는 지시가 아닌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 조직에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커튼은 결코 “교회의 구조를 바꿉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는 비전을 확장시킴으로 조직을 바꾸라고 끊임없이 언급한다. 그는 교회의 기본적인 성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단지 교회의 비전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사역을 확장시키는 것에 관해서만 언급한다.

TLC 소그룹들

커튼 목사의 비전 중 하나는 1,000 개의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TLC) 그룹과 더불어, 10,000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책의 제4장에 나와 있는 오리곤 주의 포틀랜드 시에 소재한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데일 갤로우웨이의 본을 좇아서, TLC 그룹들이라 불리는 셀 그룹 사역을 조직했다. 레이 커튼은 만약 그가 자신의 교회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소그룹들의 관계를 바로 증진시키며, 사람들을 교회에 연결시켜서 사역에 참석하도록 해야 함을 깨달았다.

중앙 커뮤니티 교회의 성공은 소그룹들이 친구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목적을 주며 그들이 서로 섬기도록 하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 커튼은 소그룹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관해서 설명하며 그것이 시작되도록 추진하였다. 그는 직접 50 명을 뽑아서 3개월간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집으로 오게 해서 소그룹 인도법에 관해 훈련을 했다. 그는 소그룹들이 성공하려면, 그 지도자들이 확신 속에서 일을 수행해야 하며, 이것은 또한 그들 자신이 소그룹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50 명의 지도자들은 목회자와 사모와 다른 두 교역자가 인도하는 4 개의 그룹으로 조직되었다. 3 개월 후에, 레이는 “이제 여러분은 이 일에 종사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TLC 소그룹을 주최하거나 그것을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렇다고 동의한 사람들에게는 “평신도 목회자”라는 호칭을 붙여주었고, 대예배 때에 위임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그들에게 위임을 하는 안수가 있었다.

현재, TLC 그룹들은 평일 낮이나 밤 시간을 이용해 모여서는 셀그룹 사역에 구조와 지속성을 주도록 모두가 같은 교과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되는 후원 그룹들과 특별 그룹들은 그들 자신의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다. TLC 그룹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초대자와 지도자 및 보조 지도자 이 세 사람이 있어야 한다.

회원들은 그들이 원할 때나 다른 그룹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할 때 자신이 속해 있던 그 그룹을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 어떤 그룹은 30 명을 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20 명을 넘지 않는다. 그들은 전화 통신망이 있고, 그룹원들을 양육하며, 목회적인 보살핌을 주고, 또한 개인들의 필요들을 위한 광범위한 기도 사역을 하고 있다.

TLC 그룹들은 20분 정도 찬양을 하며, 찬송과 간증 및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35분 정도 말씀을 공부하며 실제적인 적용을 한다. 마지막으로, 20분 정도는 기도를 한다. 이 때 그들은 다시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신유와 회복 그리고 다른 축복들을 위해서 안수하는 시간을 갖는다.

방문자가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면 일주일 내에 한 TLC 그룹으로 초대 받는다. 그들은 참석하자마자 곧 친구를 사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TLC 그룹에 참석하는 사람은 이 그룹에 참석하지 않고 5년 동안 교회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교인을 알게 된다고 보고했다.

오래된 평신도 사역자들은 소그룹 구역들을 통합하고 그가 맡은 교역자들을 책임진다. 한 평신도 사역자가 이러한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약

2 년이 걸린다. 처음에 전담 교역자들은 그룹들을 감독하는 구역 감독자였다. 지금은 약 800 명에서 900 명이 참여하는 약 65 개 내지 70 개의 그룹들이 있다.

소그룹들은 중앙 커뮤니티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접착제와 같다고 커튼은 말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교회들은 소그룹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친구들이라고 부릅니다.”라고 말했다. 중앙 커뮤니티 교회의 성공은 소그룹들이 친구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목적을 주며 그들이 서로 섬기도록 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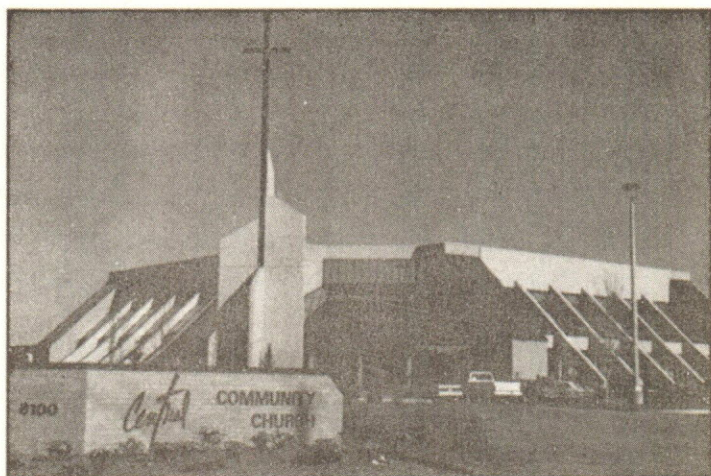
다른 프로그램들

중앙 커뮤니티 교회는 다른 교회학교가 버스를 통해서 성장했지만, 한 번도 버스 프로그램을 가져본 적이 없다. 초창기에는 교회학교가 교회보다 더 컸다. 매우 박력있고 혁신적인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예배자의 약 75 퍼센트가 교회학교에 참석을 한다. 크고 잘 꾸며진 탁아시설은 많은 젊은 가족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50 개의 교회학교반들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으며, 독신자들, 재혼자들, 신혼 부부들, 대학생들, 직장인들, 정신적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반도 있다.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주일 아침 성경공부 시간 이외에도 세미나와 훈련 프로그램에 이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심지어 주정부에서 훌륭한 모델로서 인정을 받을 정도다.

교회성장센터는 주중에 모이는데, 신학, 교리, 교회사, 성경개론, 연구 등과 더불어 자원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훈련을 한다.

가정생활상담센터는 창조적인 세미나와 가정생활 활동들뿐만 아니라 상담과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공한다. “복음전도 세미나”는 실제적이며 성경 원리에 근거해서 매일의 생활에 도움을 주며, 위협감이 전혀 없는 분위기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한다. 육아법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법과 이혼에서의 회복 및 슬픔에 대처하는 법 등은 여



중앙 커뮤니티 교회, 캔사스주 위치타시

러 시간대를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가정생활세미나는 교회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교회학교에서 했던 '당신의 가족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Your Family Can Be Fun)' 라는 세미나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였다. 800 명 이상이 1989년 가을에 있었던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그 중의 약 반수는 교회에 처음 참석을 한 사람들이었다.

중앙 교회는 "장년교회학교" 그룹을 하나 가지고 있는 대신, 풍성한 가정생활, 평신도 전도 그리고 자아상에 대한 세미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만약 우리가 3-4 주간 한 새로운 부부를 세미나에 참석시킬 수 있다면 그들의 아이들도 교회학교에 참석시킬 수 있지요. 그러면 부모들이 교회로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했다.

어린이들은 이 교회에 매우 중요하다. 이 교회는 미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가장 크고 좋은 교육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은 이 교회의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중요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주도록 고안되었다.

지평선 저 너머

레이 커튼은 대중매체나 전도를 위한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소그룹을 교회를 위한 미래의 물결로 본다. 그는 중앙 커뮤니티 교회의 미래의 기반은 이 교회의 TLC 그룹에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커튼은 교회의 미래는 베이비 부머들에게 달렸다고 본다. 그는 존 맥스웰과 존 워버 및 다른 부머 목회자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전략이 90년대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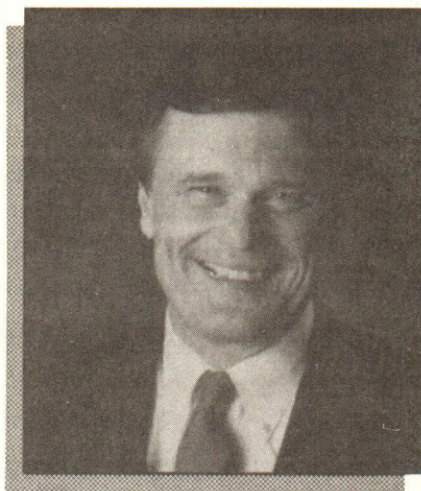
“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발전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입니다.” 그는 중앙 커뮤니티 교회의 미래는 황금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한다. 그는 과거보다 미래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또한 5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교회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커튼은 4,000 내지 5,000 개의 소그룹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8

그리스도인의 은혜 넘치는 교제는...

제이 침례교회
텍사스주 휴스턴시



목회자, H 에드윈 영 박사

제이 침례교회는 자신을 가리켜 “은혜의 교제”라고 일컫는다.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에 젖는다. 미주리 주 남부 세인트루이스에서 휴스턴으로 이사를 온 스탠 데어는 제이 침례교회에 오던 첫날 이 곳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안내위원으로 등록을 했고 상담에 참여했고 기도 모임에 동참을 했다.

그가 장거리 전화로 아내에게 이 교회의 흥분됨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집을 팔고 휴스턴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고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다. 6 주 후 그녀는 휴스턴에 도착했고, 그들은 함께 제이 침례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그녀도 남편이 느낀 열정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후에 부목사인 짐 드로아 박사의 전담 비서가 되었다.

비전을 통한 성장: 믿음에 의한 확장

제이 침례교회는 1927년 3월 6일 헌신된 적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휴스턴의 도심에 있는 루이지애나 거리에 위치한 한 공립학교에서 개척되었다. 그 다음해 그들은 한 감리교회를 매입해서 기독교 교육을 위한 시설물을 세웠다.

약 30 년 후, 현재 교회의 위치인, 메모리얼의 우드가에 있는 급성장하는 지역 25 에이커(약 3만 평)를 매입했다. 4 년 후에는 두 개의 교육 시설물과 하나의 체육관을 건립했고, 교인 1,300 명이 성전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 1,450 명이 앉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새 성전은 1968년에 건립되었다.

1978년에 H.에드윈 영 박사가 목회자로 청빙되었다. 그는 남 캐롤라이나 주 콜럼비아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의 대부분을 데리고 왔으며,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9,0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난 9 년 동안 제이 침례교회에 등록했으며, 교회학교 출석수도 같은 해 4,000 명 이상 성장을 했다.

1983년, 웅대한 희망을 품고 교회는 새로운 예배당과 교육관과 가정생활관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 공사는 무려 3,400만 불(약 272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였다. 예배당은 6,200 명이 앉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8,000 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성가대석만 해도 450 명이 앉을 수 있었다.

이 교회에는 또한 회의실, 녹음 시설이 구비된 성가대 연습실, 오케스트라 예비 공연장, 음악 도서관, 11 개의 교실, 30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휴게실, 주방 시설을 갖춘 다용도실, 기획을 위한 극장, 시청각실, 간이 음식점 및 커다란 정원과 가정생활관의 각종 오락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이 교회는 최근에 건축된 가장 비싼 교회 건물 중 하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기회가 생겼다. 교회는 만약 이 땅을 지금 사놓지 않으면,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다시 이 땅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땅은 1,700만 불(약 136억 원)을 호가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설을 세우기 위한 비용 3,400만 불(약 272억 원)을 합치면 총 5,100만 불(약 408억 원)이 된다. 이 때는 휴스턴의 석유 파동으로 인하여 경제가 매우 어렵던 시기였다. 기름 값은 떨어졌고 석유로 인한 백만장자들은 거의 파산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교회는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 땅을 매입하기 위해 과외 자금을 쓰기로 했다. 영은 이같이 말했다. “우리가 산 것은 흠이었지만, 이 흠은 미래의 확장을 위한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지요.”

그들의 확장 계획에 따라 교회는 1989년에 2,700만 불(약 216억 원)을 융자받았는데, 이 액수라면 현기증이 날 정도의 빚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들은 700만 불(약 56억 원)을 갚으므로 빚을 2천만 불(약 160억 원)로 줄였다. 이 액수가 아직도 엄청난 빚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1,200만 불(약 96억 원)에 이르는 연간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부채를 갚을 자금 700만 불(약 56억 원)을 합쳐서 한 해에 무려 1,900만 불(약 152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결의해 놓았다. 이 예산은 아마도 미국의 어떤 교회 예산보다 가장 큰 액수가 될 것이다.

1986년 6월에 봉헌된 새 교회의 시설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에 속한다. 강단 좌우에 위치한 6층 높이의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이다. 10,473개의 파이프들을 보유하고 있는 로저스 오르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로서, 예술적인 경지의 부품들과 함께 완벽한 정확도와 즉각적인 재연주를 가능케 하는 레이저 디스크 컴퓨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새 성전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제이 침례교회가 형식적이며 전례적인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교회는 매주일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구원의 초대에 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것이다.

6,200 석이 있는 성전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배를 두 번으로 나누어 드리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1년도 채 못되어 그 교회는 평균적으로 2,842 명의 사람들이 더 참석하게 됨으로 출석률이 꺾충 뛰어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통로에 의자를 펴서 청중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3,400만 불(약 272억 원)짜리의 건물이 꼭 채워지자, 두 차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자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었고 14 개월 만에 교회는 오전 9시 40분과 11시에 주일 오전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혁신적인 교회학교

이 교회가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고 출석에 있어서 성장율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오전 8시 30분과 9시 40분 및 11시에 세 차례의 교회학교 시간이 계획되었다. 8시 30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다. 그러나 제이

침례교회에서는 모임의 횟수를 늘리고 출석수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 “혁신”이 또한 이 교회학교의 특징이다.

혁신은 종종 변화를 의미한다. 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틀에 박혀있어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회가 효과 없을 때에도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활기있게 하기 위해서, 영은 변화를 위한 변화가 어떤 경우에는 필수적이라고 제시한다.

동시에 변화가 목적과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영은 “교회학교를 통해서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 어느 것도 실행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면, 광범위한 기도 사역이 교회학교를 통해서 촉진되고 있다. 복음전도 프로그램들과 교제들 및 심지어는 50 개가 넘는 소프트 볼 팀이 교회학교를 통해서 조직되고 이행되었다.

대규모의 교회학교

제이 침례교회의 프로그램은 아더 플레이크의 고전적인 책 ‘표준적인 교회학교를 세우는 길 (Building a Standard Sunday School, 1922년)’에서 언급되는 발전된, 그리고 교회학교 성장의 법칙들 위에 세워진, 조화된 교회학교 프로그램의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교회학교는 전형적인 남침례교회와는 같지 않다. 남침례교회는 한 반에 약 10 명 정도가 참석하는 소규모이지만, 제이 침례교회는 20 명에서 200 명이 참석하고 있다.

뛰어난 장년 프로그램

남침례교회 대부분은 장년반까지도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제이 침례교회의 교사들은 주의 깊은 배정뿐 아니라 학습을 구분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이것이 이 교회의 성공의 열쇠이다. 한 반에 한 교사를 배치하는 대신, 제이 침례교회는 두 사람-주로 남자와 여자 한 명씩-을 배치하여 격주로 가르치게 한다.

각 반은 또한 전도 지도자, 친교 책임자, 특별 기획 조정자, 목회 조직 지도자, 제자훈련 조정자, 목양 조정자, 목양 지도자들, 기도 조정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직책이 있다. 제이 침례교회가 경이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이유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과 평신도들을 교회 사역의 모든 분야에 걸쳐 참여토록 하는 데 있다.

18세에서 26세에 이르는 젊은 부부를 위한 6 개의 반, 27세에서 31세에 이르는 결혼한 청장년들을 위한 8 개의 반, 32세에서 36세에 이르는 결혼한 장년들을 위한 6 개의 반, 37세에서 48세에 이르는 결혼한 장년들을 위한 9 개의 반, 49세 이상의 결혼한 장년들을 위한 9 개의 반이 있다.

이 교회학교는 이러한 연령별 장년반들 외에도 풍성한 결혼생활, 성경 인물들, 성경의 교리 등을 가르치는 반뿐 아니라 새 교인, 독신 부모,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교인들을 위한 특별한 반들도 있다.

매 주일 평균적으로 3,350 명의 어른들이 참석하며 4,300 명이 넘는 결혼한 장년들이 등록을 해 놓고 있다. 특별한 반들은 매주 700 명 가량이 참석하고 있는데, 963 명의 교인들이 등록하고 있다.

독신자들을 위한 광범위한 사역

제이 침례교회의 독신자들을 위한 사역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3,600 명이 넘게 등록을 했고 매주 1,436 명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도시 인구의 53 퍼센트가 독신자들인 것을 감안할 때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학생 연령층에서부터 26세에 이르는 10 개의 독신자 반이 있으며, 27세에서 31세의 독신자들을 위한 6 개의 반과 32세에서 36세에 이르는 독신자들을 위한 6 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6 개의 반이 36세 이상의 독신자들을 위해서 있다. 제이 침례교회는 몇몇 대형 남침례교회들, 즉 제일 침례교회, 텔로우드 침례교회, 포리스트 침례교회 및 휴스턴에 있는 큰 교회들, 잭슨빌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와 함께 독신자들을 위한 광범위한 사역으로 손꼽힌다.

가정을 강조함

독신자들을 위해 광범위한 사역을 하면서도 에드윈 영 목사는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할 당시부터 가정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영은 교회를 가족들이 친교와 풍성한 배움 및 봉사와 섬을 위해서 휴식할 수 있는 “섬”이라고 생각한다. 3,400만 불(약 272억 원)이 투자되는 교회의 각종 시설들로는 3 개의 체육관을 포함한 가정생활관, 8 레인의 볼링장, 라켓 구기 코트, 당구장, 오락실, 체중 조절실, 에어로빅실, 극장, 공예실 등이 있다. 간이음식점이나 식당은 교제를 할 수 있고 육신의 원기를 공급해 준다.

그러므로 제이 침례교회가 교인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섬기기를 추구하는, 가정을 위한 고무적인 교회라는 사실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모집함”

수년 전에 직원 수양회에서, 영은 이와 같이 질문을 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평신도 참여”라고 대답했다.

사실이 그러했다. 교회가 직원들을 거의 혹은 전혀 늘리지 않은 채 새 건물로 이전했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절실했다. 그것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평신도들을 모집하는 노력에 있어서 더한층 혁신적이 되도록 만들었다. 평신도들을 지도자의 위치에서 더욱 활동적으로 만드는 일과 이에 따른 시설들의 이용을 극대화시키는 일은 중요한 도전이 되었다.

그래서, 1989년 가을, 교과과정과 새 교회학교 지도자를 구성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였다. 운동 경기팀이 필요에 따라 선수들을 모집하듯이, 교회학교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할 만한 교인들을 모집하였다. 그에 적합한 사역자들의 이름이 적힌 커다란 칠판이 각 지도자에게 그의 반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사람들



제이 침례교회, 텍사스주 휴스턴시

이 선정되었고 또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집되었다.

에드윈 영에 따르면, 모집은 경이적일 만큼 성공이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발산된 열정은 오래 전에 있었던 옛 교회학교 “대회”의 전형이었다. 또 이러한 창의적인 기획으로 얻어진 기대하지 않았던 유익으로는 이 일이 교회학교를 위해서 평신도들 사이에 흥분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지금은 매년 있는 기획들과 특별한 사업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위원회를 평신도가 인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평신도 지도력이 제이 침례교회의 가장 막강한 자산이라고 평할 것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한 해

매년 이 교회는 “충성의 해,” “청지기의 해,” “기도의 해” 등과 같은 특별한 연중 표어를 정한다. 금년 1990년은 “복음전도의 해”이다. 이 교회의 목표는 1990년 1년 동안 1,000 명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이다. 이 교

회는 한 해에 2,000 명의 새신자를 받아들여서 그 중 767 명에게 침례를 베푼 적은 있지만, 아직껏 1,000 명에게 침례를 베푼 적은 없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은 그의 회중들에게 도전을 했다. 방문자들이 교회에 오는 순간, 그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정성스런 손길을 보게 된다. 주차장에서는 음악이 흐르고, 주차할 곳을 알려주는 표지판들과, 차문을 열어주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노인들을 위해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다.

직원들을 포함한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사들 및 정규적인 출석자들은 교회 부지 내에 주차하지 않는다. 그들을 위한 주차장이 교회 안 어느 곳에도 없다. 8시 30분에 있는 교회학교에 참석하는 방문자들이 아니고는 교회 부지 내에 주차할 수가 없다. 그들은 먼 곳에 있는 세 군데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교회로 오기 위해서 그 곳에서 22개의 셔틀 버스 중 하나에 탑승하게 된다.

이 교회는 교회 내에 2,387 개의 주차 공간과 교회 부지 바로 밖에 이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는데 반경 2 마일(약 3 킬로미터) 내에 5천 대의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 주일 아침에 교회로 오는 차들의 혼잡을 막기 위해서 신호등까지 동원하고 있다.

“주차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결해야 할 문제죠.”라고 영은 말한다. 주차 문제는 이 교회가 서로 돕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전도를 목적으로 한 파티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은 휴스턴의 어느 지역에서나 열리고 있는데, 어떤 모임은 30 마일(약 48 킬로미터)이나 떨어진 곳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의 교통 혼잡 때문에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파티를 통해서 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은 교제에 치중하지만, 누군가가 주님이 그의 삶에 이루신 것도 나누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교회로 오게 될 것이다. 이웃을 위한 복음전도 모임은 낯선 교회에 참석해서 느낄 수 있는 많은 부담을 제거해

줄 것이다. 그 모임은 제이 침례교회에 호감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교회는 휴스턴으로 이사를 오는 남침례교인들이 아닌 대상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먼저 남침례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교회에 가장 많이 오는 그룹으로는 카톨릭 신자들이 있다. 또한 감리교인들, 장로교인들과 다른 교파들도 나오고 있다.

다수의 유대인 신자들 혹은 “순유대인”들 역시 이 교회를 향해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이 교제에서는 흥분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히브리어 “르카임”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흥분과 기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히브리 단어가 전통적으로는 축배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이해하고 또한 그에 따라 잘 반응하고 있다.

새신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들에 의해서 출석하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 3 주 안에 다섯 통의 편지와 두세 차례의 방문 그리고 13 회의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교회는 이 새로운 교인들이 교회학교반에 참여하도록 온갖 노력을 한다. 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그들이 몸의 각 지체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습니다.”

장래를 예견함

이 교회는 교회 직원이나 목회자들이 제외된 “평신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영은 이 집단들을 “두뇌 집단”이라고 부른다. 이 교회는 약 여덟 개 정도의 두뇌 집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교회 일의 해결책들을 제안한다.

각 두뇌집단은 해결해야 할 과제물을 부여받은 12-15 명에 이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 부지 밖의 주차장들은 얼마나 더 사용할 것인가? 최근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다른 사역들

기독인 학교

제이 침례교회는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12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965 명이 등록된 기독인 학교를 가지고 있다. 이 학교는 미식축구, 농구, 축구, 야구 및 육상 팀 등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지적인 교육도 하고 있다.

찰스 스필전이 100 년 전에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침례교회의 위대한 복음전도 활동에 기도의 기반을 공급했던 “괴수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제이 침례교회도 기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제적인 강조

이 교회에서는 여러 개의 국제적인 교회학교 반도 볼 수 있다.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스페인어로 동시 통역도 한다.

최선의 삶 프로그램

이 교회는 남침례회의 최선의 삶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안된 26 주간의 기본적인 제자훈련 과정이다. 영은 “만약 1만 명의 새 아기들과 그들을 돌볼 4천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새 교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최선의 삶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양육과 방문

이 교회는 전도를 위해 봄과 가을의 정기적인 부흥회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도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교회학교를 통해서

양육하도록 책임지고 있다. 담임목사를 돕는 직원들 역시 심방에 참여한다. 34 명의 행정 직원들은 매주 영에게 심방 보고서를 제출하며, 영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

기도에 대한 강조

영은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기도라고 믿고 있다. 찰스 스펔전이 100 년 전에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침례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 활동에 기도의 기반을 공급했던 “파수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제이 침례교회도 기도로 성장하고 있다. 두 명의 전담 직원이 기도의 사역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제이 침례교회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들은 기도한다.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 그들의 헌신의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교회에서 하루 24 시간, 매주 7 일, 매년 365 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교회의 파수꾼들이 번갈아가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새 성전을 지키는 것이다.

매년 제이 침례교회는 두 개의 기도 학교를 후원한다. 이 학교는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기도의 삶을 개발하는 일을 돕고 있다. 기도 학교의 첫 학기는 봄에 시작하며, 부목사인 제임스 R. 드로아 박사가 인도하고 있다. 개인 성경공부와 권면과 기도를 위한 특별한 기간이 있다.

추계 기도학교는 “충동원 기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신유기도,” “영적 각성에 있어서의 기도의 역할,” “금식중의 기도,” “기도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감”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초빙 강사들에 의하여 인도된다. 기도 강조의 달이 되면, 교인들은 기도실에서 한 시간 동안 기도할 것을 서약한다. 기도실에서는 하루 24 시간 끊이지 않고 기도가 드러진다.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간증과 성경공부 교실 게시판과 교회 신문을 사용한다.

일년에 한 차례 기도실에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중보자들과 기도

의 사역을 지원한 사역자들의 헌신을 격려하는 기도 만찬이 있다. 기도 사역에서 5 년 동안 일을 해 온 사람들이 이 만찬에서 특별한 인정을 받게 된다. 이 시간은 기도 응답을 나누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된다.

매달 두 번씩 기도에 대해 지도하는 시간을 한 시간씩 가지며, 이 때 새 교인들에게 기도실을 어떻게 이용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친다. 교회로 걸려오는 많은 전화들은 기도실로 전해지며, 이 곳에서 목회적인 돌봄이 상당히 진행된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전화하고 있다. 누군가가 그들과 대화해 주며, 마칠 때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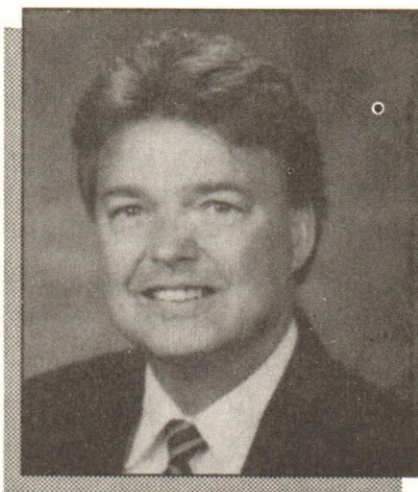
기름을 붓고 안수해 주며(약 5:14 참조), 그들의 특별한 육체적인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기적인 예배에 병자들이 많이 참석한다.



9

목회의 전면적 국면전환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쉽 교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



목회자 마이클 커크 맥킨토시 목사

새
 디에이고 교외 근교의 북쪽, 전에는 중·고등학교 교정이었던 20 에이커(약 2만 4,400 평)의 시설 주위에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교회 건물이 산재해 있다. 이 교회 이름은 호라이즌 크리스천 펠로우십(Horizon Christian Fellowship)으로서, 평균 연령이 28세인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 사역을 하고 있다. 이 교회에는 모든 연령층을 포함해 4천 명 내지 5 천 명의 사람들이 매 주일 참석하고 있다. 이 교회의 설립자요, 목회자인 46세의 마이클 커크 맥킨토시는 20대 남가주 해변에서 젊은 날의 반항을 실제로 경험했었다. 그는 반항적인 젊은이들의 삶의 형태를 이해하고 있는 오리곤 토박이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마귀와 대결함

마이클 맥킨토시는 “누가 교회를 21세기로 인도해 갈 것인가?”라고 질문한다. 그는 미국 사회 속에서의 폭발적인 마약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도시 젊은이들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도심지에는 가출을 했거나 가족들에게 쫓겨난 십대들이 무려 31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새로운 목회 방법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펴볼 때, 마귀가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비전을 생각해 내어야 합니다.” 그는 미국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는 마약 문화라고 언급한다. 그는 젊은 세대의 상당수

가 마약을 흡입케 하는 음악을 듣고, 마약을 권장하는 영화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마귀와 투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는 도전할 것입니다.” 그의 국제청소년개발원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전화를 걸어 다른 청소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로서, 지난 2년 동안 급성장했다. 소형 비행선, 상업용 영화나 텔레비전 및 다른 대중매체에 무료 전화번호인 800번을 광고하였는데, 이 사역은 말 그대로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1986년에 국제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들로부터 3만 건의 전화를 접수했다. 1987년에는 13만 9천 건으로 경증 뛰어올랐고, 1988년에는 18만 건으로, 1989년에는 25만 건을 기록했다.

맥킨토시는 “전화로 거둬난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오직 하나뿐인 크리스천 긴급 직통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이 전화를 하면, 대부분 응답자가 그와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면한다. 종종 전화를 걸 만한 문제를 지닌 청소년에게는 그 지역에 있는 은신처나 교회가 소개된다.

맥킨토시는 샌디에이고 경찰의 경목이자 샌디에이고 범죄위원회의 위원이다. 그는 자신도 마약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많은 문제점들이 전화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버지가 나를 성폭행했어요…… 막 마약 주사를 맞았어요…… 포주가 나를 감금했어요…….” 한 청소년 남장은 전화를 해서 그의 포주와 문제가 있으며, 그 포주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 했던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해변가 부랑자에서 거둬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마이클 맥킨토시도 1960년대 후반에 마약 문화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 당시 그는 남가주에 휴가를 온 소녀들을 매혹시키는 해변가 부랑자로서 살았다.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할 때에만 데이트를 했다. 그는 록 가수들에게 알려진 모든 마약들을 복용해 보았다.

어느 때인가 그는 환각 증상을 경험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자기 머리를 총으로 쏘서 머리의 반쪽을 날려보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다. 마약에 자극된 상상력은 그를 캘리포니아 깊은 사막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는 거기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찾기 위해서 하늘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다.

그는 요가나 선(禪), 사탄 숭배를 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방탕한 삶을 살아갔다.

친구들과 어울려 방황을 하며 마약으로 찢든 한 주간을 보낸 후, 마이클은 라구나 비치 경찰서로 찾아가서 비틀즈가 어떻게 이 도시에 오게 되었으며 또한 자기가 어떻게 그들의 보컬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경찰은 그를 오렌지 카운티 메디칼 센터로 호송했다. 거기에서 여러 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를 진단한 결과 그 증상은 “과대망상적인 정신 분열증”으로 판단되었다.

4년 동안 “자유롭게” 남가주 해변에서 지내며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던 잘 생긴 젊은이였던 마이클 맥킨토시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후에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 때 나는 더 이상 비참해 질래야 비참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부인과 이혼했고, 법적으로나 빚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으며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그의 스물 여섯번째 생일 때 맥킨토시는 친구들로부터 코스타 메사에 소재한 갈보리 교회에서 개최된 음악 예배에 초대를 받았다. 그날 밤 복음을 듣고, 마이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악몽은 끝이 났고, 그는 생애에 있어 위대한 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저서 ‘마이크의 사랑을 위해서(For the Love of Mike)’에서, 샌디에이고 지역 크리스천 작가 협회의 창립자이며 빌리 그래함의 잡지 ‘결단(Decision)’의 전 편집자인 설우드 엘리오토티는 좌절과 패배의 삶에서 돌이킨 맥킨토시의 회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업 교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

“그렇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나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의 구덩이로부터 새 생활과 새 교회와 범세계적인 사역의 기반이 나왔던 것이다.

구원을 받은 후 5년 동안, 마이클은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 밑에서 일했다. 척의 교회는 맥킨토시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젊은 남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이 교회는 “예수의 젊은이들”을 위한 발상지가 되었으며, 근처의 태평양은 여러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곳이 되었다. 오늘날 갈보리 교회와 비슷한 수백 개의 교회들이 코스타 메사에서 주님을 발견했던 젊은이들에 의해 북미 전역에 세워지고 있다.

스미스 목사의 지도 아래 맥킨토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하기 위해 “공동 생활체”에 들어왔다. 이 곳은 성경공부와 훈련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교제와 크리스천의 규범이 있는 기숙사였다. 이 영적인 새신자 훈련소에서 맥킨토시와 그의 동료들은 성경을 읽으며 밤낮을 보냈

다. 그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지, 어떻게 증거하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배웠다. 그들이 “구세주의 대저택”이라고 부르는 이 공동 생활체는 많은 신학교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후에 마이클은 갈보리 교회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 곳에서 안수를 받았다.

맥킨토시는 목회 훈련을 통해 급성장했으며, 이혼했던 아내 샌드라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을 보는 기쁨도 가졌다. 3년 동안을 떨어져 지내던 그들은 주님께서 결혼생활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스미스 목사가 그 결혼식을 주례했다. 이혼할 당시에는 두 자녀를 두었는데, 지금은 그들을 포함해 다섯 명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다. 그들 중 몇몇은 어른이 되었다.

음악에서 목회로

고등학교를 중퇴했던 맥킨토시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아주사 태평양 대학의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 학위들을 받았다.

맥킨토시는 샌디에이고에서 현재의 사역을 하기 전에, 수년간 마라나다 음반의 책임자로 일했다. 그의 지도력으로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현대적인 크리스천 찬양 분야를 개척했다.

1974년에 마이클은 주간 성경교실을 맡아달라는 친구들의 부탁을 받았다. 12명이 포인트 로마에 있는 한 개인 집에서 시작하여, 곧 45명의 열정적인 젊은 회심자들의 모임으로 성장했다. 그해 9월로 접어들면서 이 그룹은 오션 비취 여성 클럽으로 이전을 했고, 거기에서는 60명이 모여 들었다. 얼마 있지 않아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곧이어 그들은 발보아 공원 쪽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곳으로 이전하고 나서 그들은 ‘친절의 집’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 곳에서 그는 마라나다에서 익혔던 경영 능력에다 의사 전달과 설교의 기술을 더하였다. 1975년에 이르러 이 젊은 회중들은 샌디에이고의 린다 비스타 지역에 있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교회로 이전했다. 젊은 사람

들을 따라 가족들이 그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1,20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낡은 북부 공원 극장을 다음 해에 매입해서 개수(改修)를 했다. 교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주일예배는 오전에 두 번, 저녁에 한번 드리고 있다.

맥킨토시는 교회성장의 비결은 “올바른 문화, 적절한 장소, 적당한 시간, 적응할 줄 아는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업 교회의 탄생

맥킨토시의 비전은 점점 커졌다. 1976년 가을에 이 교회는 샌디에이고 북쪽 지역에 첫 선교 교회를 세웠다. 1980년까지 9 개의 교회가 이 헬로우업 교회에 의해 개척되었다. 이 교회들은 각각 엔시니타스, 엘 카혼, 에스콘디도, 출라 비스타, 포웨이, 퍼시픽 비취, 포인트 로마와 알파인 등의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맥킨토시는 “갈보리 교회”에서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업 교회”로 교회 명칭을 바꾸었다.

호라이즌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들을 제자삼는 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도록 그들을 파송하는 일에 헌신되었다. 이 교회는 북부 공원 극장 건너편에 가정관을 세웠다. 직원들이 늘어났다. 불우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도 했다.

국제 호라이즌 선교회

국제 호라이즌 선교회는 교회의 세계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마이클과 샌디는 해외를 여행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주님을 섬길 새로운 기회를 가졌다.

맥킨토시는 스코틀랜드, 멕시코, 필리핀, 그레나다와 다수의 미국 도시 등에서 복음전도대회를 인도하며 세계를 여행했다. 그의 교회는 우간다, 폴란드, 필리핀, 멕시코 등지에서, 음식과 의약품과 의복 및 긴급한 도움

등으로 구호 활동들을 벌이는 데 앞장섰다. 소련에서는 수년간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지하실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시베리아인 복음주의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일을 도왔다.

호라이즌 전도학교

많은 큰 교회들이 지도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신학교와 대학들을 설립하고 있는 이 때에, 맥킨토시는 다른 길을 취하고 있다. “나는 신학대학원에서 아주 뛰어난 지도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회방식을 좋아한다.

그의 목표는 젊은 회심자들을 도시의 마약 생활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그는 젊은 회심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음행이며, 이것은 훈련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마약 중심의 사회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목적이나 동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그런 이유로 호라이즌 전도학교는 1 년에 세 차례 광야 체험 여행을 계획했다. 이 여행을 통해 젊은이들은 어떻게 그들 자신을 돌보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가를 배운다. 보통 여행지로는 데쓰 밸리, 하이 시에라, 카타리나 섬 등지이다. 그들은 최소한의 필수품만으로 48 시간을 지탱하게 된다. 물론 그들은 슬리핑백과 조리 도구들을 가지고 간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선교 활동을 하러 나가는데 그 때 이러한 경험은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호화로운 호텔이 아닌 교회의 긴 의자에 그들의 슬리핑백을 펼쳐놓고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특한 방법을 통해 호라이즌 전도학교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역을 위해 훈련하는 동안, 다시 말하면 맥킨토시와 함께 전도와 구제를 위한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국제적인 선교 활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 호라이즌 전도학교는 도시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성숙하도록 돕기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선교 활동의 훈련 기회도

되었다.

변하는 형태와 지속적인 성장

1985년에 호라이즌 교회는 현재의 장소인 20 에이커(약 2만 450 평)가 되는 중·고등학교를 샌디에이고 시로부터 임대할 수 있었다. 이 때 매주 평균 출석인수는 2,500 명 정도였고, 교회는 14 개의 다른 교회를 개척했고, 33 명의 목사를 안수했다.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호라이즌 교회는 150만 불(약 12억 원)을 들여 체육관을 건립했으며, 지금은 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맥킨토시는 교회성장의 비결은 “올바른 문화, 적절한 장소, 적당한 시간, 적응할 줄 아는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던 시절에 코스타 메사의 갈보리 교회가 척 스미스 목사의 지도력하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었다. 이 때는 환각제가 처음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시기였고, 성조기들이 불살라졌고, 정부가 불신받고, 수백만의 젊은이들은 사랑과 언론의 자유를 누렸다.

혁신적인 기술들, 즉 해변가에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한 바다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들이 성행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도되었다. 그러나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업 교회가 성장하면서, 음악에 상당히 기반을 두고 해변 문화에 뿌리를 깊이 내렸던 본래의 방향을 조정했다.

그래서 교회는 주로 해변가의 젊은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던 자세를 수정하게 되었다. 사업가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학생들과 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인의 상당수를 이루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마약을 사용하였다. 모든 민족들이 아무런 인종적 편견없이 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직원이 될 수 있었다.

샌디에이고 거주민들은 대체로 호라이즌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 형태에 대해 편안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기술된 것처럼, 회중의 평균 나이는 28세 정도이다. 참석하는 사람들의 49 퍼센트는 독신자이며, 그

중의 반은 남자이다.

이 교회의 성장 기반은 여전히 회심자들을 통한 숫자적 증가에 있지만 이제는 그와 병행하여 자체 내의 교회학교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젊은 “히피족들”이 결혼을 하게 됨에 따라 생물학적 증가를 통한 교회성장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 교회의 “평범한 사무”태도에 불만을 품고 호라이즌 교회로 오고 있다. 불만스런 자유주의자들은 호라이즌 교회에서 분명한 복음을 발견한다.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이 자라났던 율법주의적인 태도로부터 해방되고 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감정주의 대신에 충실한 성경 강해를 발견하게 된다.

호라이즌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섬기지 않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영역을 발견했으며, 그 결과 꾸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현재의 시설로 이전하기 전에, 호라이즌 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참된 교회라기 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전도사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교회학교와 기독교인 주간 학교는, 더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 그들의 가족을 계속 데려오면서 교회에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호라이즌 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공부할 때 편안함을 즐기기 위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참석하는데, 그것은 그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었다. 저자가 한 기도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가 700 명의 예배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흰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한 사람이었다. 남가주에 위치한 이 교회는 근엄함과 편안함, 형식과 기능 사이에서 미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텔레비전을 통한 복음전도나 대성전이 없음

맥킨토시는 텔레비전이 반드시 복음전도나 예배를 위한 최선의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며 세속적인 청중들에게는 친근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도 3 년간이나 전국적으로 텔레비전 사역을 해보았지만, 돈을 구걸하느니 차라리 방송을 중단해 버렸다. 그는 모금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텔레비전 부흥사들이 사람들을 싫증나게 하였다고 마이클은 믿고 있다.

“복음전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능력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모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러한 능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맥킨토시는 거대한 성전을 짓는 데 대해서도 아무런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아나하임에서 개최된 빌리 그래함 야의 전도대회에서 간증을 하며, 거대한 운동경기장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 말한 적이 있다. 그는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개개인에게 눈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안다.

“나는 1만 명이나 1만 5천 명의 회중을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만나기보다는 5천 명씩 두세 번으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 교제 모임

호라이즌 교회는 공식적으로 교인 등록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참석하기 원할 때에는, 가정 교제 모임에 책임을 느끼도록 하며 규칙적으로 십일조를 드림으로 활발하게 사역에 동참하도록 한다.

호라이즌 교회의 목회 핵심

많은 면에서 목회의 핵심이 되는 가정 교제 모임은 4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정 교제 책임자는 전체 모임을 감독한다. 16 지역 지도자들이 책임자를 보좌하며 지역 지도자들이 그들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가정 교제 지도자들은 개별적인 모임을 책임지게 된다. 주일 예배자들 대부분이 가정 교제 모임에서 활동적이다. 목표는 100 퍼센트이다.

호라이즌 교회의 성장 수단

1989년에 호라이즌 교회 교인수가 3천 명에서 5천 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가정 교제 모임의 성장이 있었다.

62 개의 모임이 90 개로 증가함으로 각각 천 명의 어른과 아이의 수를 늘렸다.

마이클 맥킨토시는 “본래 나는 변화를 좋아합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교회는 처음 개척되었을 때부터 전형적인 모습의 교회가 아니었다. 급진적인 변화들이 수년간 일어났다. 그는, 변화는 비전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현재 참석자는 매주일 평균 5,500 명이며, 최근에는 2 회의 주일 오전 예배와 1 회의 토요일 저녁예배가 추가되었다.

모임들의 형태

가정 교제 모임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매 모임은 찬송과 예배로 시작되며,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성경공부를 하게 된다. 1990년에는 사도행전, 빌립보서, 로마서, 에베소서 등의 바울서신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성경공부를 마친 후에는 기도와 간증 시간과 지도자와 회원들이 서로를 위해 돌봄의 시간을 갖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길

맥킨토시는, 그가 사는 도시에는 성직자들보다 무당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 샌디에이고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이단적인 범죄들은 놀라운 비율로 경종을 울리며 급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많은 성직자들이 현재 이단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이단의 영향에 대해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전에 그러한 세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공부를 위해서 모이는 소모임들이 이단에 빠

져있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에도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믿으며, 또한 그러한 모임이 있는 교회는 효과적인 교회라고 믿고 있다.

변화를 향한 자세

마이클 맥킨토시는 “나는 본래 변화를 좋아합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교회는 처음 개척되었을 때부터 전형적인 모습의 교회가 아니었다. 급진적인 변화들이 수년간 일어났다. 그는, 변화는 비전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는, 목회자는 선지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예언서를 읽기 좋아합니다. 예언서를 통해 그들이 그 세대에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배우기 때문이지요.”

맥킨토시는 젊었을 때 해변가에서 청소년 전도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현재는 교외에 거주하는 결혼한 부머들에게 전도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는다.

어떤 전통적인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면서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변화를 꾀해야만 하는 것처럼, 열댓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시작했던 맥킨토시도 좀더 전통적인 교회 쪽으로 강조점을 옮겨가고 있다. “나는 좀 속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전을 따라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는 목회를 시작했을 때, 명령을 내리는 입장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교회의 우두머리라기보다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 “나는 먼저 사람들에게 나의 비전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할 때 나는 그들과 함께 일을 하지요. 이 비전에 대한 나의 관리는 곧 그들의 관리도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는 다음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물질적인 변화에서 시작해서 영적인 변화로 나아가려 할 때, 지도자는 그 반대의 양상을 취해야 한다고 마이클은 믿는다. 그는

영적인 변화의 비전으로 시작해서 물질적인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그는 오늘날의 전형적인 교회는 급진적이거나 획일적인 젊은이들과 연관성이 없으며, 만약 교회가 생존하기 원한다면 변화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지평선 저 너머

미래는 어떠한 양상을 띠 것인가? 맥킨토시는 “나는 지평선 바로 저 너머로 최초의 미국인 무신론자 세대를 봅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서 왜 그가 새 교회 이름을 “지평선”이라고 지었는지 설명한 셈이 되었다.

그는 다음의 말을 부연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본주의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교회를 향해서 강한 방어적인 심리를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3차 세계대전을 하도록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맥킨토시는 또한 “나는 최근에 PTL과 지미 스웨거트 스캔들에 의해서 생긴 복음전도적인 교회에 대한 환멸을 발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그의 교회를 경건과 제자도와 “종의 지도력”에 헌신된 견고한 배로 만들었다.

호라이즌 교회는 곧 현재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맥킨토시 목사의 다음 목표는 240 개의 가정 교제 모임을 만드는 것이며 이 모임들은 3천 명의 새신자를 확보할 것이다. 그러한 작은 모임들은 본래 주일예배에서 자라나게 되지만, 현재는 반대 현상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작은 셀모임을 통해 주일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셀 모임들의 잠재적인 기반 때문에, 맥킨토시는 예배들을 드릴 때 매주 1만 2천 명이 출석하게 될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

그는 차분하게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호라이즌 교회가 14 개의 다른 모임들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예배에 1만 5천 명 내지 2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0

두 곳에 한 교회?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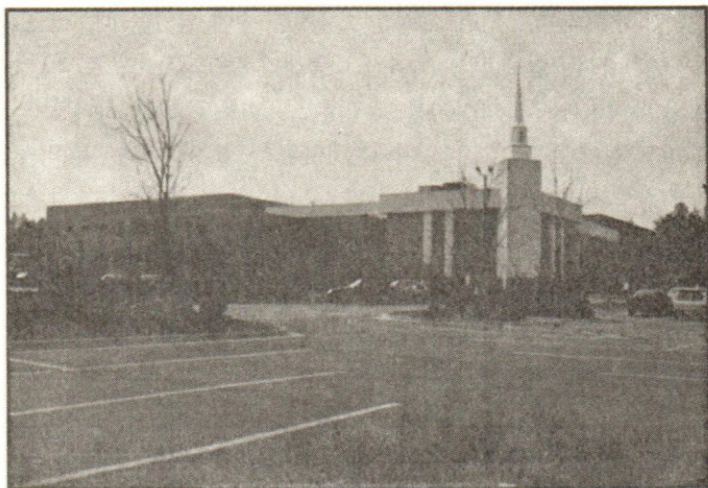
목회자, 폴 워커 박사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The Mount Paran Church of God)는 두 곳에 있는 한 교회로서 다른 어느 교회보다 효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잘 다루고 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확대된 지역 교구 교회”(16장을 보라)로 불리는, 1만 명의 회원을 가진 이 교회는 “다수의 교역자, 다수의 사역과 목회 장소”라는 문구에 혁신적인 의미를 갖는다. 폴 L. 위커 박사가 담임 목사이며 이 확대된 사역의 배후 원동력이지만, 그에게는 200 명이 넘는 직원과 교역자들이 섬기고 있다.

1989년 마운트 파란에서 드러진 현금 총액은 10,885,679 불(약 87억 원)로서, 이 금액은 미국 교회들 중에서 가장 큰 예산 중의 하나였다. 지난 몇 년간의 숫적인 성장은 이 교회의 중요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 교회는 마운트 파란 북부에서 다른 예배들이 더 드러진 이래로 출석인수가 매주 약 4천 명까지 성장을 했다.

성장의 역사

이 교회는 본래 1918년 테네시 주 클리블랜드 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첫 모임으로서 애틀랜타 지역에 조직되었다. 일찍이 여러 교회가 애틀랜타 도심지 북부의 조지아 텍 주립대학 근처에 있는 “햄필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생겨났다. 1960년 폴 L. 위커 박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 교육 및 청소년 사역을 담당한 주 책임자였다. “햄필 하나님의 교회”의 위원회가 전국 총회에서 그와 회견했고, 간절한 기도 후에 위커 박사는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이 교회를 맡기로 결정했다.



마운트 파란 북부 교회



마운트 파란 중앙 교회

조지아 텍 주립대학이 험필 교회의 소유지를 손에 넣었을 때, 이 교회는 약 6 마일(약 10 킬로미터) 떨어진 애틀랜타 북쪽 끝 마운트 파란 거리 부지 6 에이커(약 7,300 평)를 매입했다.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 명칭이 바뀌었고, 첫 예배는 1967년 7월 9일 85만 불(약 6억 8천 원)의 종합 빌딩에서 드려졌다. 2년 내 교회는 시설 확장을 위한 계획을 세웠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역 확장을 계획했다. 10 년 내에 여러 새로운 사역이 더해졌다. 예를 들면 마운트 파란 기독인 학교(K-12), 심리학연구소, 조지아 주립대학에 있는 기독교 상담학의 보조 프로그램 등인데, 특히 상담학은 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폴 위커는 예배를 경배와 찬양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전적인 표현으로 정의한다. 예배는 신자의 경험에 있어서 “높은 수위”(high water mark)를 차지한다.

1987년 확장과 전도에 있어서, 위커 박사가 돌파구를 찾는 시점에 이르렀다. 마운트 파란에서는 너무나 성장을 해서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장소가 없게 된 것이다. 주차장은 포화상태가 되었고, 그들은 다른 주차장에서 셔틀 버스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으며, 가능한 한 예배횟수를 늘렸다. 일주일 중 하루를 사용하기 위해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위커 박사는 다른 사역과 다른 형태의 전도 활동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응답은 마리에타 침례교회의 소유지와 시설이 유용하게 된 1987년 8월에 이루어졌다.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는 65 에이커(약 8만 평)의 부지와 3,500 석의 강당이 포함된 12만 평방피트(약 3,400 평)의 건물을 3,500만 불(약 28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 또한 약 10 에이커(약 1만 2천 평)와 3만 평방피트(약 843 평)의 교육 공간과 조경 및 주차와 개수작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900만 불(약 72억 원)을 확보해야만 했다(비록 그들이 교회 건물은 얻었지만, 그들은 새 건물 규약을 준수해

야만 했다.). 이 교회는 “마운트 파란 북부 교회”라고 불리는 새 시설을 위해서 500만 불(약 40억 원)을 현금으로 모금했고 700만 불(약 56억 원)을 융자받았다. 현재 이 교회는 14.5마일(약 23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두 장소에서 모이고 있다.

현재 이 교회는 마운트 파란 북부에서 약 3천 명 가량이 오전 9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고, 약 500 명이 저녁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회중은 또한 마운트 파란 거리에서 오전 7시 45분에 주일 아침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때에는 약 200 명에게 주의 만찬이 베풀어지고 있다. 마운트 파란 거리(마운트 파란 중앙 교회라고 불리는)에서의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7시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두 곳에서 매 주일 여섯 번의 예배를 갖는다.

목회자 약력

폴 위커는 테네시 주 클리블랜드 시에 소재한 하나님의 교회 출신이다. 그는 그의 교파에 충실한 모범적인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 철학이 그들과 같다는 것은 아니다. 한때 이 교회는 자신의 혁신적인 방법 때문에 교파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교회의 성장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10년 간 매년 10 퍼센트 성장). 현재 위커 박사와 이 교회는 훈련의 여러 분야에서 교파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으므로 “본” 이상이 되었다. 이 교회는 다른 사역들을 돕는 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위대한 목회자들처럼, 위커는 다양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의 아버지인 폴 H. 위커 역시 같은 교단의 목회자였다.

폴 위커는 뛰어난 설교자였고 그의 설교를 통해 교회를 세워 나갔다. 그는 또한 상담자요 심리학자요 교육자였다. 그리고 그가 뛰어난 행정가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천만 불(약 8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은 그의 능력을 증명한다.

교회가 조지아 텍 대학 부근에 있을 당시에, 폴 위커는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지아 주립대학에 등록을 해서 심리학 및 상담학 분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 “상담 중심”의 설교를 해왔다고 고백했다. 이를테면 그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설교를 했다는 의미이다.

지난 수년간 폴 위커 박사의 설교 형태는 변화되었다. 그는 지금이 더 성경 중심적이라고 말한다. 즉 그의 설교가 더욱 성서 강해적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전처럼 방향을 설정할 때 지성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육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지성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심령을 움직이는 열정적인 설교를 하기 원한다고 말한다. “나는 설교에 있어서 중도를 가고 있습니다.”

성령충만한 예배

이 교회의 성장 비결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위커는 “우리는 70년대에 북부 아틀랜타에서 은사주의적인 활동의 중추 역할을 해왔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말은 그의 우선적인 호소가 특정한 오순절 청중에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는 공허한 삶을 살면서도 주요 교파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현대적인 주제를 다루지만 메시지의 기초는 성경에 두고 있다. 그는 현대 음악을 사용했지만, 음악의 기본적인 성경적 사역은 부인하지 않았다. “역사 깊은 교파들에 소속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예배를 추구하고 있었고, 우리는 애틀랜타 북부 지역에서 그들을 수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다리는 예배이다. 위커는 “교회는 주일의 예배 경험에 따라 흥망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예배중에 뛰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카리스마적인 은사들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라고 말한다. 이 교회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

작하며, 목회자는 찬양과 경배의 촉진제 역할을 맡는다. 위커는 예배를 경배와 찬양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표현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예배는 이차적이 아니며, 단지 “분위기”만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위커의 말에 의하면 예배는 신자의 경험에 있어서 “높은 수위” 즉 한 주간중 하나님에 대한 한 사람의 지고한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주일예배 때 좋은 예배를 계획하고, 기대하고, 전달해야 할 의무를 느꼈다.

마운트 파란은 사람들이 양질의 강단 사역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크지만, 이러한 규모는 사람들을 무명으로 만들어 군중 속에서 개인을 상실하도록 만든다.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소모임과 다양한 사역에 의해서 조직되었고, 이로 인해서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았다. 위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 즉 경험을 하러 오는 것이지, 교리를 바라오 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지적한다.

대부분 남부 지역의 교회들처럼, 마운트 파란의 교회학교는 수년간 예배 참석자보다 더 많은 참석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배 참석자가 교회학교 참석자 수를 능가하면서 이 경향이 뒤바뀌었을 때, 마운트 파란은 모범적인 강단 사역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지도자가 되었다(두 운동 사이에 있던 “정점” 혹은 “중간 지점”은 1971년에 다다르게 되었다.). “우리는 수년간 교회학교에 성장을 의존했습니다만 이제는 예배가 교회학교를 앞서게 되었고, 지도력이 교회학교에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위커는 말했다.

프로그램과 조직

위커는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은 교회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지체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회에는 많은 남부 교회들 같은 조직적인 전도 활동이 없다. 또한 축호전도나 새신자를 위한 적극적인 전도 활동이 없다. 이 교회는 인간 관계나 예배에서 무엇인가 얻은 예배 참

석자들이 증거함으로 성장한다. 사람들이 마운트 파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구들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그들도 같은 경험을 원한다.

그러나 마운트 파란은 조직적인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3 주 내에 전화나 편지로 연락을 받거나 그들이 교역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심방을 원할 때면 더 빨리 연락을 받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어떤 암보다도 먼저 혁신을 죽인다.”

새신자가 한 명 가입할 때, 그들은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하게 된다. 그들은 교회학교의 한 반과 “포도나무 생활”(Vine Life) 모임에 배정된다. 그것은 그들을 어떤 형태의 사역에 포함시켜 다른 신자들과 알고 지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교회는 개인전도 훈련이라고 불리는 독특하게 개발된 마운트 파란 프로그램 가운데 전도폭발 기술을 사용해서 신자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훈련한다.

마운트 파란은 버스 사역을 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 그러나 이 교회는 젊은이를 위한 크리스천 록 밴드 및 교우들이 그들의 사역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2 년 기간의 “사역 개발을 위한 학교”(작년에 65 명이 졸업했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역이 있다. 1만 명의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도록 고안된 소모임을 위한 프로그램인 “포도나무 생활”이 있다. 메트로폴리탄 성경연구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우들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다른 프로그램들로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교우들의 모임, 동성연애자 및 중독 문제들을 취급하는 모임들과 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사역이 있다.

워커는 마운트 파란은 부머 교회가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혁신적인 크리스천 록 음악보다는 전통적인 음악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는 그들의 음악이 장년 모든 연령층에 호소력

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혁신을 위한 전략

위커는 어떻게 이토록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전략을 나열했다.

1. 새로운 사역들은 목회자의 장기 근속 위에 세워져야 한다. 사람들은 지도력을 따르기 전에 먼저 지도력을 신뢰해야만 한다.
2. 지도자는 새로운 사역에 대한 그의 비전을 나누어야 하며, 사람들은 그 비전에 동의해야 한다.
3. 지도자는 정직함으로써 신뢰를 얻어야만 한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르기 전에, 지도자가 말한 바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4.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입하기 전에 항상 교회적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 나는 이 길로 행하며 다른 길을 발견합니다. 나는 효력이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간혀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 교회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시도하거나 그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전 3 개월 내지 6 개월간 시험해 봅니다.”
5. 새로운 사역에 동의할 몇몇 사람들을 확보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식하라. 위커 박사가 성공한 비결 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들이 매일 교회 건물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6. 모든 사람들에게 허점을 주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책감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다. 위커는 “정죄감은 실패에 대한 고발 감정으로서 영성을 죽이며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질병 중 하나이다. 사람들에게 틈을 줄 때 그들은 동참하거나 참석해야만 한다는 예측감 없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예측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공격하거나 새로운 기안들을 말살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틈새가 없다면 그들은 정죄감과 위협감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새로운 사역을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7.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위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어떤 암보다도 먼저 혁신을 죽이고 있다.”고 말한다.
8.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효력이 없을 경우 기꺼이 그 사실을 인정하라. “나는 그 잔을 마셨으며 값진 교훈들을 배웠다.”

기도의 힘

마운트 파란 교회가 기도를 통해 받았던 최대의 응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위커는 기꺼이 다음의 네 가지를 열거했다.

“가장 위대한 기도의 응답은 사람입니다.”

“마운트 파란 교회가 받았던 가장 위대한 두번째 기도의 응답은 신유의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이 교회에서 병고침을 받았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쓴 100 개의 간증문이 담긴 한 봉치의 글을 건네주었다.

“기도의 가장 위대한 세번째 응답은 필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담 사역과 평신도 사역을 다 포함한다.

“기도의 가장 위대한 응답의 네번째는 재정의 공급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커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두 가지 경우를 말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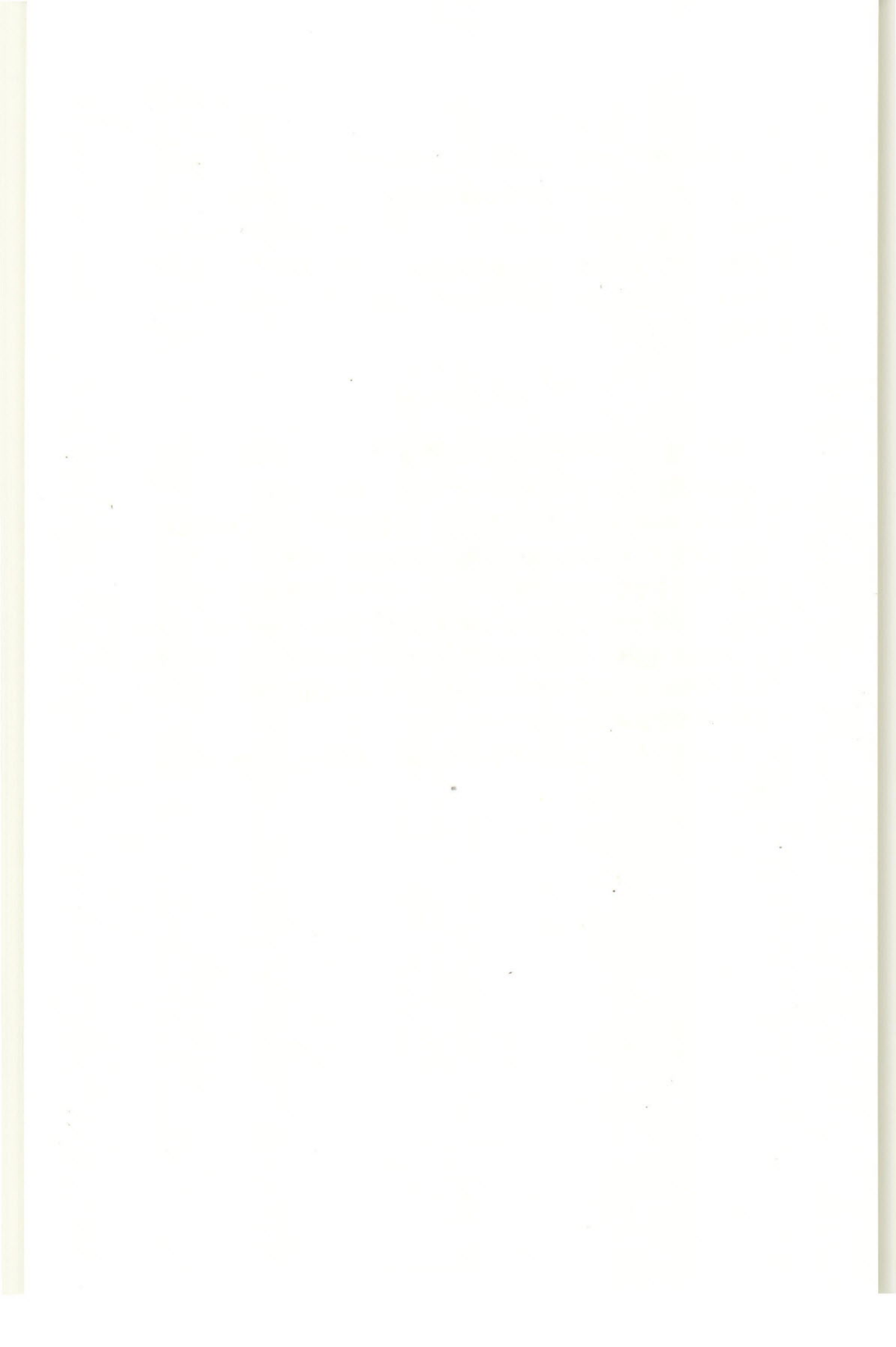
이 교회가 60년대에 텔레비전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흑백 텔레비전 방영을 위한 기구들을 사용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용기 시리즈”라는 텔레비전 사역은 도움을 받아온 시청자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제한된 기구들에 의해서 좌절되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한 남자가 스튜디오와 도구 및 프로그램 전파를 위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의 요트를 팔았다.

그리고 교회가 1966년에 처음으로 마운트 파란 거리로 이전을 할 때, 그들은 1만 불(약 800만 원)이 절박하게 필요했다. 이 돈을 장만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바를 모두 다 해 본 후, 위커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한 남자를 깨우셔서 자기에게 전화를 걸어오게 하였고, 다음날 정오 교회는 그 계획에 필요한 돈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지평선 저 너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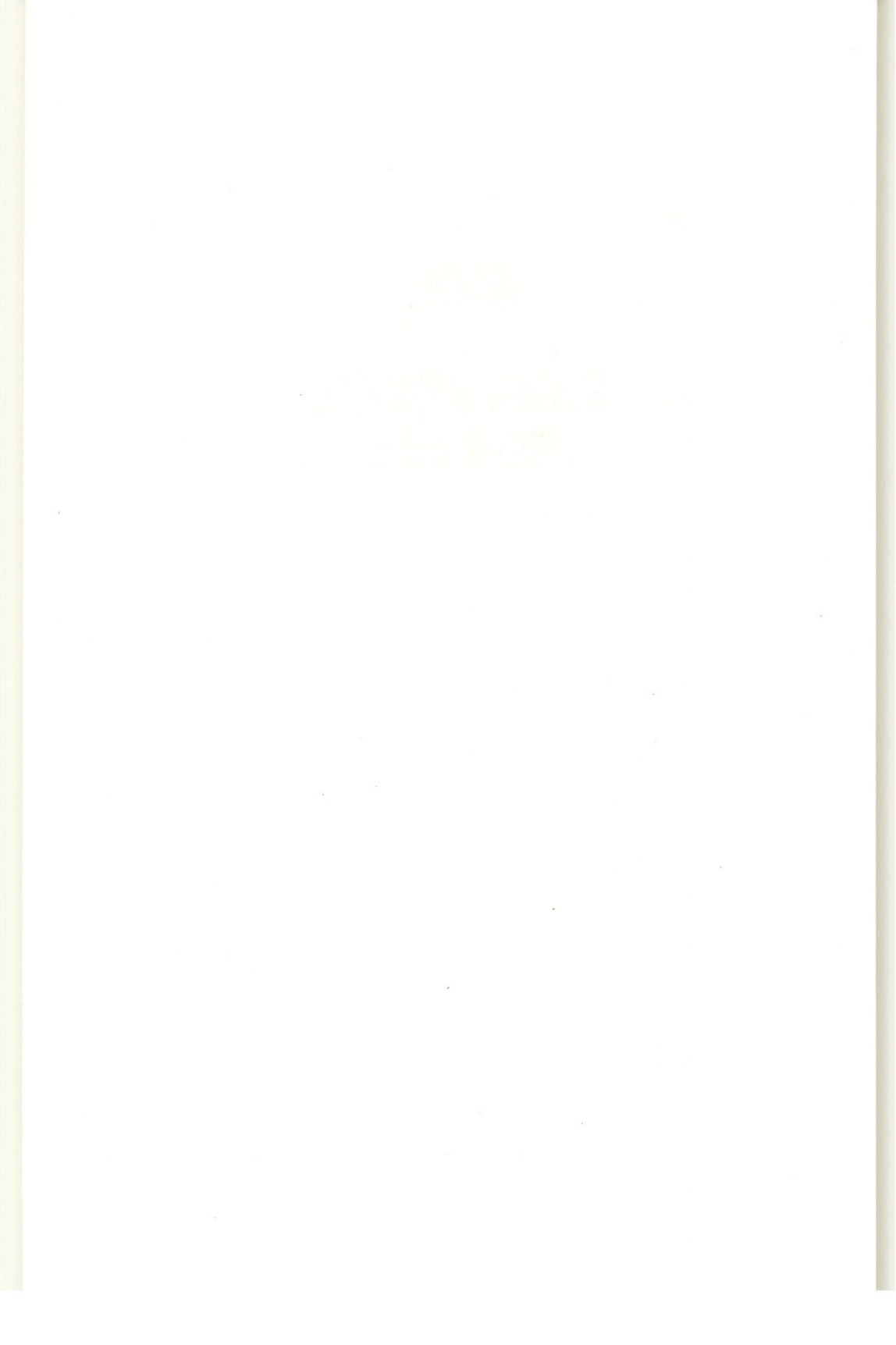
위커는 이 교회가 봉사를 하려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더욱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목표는 빠른 시일 내에 5백 개의 “포도나무 생활” 모임을 세우고 활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게 될 것이다. 두번째로, 그는 “포도나무 생활” 모임을 통해서 그들을 성숙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계획을 세우면서, 예배와 음악과 설교를 위해서 교회 강단을 강화하기 원한다. 그리고 세번째로, 그는 이 교회의 빛을 청산하기 원한다. 위커는 모든 것을 현금으로 갚기 원하며, 이 교회는 선교와 새로운 토착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더 많이 하기 원한다.

위커의 말처럼, 이 교회의 미래는 이 교회가 세워진 기초만큼이나 견고한 것이다.



분석:

**오늘날의 교회를 위한
혁신의 요소들**



11

새로운 기대들: 부머들이 교회를 취할 때

미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를 예언하는 것은 점괘 과자들
로 점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다. 이러한 예언은 장래에 무엇이 일
어날지를 그저 추측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근거가 확실한 지표들
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한 소녀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의 성품을 고찰
함으로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있듯이, 교회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의 성품을 점검해 봄으로 미래에 교회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 실
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앞으로 10 년 이내에 25세에서 45세 사이의 베이비 부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것이다. 금세기 말까지, 미국 교회는 부머 교회가 될 것이
다. 이 말은 모든 교회가 예배를 인도할 록 밴드를 가진다거나 '리빙 바
이블(Living Bible)'을 읽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예배자들
이 반드시 머리에서 신발까지 갖춰 입고 찬양만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미래의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부머들의 가치와 목적과 삶의 형태를 이해해야만 한다.

베이비 부머란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들은 “펍시 세대,” “지금 세대,” “나 세대” 등으로 특징지어져 불려왔다. 그러한 부머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자기 몰두는 결혼 혹은 가족까지 확대되어지며, 그들은 “우리 세대”라 특징지어진다.

회사에서 부머들은 10년 내에 중견 관리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최고 경영자들과 법률 회사들의 고위 간부들 및 이사의 일원이 될 것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며 방향을 제시해 줄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및 삶의 목적들은 미래의 교회에 주요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에 의해서 다스려질 나라

부머 문화는 다른 청소년 문화들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 문화는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가치관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과거 세대의 경우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가치관에 순응을 했고, 따라서 기성 세대의 가치관이 영속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현재는 젊음의 영원한 원천을 추구하는 미국의 어른들이 부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들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하기보다는 그 세대에 맞게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부머들은 인생관에 있어서 부모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 부모의 유전도 영향을 받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들 가정과 문화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부머들은 다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의 어느 세대와도 다른 세계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부모들은 미국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 공황을 경험했다. 이 불황은 그들로 하여금 현실주의자가 되도록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비관주

의자가 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한번도 그렇게 심한 경제적인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

우리는 한국과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했을지 모르나,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젊은 세대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다. 그 결과, 부모들은 낙관적이며 적극적이다. 모든 것이 다 “고고”(a-go-go)이다. 부모들은 승자이다.

부모들이 다른 네 가지 이유

부모들은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네 가지의 독특한 세계 속에서 성장을 했다. (1) 피임약과 산아 조절, (2) 원자폭탄과 즉각적이며 완전한 파멸, (3) 편재하는 탁아모로서의 텔레비전, 그리고 (4) 스포츠 박사의 육아법에 대한 긍정적인 보장.

233,452 명이라는 많은 갓난아기들이 대일 승전 기념일 직후 9 개월 동안에 출생했다. 이 엄청난 베이비 붐은 “부모들”이란 단어의 어원이 된다.

전쟁중에, 출산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저조했다. 남자들은 참전하기 위해 떠났으며, 여성 인구는 가내수공업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3,400만 명의 갓난아기들이 태어났다. 그중 233,452 명의 갓난아기들이 대일 승전 기념일(V-J Day) 직후 9 개월 동안에 출생했다. 이 엄청난 베이비 붐은 “부모들”이란 단어의 어원이 된다.

전쟁을 위해 공급되었던 모든 과학적인 기술이 이제는 생산성을 위해 사용되었다. 근무 시간이 짧아졌고, 근무 장소는 안전해졌고, 근무가 쉬워졌다. 그러므로 미국인들의 일에 대한 자세의 변화 - 일에 대한 윤리의식의 변화 - 를 가져왔다.

일이 보다 쉬워지면서, 일에 대한 부모들의 자세는 그들의 부모들과 다

른 양상을 보인다. 그들이 과거 어느 세대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할지는 모르지만, 일에 대한 가치관은 다르다. 그들이 부모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에 대한 형태와 기능에 대한 그들의 자세와 기대는 다른 것이다.

성의 혁명

모든 세대에는 성적인 유혹과 성적인 문란과 성적인 남용이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성적인 구속이 마치 무너진 댐과 같이 완화되었고, 부모들에게 그러한 영향은 더욱더 명백하게 두드러진다. 피임약의 사용은 다른 세대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성적인 자유를 부모들에게 주었다.

성적인 자유란 그들이 “안전한 성관계” - 적어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안전하다는 - 를 가졌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이러한 상황이 있기 전에 젊은이들은 제한적인 산아 조절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피임약은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이러한 공포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은 부모들의 성 관습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성은 이제 “출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유용한 것이 되었다. 또한, 피임약은 혼외 임신이라는 오명을 제거해 버렸다. 그리고 피임약은 부부들로 하여금 자연적이고 신체적인 법칙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결과를 자신들이 뜻하는 바대로 관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부모들은 성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개발했다. 첫째로, 침실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텔레비전에서도 용납되었다. 또 성을 화제로 삼고 대중매체로 묘사하기에 즐거운 것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위험 부담이 있어 금지되었던 성이 이제 생활의 표준이 되었다.

부모의 새로운 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키니, 미니 스커트, 성인 영화, 플레이보이 같은 잡지 등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것은 본질상 성의 혁명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명으로 많은 주부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었고,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의 변화 내지 상호 교환, 동성연애에 대한 보다 관용적인 이해 등을 부수적인 효과로 얻었다.

적극적인 세대

스пок 박사의 저서 '스пок 박사와 어머니들과의 대화-성장과 인도(Dr. Spock Talks with Mothers-Growth and Guidance)'는 그릇된 행위를 한 후 교정되는 것보다는 바른 일을 행하도록 격려되어진 어린이들을 형성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과거에 행해지던 구속이 없이 허용적인 분위기 안에서 성장을 했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라는 경구는 더 이상 육아법에서 통용되지 않았다. 부모들은 “비버에게 맡겨라(Leave It to Beaver)”나 “나의 세 아들” 등과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 모델을 많이 가졌다.

이것은 아이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적극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조화를 위한 필요성을 지적하려는 노력이다. 교육에 관한 두 가지 진리는 명백해야만 한다. 부정적인 교정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반면에, 적극적인 권면은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스포크 박사는 적극적인 “예스” 세대를 창조했다.

그러나 너무 적극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 마지막 결과는 보통 한 개인의 인격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결핍되는 경향이 있다.

부모들의 죄책감의 부재와 함께, 성에 대한 그들의 개방적인 자세로 그들은 외관상 행복하고 활기있고 항상 미소를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실제 모습인지 아니면 그들이 바라는 모습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은 대중매체 안에 그려진 모습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부모들보다 나이를 먹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 중 대부분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양육된 불황 갓난아기들(Depression babies)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두 비판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실패에 더욱 민감하며 그들 스스로를 “더욱 현실 지향적”이라고 부를 것이다.

부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머들은 일치를 위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을 가진 하부 문화가 되었다. 부머들은 다른 부머들이 입는 것과 같은 옷을 입기 원하며, 같은 방식으로 말하기 원하며,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차를 운전하기 원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들은 동료의 압력이 청소년 하부 문화를 획일화시켰던 이전의 세대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부머들은 그들의 청소년 하부 문화를 청년기로 전수하는 것 같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세대들이나 그들 주위의 다른 그룹들과는 다른 공통점을 가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룹이다.

이러한 그들의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생활 형태에 관해서, 또한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그러한 회심에 관해서 무어라 말하고 있는가? 다수의 부머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부터 장점들을 취하기 원하지만, 그들의 동료들로부터 이상하고 기묘하다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소속”되어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변화들을 근거로 전형적인 주일 오전예배를 조명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적극적이고 깨끗하며 단정하게 옷을 차려 입고 활기찬 미소를 짓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바라는 바가 아니겠는가? 본질적으로 부머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바를 구체화한다.

그럼에도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형상에 부합되기가 어려운 또 다른 면이 부머에게 있다. 60년대 이혼율이 25 퍼센트였던 것을, 부머들은 갑절에 가까운 48 퍼센트로 올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는 적극적인듯 보이지만, 정신적인 우울함과 염려와 스트레스를 겪는 세대인 것이다. 상담자들과 정신과 의사들과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그 때처럼 많은 적이 없었다.

부머의 하위 문화 중 “여피들”(yuppies)이라고 불리는 구별된 계급을 형성하는, 도시에 사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그룹이 있다. 이들은 기

성 사회에 대해 반항하고 구속적인 인습들로부터 자유를 요구하며 부와 신분을 거부하고 공동생활을 추구했던, 60년대 국제청년당(Youth International Party)의 회원들이었던 “이피들”(yippies)의 계승자들이다. 이피들은 “꽃 아이들”(flower children)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왜냐하면 어떤 이피 반전 항의자들이 미군 위병들의 총열에 꽃을 꽂아 두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피들의 가치관이 “후기 물질주의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부모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부터 장점들을 취하기 원하지만, 그들의 동료들로부터 이상하고 기묘하다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되기를 원치 않는다.

정치인들을 위한 연구원들은 여피 안에서, 그들을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켰던, 구별된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자세를 보았다. 그들은 40세 이하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신을 전문가로 생각하며, 매우 성공 지향적이므로 신분 상승을 피하고 있었다. 여피들은 교육을 매우 잘 받았으며 유복하고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자유주의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경제와 정치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는 더욱 보수적이다.

‘뉴스위크’의 커버 스토리는 대통령 예비 선거 때 게리 하트에 대한 강한 부각 때문에 1984년을 “여피의 해”로 선포했다. 게리 하트는 대중매체에 여피 사고 방식을 대표했다.

그렇다고 여피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그 범위를 대학 교육을 받았거나 전문직을 가지고 1년에 적어도 3만 5천 불(약 2,8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로 좁힌다면, 여피들은 대단히 적은 퍼센트-1 내지 3.4 퍼센트로 추정됨-로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수와는 상관없이 여피들은 우리의 의견들을 형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도력과 경영의 자리에서 미국인들의 사고와 구

매 방식 그리고 태도에 관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세 가지 질문이 여피를 정의한다.

- 첫째로, 젊다는 것은 대개 몇 살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18-39세까지

- 둘째로, 도시 거주자란 무엇을 말하는가?

10만 명 혹은 그 이상의 거주자가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

- 셋째로, 전문가란 무엇을 말하는가?

미연방 인구조사국에 의해 전문적인 것으로 분류된 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 사실, 자신을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미연방 인구조사국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여피에 관해서 알려진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공화당원이라기보다는 민주당원에 가까울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보수적이다(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신보수주의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의 보수성은 전체론적이지 않다.

그들은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지원하고, 동성연애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종교를 공립학교 밖으로 추방하기를 원하는 무신론자들을 후원하며, 군대 시설을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 인상과 정부 규제들 및 사회적인 지출과 뉴딜 정책의 의제들을 반대하려는 경향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다. 그들은 보다 더 성에 대한 자유를 원하고, 성별의 차이를 철폐하고, 여성들에게 동등권을 주려는 법을 원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폭 좁은 관점을 배척한다.

일에 있어서의 부머들

일에 대한 부머의 태도에 관해서 더 언급할 가치가 있다. 미국은 개신교 혹은 청교도의 직업 윤리관 위에 세워졌다. 이 윤리관은 다른 것들 중

에서도, 근면의 덕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윤리관이 부머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머들은 부모들을 “일 중독자들”—“일이 거기에 있다”는 이유나 “일이 성취감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부머들은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부머들에게 있어서 일은 기능과 형태를 가져야만 한다.

부머들은 일 때문에 일에 얽매이지 않으며, 목표 때문에 목표에 매이지도 않는다. 그들의 아버지들은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는 금언을 따라 일을 했다. 그러나 부머들에게는 일의 양질이 주요 단어가 된다. 그들의 금언은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은 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어떤 세미나 강사는 교회 일을 구덩이 파는 것에 비유했다. 감독이 일꾼들에게 구덩이를 파러 가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치워야 할 흙이 많이 있으니, 눈에 보이는 대로 흙을 파면 될거요.” 그래서 일꾼들은 삽을 가지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한다. 그들은 구덩이를 얼마나 넓게 파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깊게 파고 있는지, 심지어는 어느 곳에서 파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들은 단지 구덩이를 파기 위해서 팔 뿐이다.

목회도 종종 같은 식으로 묘사된다. 한 젊은 부머 목사가 부목사로 고용되었다. 그가 직무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자, 담임목사는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저 당신의 적절한 위치를 발견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는 그 젊은 목사가 나가서 영혼을 구령하고 병든 자를 심방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구덩이를 파는 일처럼, 하나님의 일은 어느 곳에나 있고 또한 끝이 없다.

담임목사가 일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나 이러한 것은 부머를 싫증나게 한다. 그는 직무 내용과 일의 생산성 규모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한다. 그는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원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성취해야만 합니까?

34세 된 부머가 구덩이를 파는 것에 대한 예화를 듣고서 이렇게 말했다

다. “얼마나 넓고 깊게 파야 할지와 어느 곳을 파기 원하는지 정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이곳에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구덩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또한 나는 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최고의 도구를 원합니다. 나는 백호(backhoe)를 사용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이 즐겁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열심히 일했다. 아마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의 저주와 같은 성경적인 오명에 영향을 받았을지 모른다. 남자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라는 생각에 일을 했는지도 모른다(창 3:19). 이전 세대가 종종 일을 본질적이지만 즐겁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던 반면, 부머들은 일이란 성취감을 주는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즐기려고 한다. 그들은 운동할 때나 조깅을 할 때나 근무할 때나 모두 열심히 한다. 그들은 성취감을 주는 것이라면 열심히 하지만, 그저 땀을 흘리기 위해서라면 열심히 하기를 거부한다.

우리가 부머들은 기능뿐만이 아니고 형태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옛날에 그들의 아버지들은 철 조각들이 널려있고 기름으로 미끌미끌한 바닥 위에서 아무 통 위에나 앉아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공장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부머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직무 수행의 목적들(기능)뿐 아니라 쾌적한 장소와 바람직한 환경(형태)을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진행 과정을 즐기기 원한다.

일을 할 때나 여가를 즐길 때나, 부머들의 아버지들은 낡은 셔츠를 입곤 했다. 그들은 활동을 위한 한 켤레의 운동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부머들은 다르다. 그들은 적당한 옷과 구두와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형태는 생산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가를 즐기는 면에서도, 그들은 테니스와 골프와 자전거 타기용 신발 외에 조깅용 신발, 걷기에 편한 구두, 라켓 구두 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신발은 그들에게 있어 생산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한 부머는

이와 같이 말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바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수행할 때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형태에는 직업의 도구들을 포함한다. 부머들은 완전을 추구한다. 그들은 완전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전한 도구들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모서리가 뭉개진 드라이버를 사용하려 하지 않으며, 전기톱을 써야 할 자리에 수동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최신의 도구인 컴퓨터, 계산기, 휴대용 전화기, 속기용 구술 녹음기, 음성에 의해서 작동되는 컴퓨터간에 적절한 도구들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워드 프로세서 기능을 갖춘 컴퓨터로 훈련된 비서는, 비록 가장 우수한 IBM 기종이라 할지라도, IBM 타자기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서는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부머들은 회사나 조직을 찬성하는 편이 아니다. 비록 그들이 성실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장 성실해야 할 대상은 그들 자신이다. 결국, 그들은 “나 세대”인 것이다. 그들이 회사를 위해서 중대한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나 사장이 설정한 목표에는 잘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함께 참여하여 설정한 목표나 목적에는 반응을 한다.

부머들은 집단 경영 팀의 주요 인물이다. 그들은 팀 접근법이나 분담된 지도력에 의해서 경영되는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세 가지 문구가 부머 중역을 묘사한다. (1)분담된 목표 설정, (2)분담된 문제 해결 (3)분담된 의사 결정. 사업상의 문제나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일하고 있는 부머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그룹 단위로 일을 한다.

그들의 아버지들은 사무실에 혼자 결정을 내리는 사장들이었다. 회의실은 단지 이사들과 만나는 장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심지어 전략을 세우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서들을 위한 회의실도 있다.

부머들과 교회

부머들의 자세에 관한 이 모든 사실들이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부머들이 지도력을 행사할 때 그들은 최신 장비와 기술을 원한다. 과거 교회학교 장부는 컴퓨터에서 입력된 서류로 대체될 것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장년반은 연령과 필요에 따라 나뉘는 것이며, 벽에 부착된 다양한 교수 자료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축초심방 전략은 웨슬리안 교회의 GRADE 프로그램이나 진도폭발 혹은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 시에 있는 교회성장연구소의 프로그램인 F.R.A.N. (Friends, Relatives, Associates and Neighbors-친구들, 친척들, 동료들과 이웃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들과 같은 과학 기술 중심의 프로그램들로 대체될 것이다.

부머의 자세들은 반드시 교회의 구조 속으로 들어 온다. 부머들은 종종 교회보다는 자신들에게 더 충성한다고 비난을 받는다. 그들은 보다 큰 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부머들은 주일 저녁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주일 저녁예배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그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주거나 그들의 생활 양식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또한 부머들은 기도회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기도회에 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그들의 부모들처럼 그렇게 충성스러운 것은 아니다. 만약 그들이 참석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머들은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직장이나 사회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처럼, 교회의 간섭도 거부한다. 그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원하며, 자신과 무관하게 결정들을 내리는 교회에는 일반적으로 참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과 무관하게 목표가 설정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법규들이 정해지는 그런 교회는 지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정하려 하기 때문에, “강단에 의해 지배되는” 교회보다는 “사람들에 의해 유도되는” 교회에 참석하려고 할 것이다. 부머들은 여름성경 학교에서 할 일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돕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투자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 가치있는 것이 보상으로 주어질 때 그 일을 할 것이다.

부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결의 열쇠가 되는 말은 이것이다. “그들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인가 가치있는 것을 원한다.”

부머들은 준비가 안된 지도자들이 이류급 건물에서 이류급 목회를 하는 교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부머들은 항상 최고의 것을 소유해 왔다. 그들은 최고의 탁아모와 텔레비전과 의상 및 최고의 학교 시설들을 소유해 왔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기준에 맞는 최고의 교회를 원한다.

그들은 목회자들이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음악은 조잡하고, 시설들은 낙후된 그런 교회에는 참석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전에 그들의 부모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것이다”라는 좌우명으로 살아갔으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음악인들에게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곤 했다. 부머들은 이러한 것을 이류급 사역을 위한 구실로 본다.

진지함과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은 최고의 것을 얻지 못한다면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부모가 가졌던 것 이상을 원한다.

교회는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머들은 그렇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영역에서는 보수적이지만, 또한 비전통적인 경향도 있다. 그들은 십일조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혹은 오래 전부터 그리스도인이 십일조를 냈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돈에 관한 강박적인 호소에 싫증을 낼 것이며, 죄책감이나 전통으로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지출된 돈에 대한 대가로 가치있는 것을 얻을 때에야 십일조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수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많은 부머들은 교회에 매

력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종종 가치를 보존하는 면에 있어서 사회의 보존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우리 조상들의 교회”와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같을 것이다.

역기능주의 시대

현대 생활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주의는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일반적으로 기대한 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동기에 있어서 역기능적이다.

지난 세대들은 그들의 집 뒤에 흐르는 개울 같은 인생을 경험했다. 그 흐름은 어느 곳에서나 분석될 수 있었고 화학적인 분석도 동일하곤 했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하루하루 동일한 생의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생의 요구들이 서서히 바뀔 때에만 그저 점진적으로 바뀌는 현상 속에 살고 있었다.

부모들은 생의 흐름에 있어서 역기능적이다. 현대 생활은 다른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다. 생은 이제 더 이상 집 뒤에 있는 개울물의 흐름과 같은 것이 아니라, 복합건물 안에 설치된 여러 다양한 풀장들, 곧 수영장, 온천탕, 뜨거운 욕조 따위와 같다. 이러한 물들은 다른 특질들과 목적들을 가진 구별된 경험의 한 단위이다.

현대는 너무도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손잡이 하나 잡을 수 없다. 텔레비전은 부모들의 생활 형태들을 반영하며 새로운 생활 형태를 창조한다. 3분 정도의 상업 광고에서 코카 콜라나 치질약 및 왁스와 유행하는 청바지 등이 나온다. 각 상업 광고는 그들을 한 “풀장”에서 또 다른 곳으로 쉼 없이 끌며, 새로운 감각의 경험들을 하게 만들고야 마는 새로운 충동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상업 광고를 통해 그들은 죄책감과 웃음 및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과 90초 안에 다 이루어진다. 이 결과 부모는 어떤 종류의 느낌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재빨리 감정을 적응시키는 것을 배워야만 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부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조절하는 역기능을 낳았다. 그들이 성경 교사에게로 향할 때에도 그들은 확신의 단절이나 종교적인 반응의 기복이 없이 그 경험에 계속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60년대의 젊은이들은 사회의 전통적인 구조가 그들의 필요나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느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두시위를 하고 폭력도 사용하며 그들의 자유를 과시했다. 우드스톡(일리노이 주 북동부에 위치한 한 소도시-역자주)은 미국의 과거에 항거하는 반항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부머들은 다르다. 여피들은 이피들이 아니다. 이피들이 중도 포기했을 때, 여피들은 미국의 풍습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참여해 왔다. 그들은 아직도 옛 구조들이 사회의 병폐를 고치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옛것을 벗어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여피들이 “개척자들”이 될 것인지 “식민자들”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들은 분명히 새로운 기관을 개척하고 새로운 관계를 창조할 것이다. 그들은 완고하며 권위주의적인 목회자를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위원회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청종되기만을 원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점을 조성할 것이다. 그들은 공허한 전통주의와 싸우게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길 수 없다면, 그들은 승복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가고 말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머들은 미래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기 원할 것이다. 형태와 기능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함께, 그들은 그들 자신의 도구들과 방법대로 전도하려고 할 것이다.

부머들은 성경적인 목적과 원리를 수용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이며 그의 교회를 섬길 것이다. 그들은 조상의 교회를 그들의 교회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과거의 교회는 그(주님)의 교회였던가? 미래의 교회는 그(주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12

새로운 예배 형태들: 동일한 초점

선택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들

역사적인 것

역사적으로, 신교도들이 이사를 가면 보통 예배 형태가 아닌 교리에 기초해서 교회를 선택했다. 예배의 형태도 중요하나 교리는 최종적으로 중요한 범주였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1)교리, (2)명성, 그리고 (3)교파순이었다.

대부분의 교파들은 교파적으로 교리적인 면이 일치하는 특징적인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장로교인들은 이사를 할 때 장로교회를 찾는 경향이 있다. 만약 그들이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하면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를 선택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게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장로교인들은 오순절교나 알미니안 신앙을 따르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적어도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택하려고 했음에 틀림없다.

교단적인 긴밀한 제휴는 사람들이 교회의 유산과 교회적 생활 방식 혹은 교회의 정책에 관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초교파적인 텔레비전 예배나 초교파적인 신학교에서 훈련된 목회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교파가 같은 교회들은 비교적 여러 가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도 대체로 잘 적응을 한다.

예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선택해 왔는가

1. 교리
2. 명성
3. 교파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거나 전통이 없는 교회는 선택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주요 교단”이라고 여겨지는 교파들 즉,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혹은 루터교 등의 교회를 선택해 왔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교파들이 말하려는 바를 알고 있었다. 알려지지 않던 교파로는 일반적으로 성결교, 템플, 오순절, 나사렛, 메노나이트, 성서교회 등이다. 주요 교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교파들이 한 종파나 무명의 단체 혹은 추방된 그룹을 의미했다.

현대적인 것

오늘날, 미국인들은 교파에 대해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 그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주로 그 교회의 예배 형태나 목회 철학을 중시한다. 사람들은 교파라든지 교리, 또 명성에 의해 교회를 찾지 않는다. 장로교인이라 해서 반드시 장로교 교리와 장로교라는 이름을 내건 교회만을 찾지는 않는다.

그들은 은사주의적으로 갱신된 교회에 참석하고, 등록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박수를 치고, 손을 들며, 복음사가 부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편안함을 느낄 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예배의 철학을 위해서 교리적인 선호를 승화시키고 그들의 전통을 포기한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변화는 교회와 상관 없이 다가오고 있다. 교회가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문화가 교회에 영향을 더 주고 있다.

우리의 문화 중 미국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추세, 그것도 소비주의적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교회가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문화가 교회에 영향을 더 주고 있다.

미국인들은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의복과 가구 및 자동차와 오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소비하고 있다. 소비주의는 텔레비전 상업 광고나 신문 광고 및 업계와 관련된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명백하게 드러난다. 소비주의는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사람들이 그들의 교회를 선택할 때 그들을 인도하는 추진력이 된다.

1840년대 산업혁명 이전에, 미국은 국민의 92 퍼센트가 농장에서 일하던 농경사회였다. 산업혁명을 전환점으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미국 문화는 전원 사회에서 도시 산업 사회로 발전되었다. 미국은 철과 자동차와 기계류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더 이상 생산하는 사회가 아니라, 소비자 사회가 된 것이다. 현재 우리 문화를 결속시키는 힘은 사고 파는 일이다.

미국 사회의 25 퍼센트 미만이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5 퍼센트 미만의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을 한다.

미국은 소비 생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나라다.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는 외판원, 서비스 기술자, 상담자, 경영자, 웨이터 등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간에 팔고 섬기면서 소비하는 사회의 이득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절에 즐기던 것은 백화점 등을 돌며 반드시 무엇인가를 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쇼핑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쇼핑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소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안락하고 즐길 수 있는 오락적인 것을 구입한다. 이처럼 미국의 신교도들은 그들을 지지하며 즐겁게 해주며 만족케 해주는, 또 하나님과 그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을 기초로 교회를 선택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는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교회의 예배자들을 소비자로 여긴다면, 우리는 교회 프로그램 메뉴로, 그리고 예배 형태를 식당에서의 주요 요리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배고픔을 채워줄 음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음식이 풍성한 나라에서의 소비자들은 메뉴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곳을 찾게 된다. 미국인들은 패스트 푸드나 중국 음식, 멕시코 음식이나 닭튀김 또는 스테이크 같은 수많은 종류의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다양한 소비자들의 선택은 그들이 교회를 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미국인들이 찾고 있는 교회 메뉴는 교리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예배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경향과 기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예배의 형태 즉,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가고 있다.

한 루터교 교인 부부는 은사주의적인 갱신을 시도하는 교회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극적인 권면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들은

이전의 루터 교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 독립적인 침례교인은 성경 강해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옮기기 위해서 그가 다니던 부흥회적인 교회를 떠난다. 그의 이전의 교회가 피상적인 반면에 새 교회는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한 오순절 교인이 “뜨거운 불”이 그의 생애에 전혀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모교회를 떠나간다. 그는 형식적인 전례가 그를 하나님의 엄위하심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루터 교회나 성공회에 속한 교회를 선택한다.

구세군 사령이 몸의 생활을 강조하는 형태의 교회의 소그룹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곳을 떠난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설교가 구세군에서와 같이 성결 중심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는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가 새롭게 발견한 관계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

현재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선택하고 있는가

1. 기능: 예배의 형태
2. 형태: 목회의 질
3. 교리: 삶의 양식에 영향을 주는 신앙

교회가 어떠한 예배의 형태를 갖든지 대부분의 성전은 드나드는 문이 두 개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 교회의 능력을 사모하며 들어오는 반면에, 기존의 사람들은 판에 박힌 것에 싫증을 느끼고 그들을 만족시켜줄 만한 교회를 찾아 떠난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교회”는 더 이상 교리적인 선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웨터를 사듯 “당신이 선택한 교회”는 당신의 삶의 양식과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선택 요인들은 하나님의 교리들을 극소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하나 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이 교회로 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확신

하고 또한 생의 목표가 될 만한 그런 교회에 나갈 때, 소비주의는 복음전도를 위해서 열린 문의 구실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배 형태와 목회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 이후로 신교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예배 형태가 있어 왔다 —“고교회파”와 “저교회파.” 그들의 기능적인 차이에 따라 우리는 전례적인 예배와 비공식적인 예배 형태로 언급할 수 있겠다.

전례적인 예배 형태는 일반적으로 영광의 찬가, 주기도문, 성가대 송영, 성경 교독, 목회기도에 대한 성가대의 화답송,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의 찬양 및 각 찬송가 끝에 아멘을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인쇄된 주보의 절차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공식적인 전례적인 예배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종교개혁은 교리는 바꾸었지만 예배의 형태는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공식적인 예배 형태는 종교개혁의 주류에서 나오지 않았던 교회 그룹들, 즉 공동생활 형제단과 침례교도들, 모라비안들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던 평범한 사람들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러한 예배 전통은 감리교도들이나 침례교도들 및 메노나이트들이나 형제회 등에 의해서 전수되었을 것이다.

이 그룹들은 보통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설교했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던 목회자들에 의해서 인도되었다. 그들의 설교는 감정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예화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언어로 가득차 있었다. “농부”의 “땀에 젖은 설교”는 부흥과 갱신을 요구했고, 그 반응으로, 참회자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다. 찬송은 풍부한 감정이 담긴 채 불려졌다. 그 예배에는 간증과 평신도들의 기도와, 어떤 그룹에서 “아멘”과 “할렐루야”를 소리쳐 외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배 형태에 따라 정의를 내린다면, 현재 신교에는 여섯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복음전도적인 교회. (2)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강

조하는 성경 강해 중심적인 교회. (3)성령님의 기적적인 은사들을 표현하는 일에 초점을 둔 은사주의적인 갱신 교회. (4)교제(코이노니아)와 관계와 소그룹에 초점을 둔 몸의 생활을 강조하는 교회. (5)전통적으로 전례적인 교회로서, 이 교회는 여전히 활동중이다. (6)평범한 사람들의 비형식적인 교회로서, 이 교회 역시 여전히 활동중이다.

여섯 가지 예배 형태

1. 복음전도적인 교회
2. 성경 강해 중심적인 교회
3. 은사주의적인 갱신 교회
4. 몸의 생활 교회
5. 전례적인 교회
6. 사람들의 비형식적인 교회

여섯 가지의 구별된 목회 철학들과 교회성장 철학들이 미국적인 여섯 가지 형태의 예배에 부응하기 위해서 출현했다. 각 예배 형태의 중심에는 교회를 결속시키는 여러 형태의 요소들이 있다. 대부분의 신교가 예배나 사역-기도, 찬송, 헌금, 설교 등-에서 동일한 것을 행하지만, 이러한 것을 행하는 방법이나 예배자들이 그것에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그것들은 구별된다. 각 사역의 형태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독특한 가치를 더해 주며, 그 예배 경험을 다르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바람직하다.

복음전도적인 교회

“복음전도적”이라는 용어는 복음전도를 위해서 축호심방이나 강단 초청 혹은 버스전도나 개인전도 등과 같은 활동들을 강조하는 사역의 형태를 묘사한다. 종종 “구령”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사역들은 복음전도적인 교인들에 의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교회로는 일리노이 주 사우스 배링톤 시에 소재한 빌 하이블 목

사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있다(하이블 목사는 나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나는 그의 교회를 다른 범주에 넣을 수 없다). 하이블은 그의 주일 아침예배를 “구도자 예배”라고 부른다. 그 구도자 예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그들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설교 주제들이 그들에게 호소력있게 전해진다.

우리는 복음전도적인 형태의 교회를 장로교회, 회중교회, 오순절교회, 침례교회 외에도 다른 교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파의 교리가 그들을 복음전도적으로 만드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복음전도적인 교회는 보통 (1)명상적이고 교훈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행동 중심이며 (2)강력한 목회 지도력을 가지고 있으며 (3)사람들이 회심하도록 설득력 있는 복음전도적인 설교를 전하며 (4)단순한 조직을 가지며 (5)평신도들이 복음전도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직되며 (6)성장 지향적이며(인원을 중시여김) 그리고 (7)강단 중심이다. 일반적으로, 설교와 특별 음악과 복음전도적인 호소 등으로 구성된 강단 사역이 이 교회의 성공을 결정한다.

성경 강해 중심적인 교회

이런 교회는 보통 성도들이 설교의 개요를 포착할 수 있게 오버헤드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회중들은 설교 내용을 노트에 적고 강해 설교를 따라가거나 스코필드 성경과 같은 주해 성경의 내용을 설교시간에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의 원어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 등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목회자의 지배적인 영적 은사는 가르침이다. 예배 시간에는 회중이 메모를 하거나 목사의 설교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교회는 보통 상류층이나 중류층에 호소력이 있는데, 대학이나 사무직 계층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볼 수 있다. 참된 성경 강해 중심적인 교회는 근로직 계층이나 남부의 가난한 백인 노동자 사회에서는 별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형태의 예배는 교파를 초월해서 침례교나 장로교

나 감리교나 독립교회 외에도 여러 다양한 교파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회를 이끌어 가는 목회자는 아마도 그의 설교 형태를 교단 신학교가 아닌 달라스 신학교나 탈봇 신학교 등의 독립적인 신학교에서 배웠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형태의 교회 운영을 어쩌면 네비게이트 선교회나 대학생 선교회 같은 몇몇 초교파적인 단체에서 배웠을지도 모른다.

은사주의적인 갱신 교회

이 교회는 보통 감정의 흐름에 의해서 묘사되어진다. 예배자들은 예배 중에 그들의 손을 자유롭게 들거나 기쁨에 겨워 박수를 친다. 그들은 찬양하며 강단으로 나가서 기도드리고 서로 껴안고 울고 웃는다.

그들은 신유의 능력 혹은 기름부음을 하고자 서로에게 손을 얹는다. 대부분의 은사주의적인 갱신 교회는 방언과 신유와 “지식의 말씀” 및 “영적 흔들림”과 통역 혹은 성령의 다른 표현들을 행한다.

스웨터를 사듯, “당신이 선택한 교회”는 당신의 삶의 양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모든 은사주의적인 갱신 교회가 오순절 방식이나 표적 은사들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표적 은사들의 활용 때문이 아닌, 예배 드릴 때의 갱신적인 형태 때문에 소속된 지방회로부터 압력을 받은 여러 명의 남침례교회 목회자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어떤 때는 이 교회들이 장년 교회학교를 중단하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예배 시간을 연장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압력이 들어왔다.

그 목회자들은 나에게 그들의 교리를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침례교인이었으며, 연합 사업을 지원하고, 표적 은사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 형태는 그 지역의 남침례회 연맹을 자극하고 있었다.

은사주의적인 갱신 교회는 장로교, 성공회, 카톨릭, 오순절교 및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독립교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학은 교회들을

분열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교리는 교회들을 서로 결속시키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마 “능력의 신학”이나 “부요의 신학” 혹은 오순절주의나 구식의 자유주의를 설교할지 모른다.

이 교회의 강조점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개인적인 갱신이다. 어떤 사람은 오순절의 둘째 축복이 없이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예배는 전례적인 예배 형식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사랑을 쏟아붓는 강렬한 경험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형식에 의한 전례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를 강조하는 반면, 은사주의적인 갱신 교회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에 초점을 맞춘다. 예배자들은 예배 시간에 가치 있는 무엇을 얻어야만 한다. 그 예배는 감동을 주며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그들은 예배를 좋아하며, 예배는 그들을 받쳐준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한다.

몸의 생활 교회

이 교회를 결속시키는 요소는 몸을 구성하는 소그룹이나 셀그룹을 통해 형성된 관계이다. 소그룹에서 목회적 돌봄이 있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몸의 생활 교회는 포옹을 많이 하며 투명함 즉 모임 때 열린 마음과 정직함과 돌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 가치를 둔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느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교회도 일반적인 교회처럼 설교, 찬송,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나 그들은 관계로부터 받은 양질의 삶을 높이 평가한다. 그들은 주어진 모임을 통해 간증하고 짐을 나누며 상처받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을 나누며 기도의 응답을 나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몸을 섬기는 것이다.”

몸의 생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강단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 대신에, 몸의 생활 교회 회중은 지원과 도움과 사역을 위해서 서로에게 의지한다. 이 교회는 몸 안의 코이노니아 혹은 교제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몸의 생활 교회는 침례교회, 복음적 자유교회, 독립교회 혹은 오순절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코이노니아의 영향력은 교파를 초월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교회 형태가 아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예배를 서로간에 혹은 수양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혹은 몸의 생활 형태의 목회자 밑에서 훈련을 하면서 배우게 된다.

전례적인 교회

이 예배 형태의 전통적인 형식은 이 장의 앞부분에서 다루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파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예배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상들이 불렀던 찬송가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전례적인 예배가 죽은 예배라고 느끼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그 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전례적인 예배자들은 감정에 좌우되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신 것이다.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복음전도나 배움이나 교제나 갱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사람들의 비형식적인 교회

이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반영하며 그들에게 말씀하는 설교를 원하는 교회이다. 그들은 경건한 설교를 원한다. 거기에서 어떤 가르침과 동기 부여와 갱신과 예배를 곁들이기 원한다. 목회자는 자신과 같은 무리 중의 하나로 목자이며 그들이 뽑은 사람이다. 이 교회는 권위가 사람들로 부터 멀리 떨어진 그 교파의 본부에 있는 “고교회”라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점에서 “저교회”인 것이다.

나는 이것을 침례교회라고 부르곤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의 전체적인 삶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자치, 자조, 자기 증식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섯 개의 모든 예배 형태들은 목회자나 교파보다 사람들에게 더 책임이 있다는 것과 교회학교, 훈련 프로그램들, 캠프들, 여름성경학교 및 그와 같은 것을 통해 사역을 한다는 의미에서 “침례교”일 수 있다. 목회자의 가장 주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목회)을 하는 것보다는,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이다.

왜 지금인가?

이러한 여섯 가지 형태의 예배와 사역의 철학은 지난 20 년 동안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빅토리아 왕조 때의 영국이나 식민지 시절의 미국이나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명백하지 않았다. 미국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해외로 퍼져나가기 전까지 이 여섯 가지의 교회 형태는 분명하지 않았다. 여섯 가지의 특질은 오순절 이래 모든 참된 교회에서 이미 발전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교회의 두드러진 특색과 형태에 의해서 교회가 특징지워졌으며, 이 강점이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왜 이 예배 형태들이 이제서야 다른 교회들과 어떤 새로운 교파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해답은 지난 40 년 동안 우리 사회의 두 개의 폭발적인 힘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요인으로는 (1)주간(洲間) 고속도로와 (2)컴퓨터화된 텔레비전 화면이 있다.

주간 고속도로 체제는 미국의 양 해안을 연결했던 대규모 교통 연결망이며, 25-50 마일(약 40-80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쇼핑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교통망은 각 주를 가로지르며, 모든 사람들이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들이 일터로 가거나 쇼핑하러 가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30 마일(약 48

킬로미터)이나 되는 거리의 교회를 가면서도 결코 거리를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지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식민지 시대의 농부는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교회에 가기 위해서 짐마차로 한 시간을 가야 했을지 모른다.

유선방송 텔레비전은 현대 통신을 대표한다. 사람들은 정보 전달 시대에 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교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유선방송 텔레비전, 지역 라디오, 교회 신문, 주요 신문, 옥외 광고 게시판, 그 외 다른 다양한 통로를 통해 창의적으로 알릴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언급해 온 다양한 종류의 예배에 관해 알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텔레비전에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이다. 보고 난 후 그들은 직접 그러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30 마일(약 48 킬로미터)을 운전해서 가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즐기고 매주 출석한다.

은퇴한 노부부가 매주 우리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50 마일(약 240 킬로미터)을 운전하며 온다. 나는 그들에게 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부인이 이와 같이 답변을 했다. “당신이 70세가 넘고 인생살이에서 이제 아무 것도 바랄 것이 없을 때,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그 주간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그 교회가 멀다고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일 저녁예배나 수요기도회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기 어렵다. 당신이라면 인생을 즐겁게 보내고 싶지 않겠는가?

영적인 동기

약간의 영적인 요인들이 이러한 여섯 가지 예배와 사역 형태의 배후에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영적인 은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목격해 왔다. 처음에는 방언에 관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신은 방언을 하는가 못하는가?

오늘날에는 방언이 70년대와 같이 그렇게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영적인 은사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이것은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와 “어떻게 나의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난다.

이러한 여섯 가지 형태의 예배를 통해 은사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영적 은사가 예배와 사역을 함께 이어준다는 것이다. 성경 강해 중심적인 교회는 가르침의 은사에 의해서 운영된다. 복음전도적인 교회의 명백한 영적 은사는 전도이다.

은사 집단화

사실상 각 교회들은 이 여섯 가지 형태에서 나타나듯 비슷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사의 집단화”라 한다.

유아기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주된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선택한다. 때문에 그들은 어떤 특정한 예배 형태에 대해서 편애한다. 그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 주위에 있게 된다. 이것은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을 피하거나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모르는 사람들을 피하려는 이기적인 것과는 다르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고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자신을 구별한다.

실로, 교회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자 찾아왔던 병원과도 같은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인생의 험난한 파도 가운데 있는 섬이며, 신자들이 안전과 평온을 얻고자 도피할 수 있는 천국이다. 이러한 “은사 집단화”로 인하여 각 교회들은 서로 그 특징과 유형이 판명되고 구별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은 컴퓨터화된 텔레비전 화면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그들의 은사들을 강조하는 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은사 인력 작용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찾는 원동력은 아마 그들의 의식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은사주의적인 갱신 교회나 전례적인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지 모른다. 그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 뿐이다. 영적 은사를 발휘하려는 욕구는 내적인 불안정과 같은 압력을 유발한다. 그리고 그러한 압력은 그들의 은사가 존중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활용되어지며, 그들의 은사를 활용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도록 한다.

은사 동화 작용

여섯 가지 형태의 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마지막 요인은 “은사 동화 작용”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교회 예배 형태를 좋아하지만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예배 형태들과 은사들과의 비교

예배 형태	지배적인 영적 은사
1. 복음전도적	전도와 예언
2. 성경 강해 중심적	가르침
3. 은사주의적인 갱신	권면(적극적이며 실제적인)
4. 몸의 생활	공화를 베푸
5. 전례적	도움(섬김)
6. 비형식적	목양

복음전도적인 교회를 예로 든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 강단에서 만나는 것을 즐긴다. 그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확신을 가진다. 그들이 영혼 구령자들을 중심으로 단결할 때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부담 내지 소망을 갖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영혼과 믿음을 나눌 때 전도의 은사가 자라는 것을 발

견하게 된다.

성경은 영적인 은사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전 12:31). 새신자들이 전도의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을수록, 그 은사는 성장한다. “은사 동화 작용”은 “은사 집단화”의 다양성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다.

설명

여섯 개의 예배와 사역들에 대한 관찰은 적용에 있어서 분명히 일반적이다. 모든 교회들은 이런 은사의 특징이 있으며, 그 어느 교회에서도 영적 은사 중 하나만 활용되고 있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두세 개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여섯 개의 형태는 너무 광범위해서 모든 교단에 적용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섯 가지 형태 모두를 남침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반면, 이 교회들 대부분은 여섯번째 형태, 즉 비형식적인 교회를 지향한다. 그들의 힘은 사람들이다.

자신의 영적 은사에 맞는 형태의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예배 행위에 그들의 신학을 승화시킬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교리를 약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성경의 명령들이 교리에 대한 인식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리가 이론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이며 기능적인 예배에 우선순위를 둔다.

결국, 예배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고 되풀이될 수 있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나 교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 세대주의를 믿는 믿음과 언약신학을 믿는 믿음의 생활 양식을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

여섯 개의 예배 형태가 여섯 개의 영적 은사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모두가 성경적이다. 즉, 모두가 옳다는 뜻이다.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잘못된 것이나 비성경적인 것이 없다. 이 책에 실린 교회들을 검토하면서 비록 각기 다른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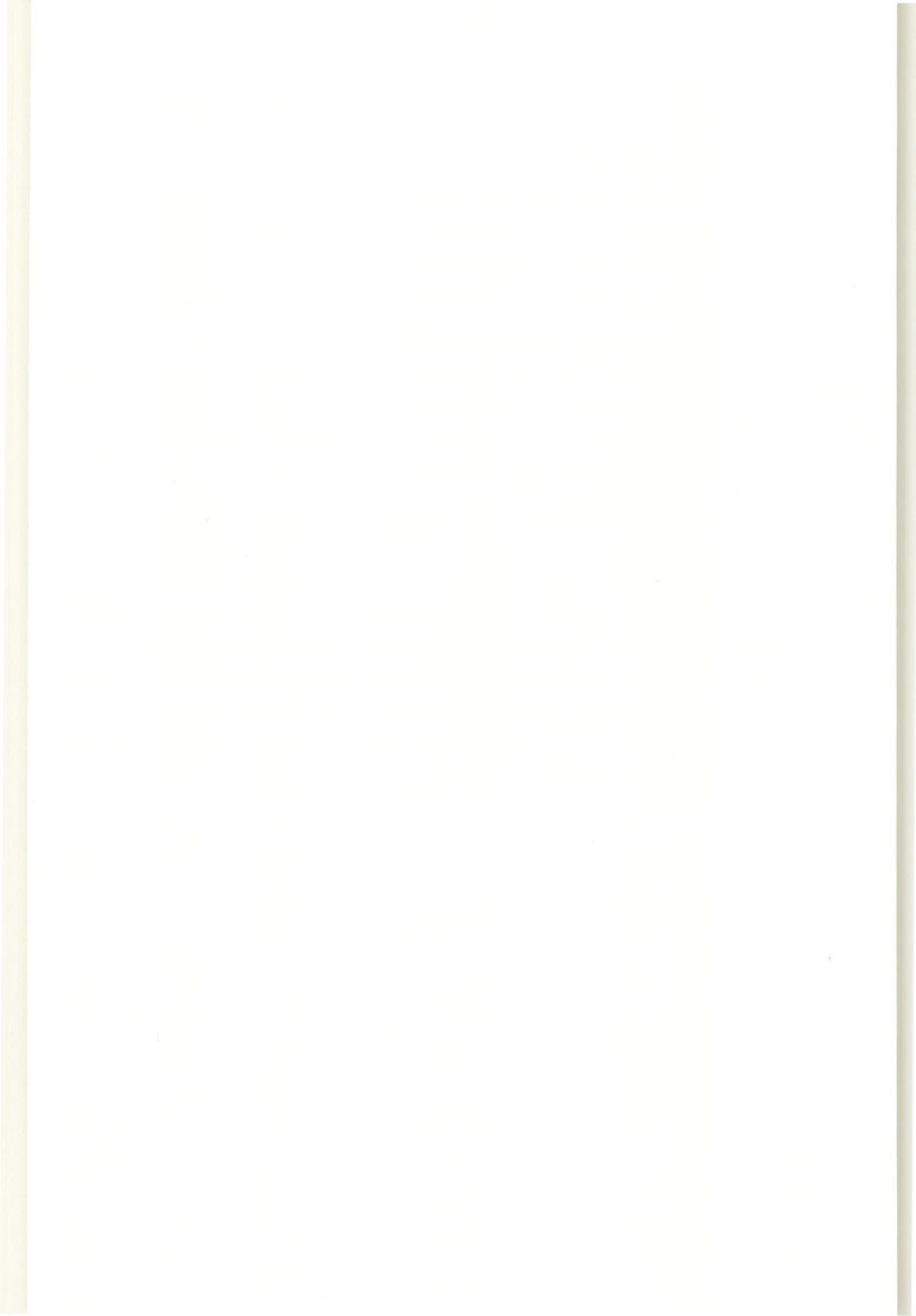
서적인 교회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그들 모두가 성경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더 관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다른 형태의 예배도 받으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자신의 형태만이 “옳은” 형태이며 “유일한” 형태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명백하게 예배 형태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조화라는 단어이다. 복음전도적인 교회는 강력한 성경의 가르침과 교제와 예배에 대한 조화를 필요로 한다. 이 책에 있는 각 교회는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부터 꽤 가치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사실상, 나는 이 책에 있는 열 명의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폭이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장점은 그들 자신의 주된 은사와 형태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이 목회자들은 그들의 방법만이 유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편협함이 없이 그들 자신의 은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순종은 다른 많은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그들의 이해가 있기에 필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빈다.



13

목회 지도력의 새 역할: 성직자에서 무장시켜 주는 사람으로

달 라스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의 담임목사인 W. A. 크리스웰 박사는 '미국의 10대교회 및 그들의 성장 요인(The Ten Largest Sunday Schools and What Makes Them Grow, 1969)'에 소개된 바 있다. 그 당시 크리스웰은 남침례회의 총회장이자, 6천 명이 출석하며 2만 명이 등록한 미국에서 가장 큰 남침례교회의 목회자였다.

크리스웰 박사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나의 진단에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나는 오랜 시무 기간을 가진, 그들의 교회를 성장으로 이끈 박력있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큰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성장하는 위대한 교회들은 당회나 제직회와 같은 "위원회에 매인" 교회가 아니라고 기술했다.

크리스웰 박사는 "나는 위대한 목회자들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평범한 목회자들이 평범한 교회를 세우고 약한 목회자들이 약한 교회를 인도

한다는 당신의 의견에 항상 동의합니다”라고 나에게 말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적인 지도력을 가진 목회자들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집사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교회는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이 결론을 맺었다. “목회자는 인도하는 목자요, 집사들은 섬기는 사람들이며, 최종적인 권위는 전체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장하는 교회들은 목회자가 강력한 목회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나의 의견을 부인했다. 그들은 내가 독재주의를 의미한다고 오해를 했다. 나는 목회자가 독재자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믿지만, 목회자가 회중을 이끌어가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믿는다.

독재적인 목회자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간혹 독재자들이 성장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이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지 않는다. 어떤 독재적인 목회자들은 경제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바를 성취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독재적인 목회자들에 의해 교회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어떤 목회자들은 탐욕과 권력과 무지로 인해서 교회를 갈라놓기도 했다. 아무도 독재적인 목회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해치고, 신자들을 해치며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치기 때문이다.

새로운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새로운 역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양 무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뿐인 구령자로 군림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구령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이끌 목회자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인도할 목회자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청지기직과 기도와 비전의 영역에서 교회를 이끌 필요가 있다. 모든 성도들은 성경공부와 섬김과 제자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이러한 회중을 인도해야만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이 목회자의 사역에 의해서 측정되는 강단 중심의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 강단 중심의 교회란 목회자가 주로 사경회 강

사나 전도자 혹은 예배의 촉매 역할을 하는 교회이다. 강단 중심의 교회에 있어 교회를 끌어가는 원동력은 강단이고 회중은 그저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일 뿐이다.

신약적인 교회는 목회자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목회자가 모든 교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은사를 교회 내의 사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한다. 성경은 모든 회원들이 사역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

신약적인 교회는 목회자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목회자가 모든 교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은사를 교회 내의 사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한다.

버지니아에 있는 한 침례교 목회자는 그의 교회에 등록한 모든 새신자들이 새신자반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영적인 은사를 결정하는 영적 은사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 사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데 필수적인 지도력 훈련을 받았다. 이 새신자들이 교회 입회원서에 서명을 할 때, 봉사에 대해서도 서명을 했다.

이와 같이 새신자를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인준하는 투표를 위해 그 대상자가 전체 교회 앞에 소개될 때 그 목회자는 회중들에게 그의 주된 영적 은사는 무엇이며 또한 그가 어느 부서에서 섬기게 될 것인지를 말했다. 이것은 “만약 당신이 이 교회에서 아무런 사역도 가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교회의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목회자는 그의 양무리에게 이 광고와 함께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첫째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사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로, 그들의 교회는 강단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적인 목회 지도력은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사역하는 그룹을 필요로 한다. 지도력과 따름에 있어서는 상호 관계가 있다. 만약 독재적인 목회자가 성경적이 아니라면, 그 때에는 그런 목자가 그들을 좌우하도록 방치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와 반대되는 상황도 있다. 목회자로부터 목회 지도력을 취하려고 다투는 회중이나 당회도, 또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목회자도 성경적이지 않다.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조화를 이룸으로 강대국이 되는 것처럼, 권위의 조화는 성경적인 큰 교회를 세우는 데 이바지한다.

지도력에 대한 말이 많이 있지만, 나는 다음 두 마디로 정의한다.

첫째로,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둘째로, 지도력은 여럿이다.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지도력은 조종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진술은, “지도력은 영향력이다”라는 첫번째 정의를 더 잘 알 수 있게 한다. 사실상, 목회자가 교회를 조종하려 할수록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작은 교회는 조종될 수 있으나 큰 교회는 조종될 수 없다.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업무를 자신이 직접 조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예산과 선거 과정과 결정 등을 조종한다. 그들은 자신이 조종할 때면 마음이 편하고 자신의 주장대로 할 수 없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나 지도력은 영향력이지 조종이 아니다.

왜 조종이 잘못된 것인가?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지, 목회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재정과 결정과 사람을 조종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 — 신자의 제사장직 — 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원리들에 의해, 그가 원하시는 것을 알리신다.

- 모든 신자에게 내주하시는 임재
- 모든 신자들이 성경에 접근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

- 배교와 육신의 죄로부터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 회원들이 갖는 책임. 바울이 고린도에서 회중에 속해있는 회원들에게 준 교훈(고전 5)
-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각 회원(고전 7:7).

목회자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가 하는 거의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그의 지도력과
관계가 된다.

목회자가 사람들을 조종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솔선하여 섬기려는 신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는 성도들의 독창력과 성장과 자발성 등을 질식시킨다. 그러한 목회자는 교회를 조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풀어놓을 필요가 있다.

조종이란 무엇인가? 나는 교회 건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던 한 목회자를 안다. 교인들이 다수결에 따라서 그 목회자의 재정권을 빼앗으려 했을 때, 그는 불같이 노했다. 그러자 교인들은 그 목회자를 목사직에서 파면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는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불행하게도, 그는 이렇게 건물을 붙들고 늘어졌다. 그는 건물을 차지했고 남은 사람들만으로 교회는 지속되었다. 다수는 그 교회를 떠났다. 엉뚱한 말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 목회자는 100대 교회의 교회학교 도표를 만들기 위해 통계를 내려던 나에게 정보 제공을 거부했던 목회자였다. 그는 통계를 강조하는 것은 비성서적이라고 말했다.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목회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수록, 그의 지도력은 훌륭한 것이다. 내가 처음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나는 친구 목사였던 웨스 헌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단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당시에 나는 내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목회자는 설교로 영향을 준다. 목회자는 사람들의 성장과 그들의 생각 하는 바에 영향을 준다. 그는 상담 사역과 자신의 결정을 통해 영향을 준다. 문제 해결 능력과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을 통해서 영향을 준다. 목회자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그의 교회 안에서 일거수 일투족이 그의 지도력과 관계가 된다.

지도력은 여럿이다

지도력의 두번째 국면은 첫번째와 분리시킬 수 없다. 지도력은 영향력 이고 지도력은 여럿이다. 우리와 지도자는 분리하여 바라볼 수 없다. 지도자는 이끌리는 사람들과 관계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그의 성도들과 관계되어야 한다. 목자는 양과 관련되어야 한다. 한쪽은 다른 쪽이 없이는 거의 혹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지도력이 여럿이라는 의미는 지도력은 당신이 사람들 “에게” 무엇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행함을 의미한다. 지도력은 외로운 일이다. 그러나 지도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목회 지도력은 당신이 회중 앞에서 어떤 때는 개척자로서, 또 다른 때에는 인도자로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에서는 이것을 “조준점”(walking point)이라고 부른다. 이 지점은 전투 중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이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총을 맞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지도자를 조준점이라 한 것은 지도자들이 교회 앞에 서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발사된 고사포가 지도자에게 명중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물론 당신이 조준 대상이 될 때 당신은 뒤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당연히 기대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가끔 회중이 목회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목회자는 조준 대상은 되지만 신자들은 따르지 않는 것이다.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자들의 부족한 지원을 비판해야 하는가? 신자들을 “겁쟁이”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려야 할 것인가?

그릴 수는 없다.

만약 신자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들이 목회자의 지도력을 거스르고 있다는 표시인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목회자는 자신의 견해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회중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 목회자가 사람들을 “앞질러서” 그들이 그 지도자를 따르지 않게 된다면, 이것도 목회자의 지도력이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다. 좋은 지도력은 교제를 불러 일으킨다. 만약 회중이 목회자의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이것은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리의 교회는 재정적인 위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재정적인 위기를 포함한 모든 위기는, 지도력의 위기인 것이다.

따르는 사람들이 없을수록 지도력의 문제는 덜할 것이다. 중국의 옛 격언이 지금도 적용된다. “자신이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추종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는 단지 지도자인 채하고 있을 뿐이다.”



14

새로운 구조: 비능률에서 경영팀으로

미 래의 교회는 사업과 같이 경영될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발언은 나를 두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업처럼은 되어야겠지만, 사업 자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어떤 교회는 세상의 사업과 다른 경영 방침으로 경영하고 있지만, 또 다른 교회는 사업을 경영하듯이 하나의 사역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나는 앞으로 교회는 순전히 사업이 되리라 본다. 단지 영혼을 위해서 경영되는 하나의 사업이 될 것이다. 교회는 상징과 판매와 비용, 자금 회계 및 직무 설명서와 기관의 목표 설정 등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70년대 초반에, 나는 “코카 콜라를 팔듯이 예수님을 팔라”고 말했다. 어떤 목회자들은 나의 발언을 심하게 반박했다. 그들은 신약 교회의 맥락 속에서만 예수님이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기도와 설교와 예배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필요한 전부라고 주장했다.

당시에 나는 복음전도에 대한 그들의 축소된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의 발언에 대해서 그들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중을 전도하라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주셨으므로,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리 포웰이 “나는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사역을 하며 대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일 아침 한번의 텔레비전 방영을 통해 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나의 발언에 신빙성을 부여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발명된 이래 교회는 코카 콜라를 팔듯이 예수님을 팔았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을 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계 복음화라는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단지 사업의 기술을 사용해 왔던 반면, 근래에는 예수님을 파는 사업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10 년 내에 다가오리라고 믿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나는 이미 많은 곳에서 교회가 하나의 사업이 된 것을 본다. 교회가 그저 사업적인 방법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사업 중심적인 우리의 문화의 직접적인 반영으로서 하나의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업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사업처럼 많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원리들은 보편적인 진리이며, 또 참된 원리들은 교회나 사업 양자에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란 문화나 역사 모두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원리는 사업뿐 아니라 가정, 학교, 정부, 교회 등 모든 기관에 적용될 수 있다. 교회가 목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술을 배울 때, 이러한 시도 자체가 사업으로 여겨질 수는 없다. 사업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효과적인 목회의 업무를 한다는 것과는 전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어떤 교회들은 이러한 선을 넘어서고 있다. 그들은 목회에서도 역시 하나의 효과적인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

사업은 금전상의 수익으로 측정된다. 좋은 사업은 때로는 즉시, 때로는 장기적으로 적어도 현대 사업가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수익을 가져오게 된다. 수익은 현대의 사업과 동의어인 것이다.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가 그의 고객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은 지나간 것 같다. 전에는 사업가가 성공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익을 나타낼 필요도 없었고, 그의 사업도 금전적 수익이라는 결론에 의해서 경영될 필요도 없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교회를 부르셨다면, 그 때에는 구제 사업이 지속되도록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회를 사업으로 만드는 한가지 요인이다. 교회성장의 권위자들은 교회는 여러 분야들, 즉 재정과 회심자들과 출석 및 수침자들과 회원 가입이나 등록 등의 영역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교회성장은 본래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교회성장에 대한 그릇된 표현들이 교회를 약하게 만든다.

“현상 유지 목회”라는 말은 전혀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묘사하는 데 부정적으로 쓰인다. 만약 어떤 사람이 현상을 유지하는 목회자라면, 그는 교회 성장을 이끄는 목회자처럼 존경을 받지 못한다. 교회는 사업의 방법들을 무비판적으로 또한 맹목적으로 수용해왔다. 이 말은 방법이 기도나 금식에 의해서 성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는 방법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성경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방법들은 사업의 목적에서 성장하며, 사업을 지금과 같은 독특한 문제로 만든다. 사업에서 쓰는 방법을 교회에 사용하기 전에, 그 방법이 사업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먼저 그 방법을 주의깊게 평가

해야만 한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교회는 갑자기 하나의 독특한 사업 문제가 된다.

한 예로 교회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용-자산 회계보고”를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세상적인 사업은 건물 사용료나 보험 및 우편 요금이나 직원 월급 등의 세목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산출해 낸다. 이러한 작업을 함으로 사업의 어떤 영역들이 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부서가 수익을 못 올리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수익이 곧 목표이므로, 만약 어떤 부서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려나가게 되고, 프로그램들은 대폭 수정을 하게 되며, 공장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해고되는 것이다. 그들이 충성스러운 고용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나가 버린 일이다.

비용-자산 회계보고는 교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할 때 필요할 수 있다. 만약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면, 이 프로그램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문제는 이것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교회를 부르셨다면, 그 때에는 구제 사업이 지속되도록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교회의 제직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가결했다고 해보자. 그들은 당초 시작 자체를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취소함으로써 죄를 범한 것인가?

재정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후원하던 일을 중단한 사람들이 실수를 한 것인가? 아마도 책망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당사자들일 것이다. 그들은 충분한 지원을 얻도록 그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했기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좀 덜 수가 있었는가?

이러한 접근 방법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 비용-자산 회계는 조직 속의 재정적인 누수를 찾아냄으로써 전체 목회를 구해낸다. 또는 교회를 사역 중심적인 기관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 필요할 수 있다.

교회가 사업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종될 때, 교회는 위험한 곳에 처하게 된다. 사업으로서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돌보며, 사역의 다른 영역들을 수행할 것이다. 사역의 효율성이나 사역의 넓이가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교회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교회는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해고하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기독교 사역이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을 보며, 세상의 일반적인 사업과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도 충성스러운 고용인들을 파면하실까”라고 당연히 물어볼 것이다. 신약 교회가 갑자기 “비용-자산 회계”의 기반 위에서 사역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사업으로서의 교회”가 고용인들을 향해서 자행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그들은 참기 어려운 작업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자유가 유보될 수도 있고, 치욕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다.

한 교회를 결속시키는 요소는 사업과는 다르다. 한 교회를 결속시키는 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의 사업-혹은 사업처럼 운영되는 하나의 교회-은 “회사 정책”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격한 제약과 징계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고용인들은 기꺼이 혹은 즐거이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강요당한다. “사업으로서의 교회” 정책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거나 “이것은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더라도, 사역을 결함시키는 요소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또한 그분이 각 사역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 것이다.

사역으로서의 교회와 사업으로서의 교회

사역으로서의 교회와 사업으로서의 교회 사이에는 조화를 이루는 면이 있다. 그러나 사역으로서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교회의 사업적인 방법은 무시하는 면이 있다. 이런 교회는 경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끝내는 사라진다. 한편 사업으로서의 교회는 직원들이 매주 40 시간씩 일하고, 마치 노동 조합원들이 집에 갈 시간이 되면 퇴근하듯이 작업량과는 아랑곳 없이 5시만 되면 퇴근하는 극단적인 면이 있다.

조화는 사업과 같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사역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으나, 사업과 같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사역은 사역이 아닌 것이다. 결론은 돈이나 수익이나 균형잡힌 예산이 아니다. 결론은 그것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사람들에게 대한 양질의 봉사인 것이다.

사역이 타협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들은 무시되지 않는다. 사실상, 교회의 좋은 조직은 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좋은 조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이다.

사업이 추구하는 바는 전 조직의 운영 목적이기도 한 수익이지만, 사업 그 자체 조직의 힘에 의해 결속된다. 그리고 사업을 강화시키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좋은 직무 설명서가 그 첫번째 요소다. 사람들은 직무와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때 사업을 번창하게 만든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는 모든 직책이 사업의 목표를 향해서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직무 설명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 일의 목표가 그 두번째 요소다. 때로는 “목적에 의한 관리”라고 불려진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에게 부여된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할 때에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것이다. 그 목표로는 기계에 연료 펌프를 설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보험 회사의 한 부서에서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의 목표는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

교회를 결속시키는 힘은 사업과는 다르다. 교회가 위의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회원들은 더 높은 소명이나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 사업이 고용인들의 충성을 유발시키고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동기(수익)나 내부적인 동기(직무 설명서와 일의 목표)를 사용하는 반면, 교회는 더 깊은 동기를 가지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 중심의 동기인 것이다. 교회 회원은 자기 안에 거하시며, 자신을 도우시고, 궁극적으로는 보상을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한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결속시키는 요소인 것이다.

교회가 직무 설명서, 일의 목표, 심지어 비용-자산 회계 정책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신다는 말은 감상적인 신비주의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외적인 목표이자 내적인 동기가 되며, 또한 탁월함의 기준이 되며, 궁극적인 보상이 되신다.

내가 다녔던 학교의 한 그리스도인 대학생은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알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힘인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항상 사업과 달랐는가? 교회의 일꾼들은 늘 더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고 더 많은 희생을 해왔던가? 목회자는 사고로 생명을 잃은 아이의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깨어나기도 한다. 충성스러운 교회학교 교사는 전도 대상자를 방문하기 위해서 과외의 시간을 사용한다.

목회자는 양무리를 위해 기도하려고 새벽에 일어난다. 이러한 희생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 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행해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중심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이자 동시에 조직임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의 유기체이기에 교회는 식물이나 몸처럼 성장한다. 유기체는 본래 성

장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유기체로서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또한 외적으로는 사무실, 직무 설명서, 예산, 공과 비평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 것이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교회는 IBM 이나 포드 자동차 회사같이 잘 조직되어야만 한다. 교회는 어떤 수익을 거두는 조직과 같이 잘 관리되어야만 한다. 교회는 결코 영성하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퇴화해서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못된다.

애틀랜타 북부에 있는 한 교회의 목회자는 사회적으로 신분상승을 꾀하는 여피들을 목회하고 있었다. 그 교회는 포장이 안된 주차장을 가진 옛 콘크리트 벽돌 건물에서 모였다. 목회자는 진부한 원리를 따랐다.

이 침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침내 목회자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는 10만 불(8천만 원)이 넘는 냉방시설을 갖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사역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와 같이 낙후된 시설의 교회에는 우리의 친구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수준에 맞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반드시 이 교회를 사업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동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려는 것이 라면,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5

새로운 결합: 교회에 등록하는 일에서 관계를 맺는 일로

이 책에서 다룬 10 개 교회는 공통적으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예배를 자랑한다. 교인들이 그 교회에 관해서 신이 나서 말할 때, 뭔가 갈급해하던 사람들은 깊은 영적인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게 된다.

외부인들이 이 교회를 방문할 때, 그들 역시 흥분하고 다시 찾아올 계획을 한다. 만약 다시 오기에 너무 거리가 멀면, 그들의 교회가 이 교회를 더 많이 닮기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거주지를 옮기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마음 설레이는 이 교제권 속으로 들어온다.

이러한 교회는 어떻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열정을 갖게 하는가? 평범한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흥미를 일으키지 못한다. 왜 그런가?

일반적인 교회는 교인이 되거나 “그들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마치 라이온스 클럽이나 보이 스카우트에 가입하는 것처럼 말한다. 교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마치 한 사람이 응당 해야 하는 일처럼 즉 하나의 의무로서 설명한다.

율법주의는 결코 회중을 흥분시킨 적이 없었다. 충성이나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 세상은 교인 됨에 대한 일반적인 강조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교회는 “교인 명부 이전”이나 “교회에 가입하는 일”이나 “교제의 오른손을 뻗치는 일” 등에 관해서 말을 한다. 이러한 말들은 이미 회심했거나 출석과 십일조의 동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평범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들이 이렇게 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합하는 과정

예전에는 교회에 “등록”한다거나 교회의 교제권 속으로 “동화”된다는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새로운 용어가 대두되었는데 그것은 “결합”이다. 어떤 사람이 현대 교회에 결합될 때, 그 과정은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접착제란 두 가지 물건을 함께 붙도록 하는 풀이나 고무풀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속하게 만드는 접착제였다. 그것은 등록한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강력 접착제는 단순한 접착제가 아니다. 이것은 두 개의 물건이 함께 붙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아주 들러붙도록 한다. 강력 접착제가 두 개의 물건의 표면 속으로 스며들어서 결국 양면이 녹아 함께 들러붙는 것이다. 이전에는 풀의 접착력이 약해지면 붙어있던 물건들이 떨어지곤 했었다. 그러나 강력 접착제로 두 개의 나무 조각을 붙이면, 강력 접착제가 접착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나무 조각이 박살이 날 것이다. 왜냐

하면 두 개의 조각이 하나로 들러붙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다룬 10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교회에 남아 있도록 만든다. 그 과정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설명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란되지 않은 눈으로 보기에 “결합”은 어렵게 보인다. 새로운 교인은 어떤 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교회에 충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가 그 교회에 오기 전에 있었던 교인들에 비해서 더 충성된다. 10 교회는 제각기 다른 방법과 단계로 “결속”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각 교회 상호간의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긴다 해도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결합”시키는 과정이나 성격도 비슷하게 된다.

한 사람이 교회에 결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이란 접촉과 구매와 소유하는 것이다.

- 접촉은 첫번째 단계로 교회를 알아보고,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회에 한번 나가보는 것을 의미한다.

후에, 새로운 교인들은 느낌이 전달되는 소그룹이나 셀그룹을 통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나누는 상호 작용에 참여케 된다. 그런데 이런 친근감 있는 교제는 교회 가입을 위한 전통적인 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구매는 두번째 단계로서, 마치 어떤 사람이 가게로 가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다. 구매의 개념은, (1) 필요, (2) 구매 욕구, (3) 정보, (4) 값을 지불함 등이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결코 어떤 것도 구입할 수 없다.

- 소유는 결합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세번째 단계가 된다. 구매란 소유권이 판매자로부터 소비자로 전환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 국면에서 허가와 권위의 실제적인 이양이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할 때, 교인이 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뿐 아니라, 교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들과 특권을 소유하게 된다.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교회가 더 이상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라고 느끼게 된다.*

새신자가 새 교회에서 “소유권”을 얻게 되면, 그는 그 교회를 위해서나 그 교회를 향해서 책임을 갖게 된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새 교회에 결합이 될 때, 그는 흥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예배의 기능과 교리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갖게 된다.

다른 교인들이 전염성의 열정을 소유하고 있음을 새신자들은 느낀다. 그리고 그 열정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 예배 형태를 선택(구매)하는 것이다.

“교리의 소유권”(지식)이 위의 단계에서 세번째에 있는 관심들 중 하나임을 주목하라. 순차적으로 볼 때,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교리를 선택(구매)하는 것을 “감정”이나 “헌신”을 선택(구매)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적인 새신자가 알미니안적인 교회일지라도 이 갱신(부흥) 교회를 선택(구매)하게 된다. 왜냐하면 신학은 그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세번째가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진짜 소유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등 시민이고, 나중에 교회에 온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고로 이등 시민이 된다. 그러나 미래의 교회에서는 결합 과정이 새 교인들에게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의 소유권 역할에 대해 알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결합은 강요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결합”이라는 단어를 신비적으로나 속임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합시킨다는 것은 교회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와 한 지역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이다. 결합은 생의 과정같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으나 그들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신자들도 소그룹이나 교회학교반에 동참할 수는 있으나 그들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다.

주요한 그룹에 속하는 것을 통해 결합됨

결합시키는 일은 새신자가 새로운 교회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상의 일이다. 새신자들은 교회의 어떤 주요한 그룹에 속할 때 그 새로운 교회에 가장 잘 결합될 수 있다. 주요한 그룹이란 교회학교반, 셀 그룹, 안내위원, 여성교회, 성가대 등과 같은 교회 기관들 중 어느 것이 될 수도 있다.

결합시키는 일은 장래의 교인들에게 교회에 출석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나 십일조를 요구하는 것이나 행동을 교정하는 것 이상의 일이다. 결합시키는 일은 그룹의 교제권과 그룹에 대한 가치와 그룹 사역에 몰두케 하는 일이다.

새신자들이 전체 교회나 혹은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는 많은 회중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보다는 주요한 소그룹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그룹이라면 어떤 그룹이라도 “주요한 그룹”이 되기에 무방하다. 새신자들은 자신을 큰 회중에 속한 필요한 한 부분으로서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은 그들이 이렇게 느낄 때에라도 결합시키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큰 회중에 속하는 일은 과정의 한 부분이며, 소그룹은 큰 회중이 없이는 적절히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새신자가 교회를 그만둘 것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 안내위원들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새신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자신을 소그룹에 비추어 볼 때, 그룹은 그의 “주요 그룹”이자 교회와 동일시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어떤 새신자는 성가대에서 알토로 노래를 할 때 결합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자신을 예배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보며, 그 예배 과정이 그녀가

존재하지 않고는 그 중요성이 감소될 것이라고 느낀다. 그녀는 소그룹에서 교회를 소유하는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은 더 큰 그룹에서는 경험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결합시키는 일은 장래의 교인들에게 교회에 출석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나 십일조를 요구하는 것이나 행동을 교정하는 것 이상의 일인 것이다. 결합시키는 일은 그룹의 교제권과 그룹에 대한 가치와 그룹 사역에 몰두케 하는 일이다.

결합이 발생할 때

결합은 종종 비언어적이며 새 그룹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관한 아무 공식적인 교육이 없을 때 발생한다. 이 말은 결합은 어떤 사람이 새신자반을 통과하거나 교회의 표결에 의해서 가입하는 절차를 밟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결합시키는 일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부터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결합시키는 일은 회심하기 전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결합시키는 일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와 새신자반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 발생한다. 왜냐하면 결합은 또한 회심한 이후의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곧 설명이 있겠지만, 비록 결합시키는 일이 과정일지라도, 이것은 회심과 동시에 일어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결합시키는 일은 “각인” - 생태계에서 새로 출생한 동물이 태어나거나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 즉시 그 동물에 응하는 대리인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그 자신을 소속시키는 행위 - 의 과정과 비슷하다. 노벨상 수상자였던 자연주의자 콘라드 로렌즈에 관한 유명한 사진 중에 새끼 오리들이 그의 뒤를 따라오는 장면이 있다. 그 새끼 오리들은 콘라드 로렌즈를 부모로 여기고 그들에게 자신을 내맡겼던 것이다.

새끼 오리들과 마찬가지로, 결합시키는 일은 이별을 극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그 새끼 오리들은 어느 곳이든 로렌즈를 따라다녔고 헤어져 있는 기간에도 관계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새로

출생한 동물 안에,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부모와 결합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신 섭리와 같다.

출생 후에 동물의 각인 과정은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과정은 새로운 소리, 새로운 냄새, 새로운 모습,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생활 양식의 습득을 포함한다. 연구에 따르면 생명체는 출생 후 2 주 동안의 그 어느 시간보다도 출생한 첫날에 더 깨어 있다고 한다. 이 사실은 출생한 동물을 결합시키는 일에 있어서 “경성된 시기”가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결합시키는 일은 “각인”—생태계에서 새로 출생한 동물이 태어나거나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 즉시 그 동물에 응하는 대리인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그 자신을 소속시키는 행위—의 과정과 비슷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새신자를 교회에 결합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적절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도달 가능한 사람에게 도달하라”는 말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이 말은 확신이 가장 강할 때 전도 가능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의미 이상의 뜻을 지닌다. 이 말 속에는 새신자가 회심하면 즉시 결합시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동물이나 가금들은 부모를 대리 부모와 동일시할 수 있는데, 특히 진짜 어미가 없거나 어미가 그들을 거부했을 경우에 그러하다.

결합, 회심 그리고 지속

어떤 새신자들은 회심할 때 개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관계는 지속된다.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회심을 경험하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교제 밖으로 떨어져 나온다.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설명하는 변수는 무엇일까?

1.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중생의 경험을 했기 때문인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고백하기만 했던 반면, 그들은 참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2.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적절히 교육을 받지 못했던 반면, 지속된 믿음의 사람들은 첫 단계인 새신자반부터 충분히 배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3. 지속된 믿음은 새 교회에 의해서 “필요 충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가?

4. 지속된 믿음은 새 교회의 명성과 회심 후의 조직적인 양육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가?

5. 지속적인 믿음은 새신자들이 새 교회의 교제권 안으로 흡수될 때 이루어진 강력한 결합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가?

아마도 위에 기술된 모든 요인들이 새신자들이 지속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합시키는 사역은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이 지속적인 믿음을 갖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 같다.

적절한 시간은 결합시키는 일에 있어 중요하다

적절한 시간은 결합시키는 일에 있어 중요하다. 새 생명은 독특한 준비의 상태에서, 또는 이미 표현한 바와 같이, “경성된 시기”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은 바꿔 말해 “영혼의 절기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시간은 감정적이며 심리적이며 생리적인 것같이 보인다. 그러므로, 결합시키는 일은 참여자들이 과정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할 때 가장 잘 발생한다.

새신자들은 결합시키는 일을 위해서 여러 경험들을 통과한다.

- 첫째로, 그는 자신이 죄인이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받아들였다. 이 경험은 보통 새로운 자아 인식과 자기 각성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자기 평가를 포함한다.

- 둘째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 사건은 대체로 그리스도를 생의 주인으로서 인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새로운 자기각성을 포함한다.

- 셋째로, 침례와 간증 같은 것을 통하여 강단 앞에서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경험에 있다.

대체로 이러한 요인들은 새신자를 개 교회 안에 결합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 안으로 진입하는 자아 인식의 급진적인 흡수 작용에 대해 요한복음 3:3-7은 출생으로 묘사를 한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요 15:1-5),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결합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지역적인 몸에서 사회적으로 결합하는 일 속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물 침례 안에서 반영되어지는 성령 침례인 것이다.

물 침례는 새신자가 그의 새로운 교회와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의 여부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결합시키는 일에 있어서 변수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새신자에게 침례 주는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보다 더 지속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일곱 번 접촉의 법칙

연구에 따르면, 새신자들이 2 주 내에 어떤 주요 그룹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내가 “일곱 번 접촉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법칙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 법칙은 어떤 교회가 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즉 예기되는 회심자들과 일곱 번의 즉각적이고 의미있는 접촉을 가지면, 그들은 다시 교회로 나오거나 회심하거나 교회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이 법칙은 교회가 다음 사항들을 실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 가능성 있는 사람과 즉시 접촉한다.
- 계획적인 양육을 하라.
- 조직적이고 다양하게 지속적인 접촉을 하라.

가장 접촉이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들을 그 교회에 결합시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입증되었다.

세 번 청취의 법칙

회심자들은 교회에 서너 번 참석한 후에 결합이 되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을 나는 “세 번 청취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교회에 세 번 나오게 한 후에 새 회심자나 새 교인의 가능한 결합을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 “일곱 번 접촉의 법칙”을 사용해야 한다. 두 법칙 다 그들과 관계를 맺는 교회 안의 어떤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철저한 양육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합되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수 있다. 왜 결합시키는 과정을 거부하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가끔 “사회학적인 충돌”이 발생한다. 다른 문화권과 계층의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이고 사회 계층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간 기간이 지난 이후에 떨어져 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곧 떨어져 나간다.

16

새로운 소재지: 하나의 교정 목회에서 여러 개의 교정을 가진 교회로

전 통적인 미국 교회는 보통 조그만 땅 위에 세워진 작은 건물로서 생각되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걸어서 교회로 왔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들의 말과 마차를 매어놓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필요 없었다.

전통적인 미국 교회는 다른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대체로 다른 교회의 “영역”을 존중했다.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구 교회

도시의 의식구조와 “목회에 대한 소비자 접근법”의 출현과 함께, 필자

가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구 교회”라고 부르는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 시작되었다.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구 교회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감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낳게 된다.

- 여러 장소에서 만난다.
- 다른 여러 장소에서 다른 사역들을 한다.
- 더 큰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처소를 확장한다.

이 개념을 묘사하는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목회
- 목회를 위한 여러 장소
- 여러 명의 교역자
- 하나의 중앙 조직과 한 명의 담임목회자

다양한 목회, 목회를 위한 여러 장소

새 경향

조지아 주의 애틀랜타 시에 소재한 페리미터 교회는 대도시의 폭넓은 세층을 인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애틀랜타의 북부에 있는 주간 고속도로 275번을 따라 여러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다. 이 책에 실린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와 진행하는 교회도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구 교회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또 다른 정의에 의하면, 광대한 지역에 걸쳐 가정에서 모이는 셀그룹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구 교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중앙 커뮤니티 교회,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쉽 교회,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미 본 것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주 밴나이스 시에 있는 진행하는 교회는 0.25 마일(약 400 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큰 교회인 제일 침례교회의 시설들을 매입하면서 급속하게 확장되었고, 이어서 확장된 지역적인 교구 교회가 되었다. 1969년에 제일 침례교회는 매주 2,847 명

의 평균 출석률을 기록하면서 미국에서 여덟번째로 큰 교회로 알려졌다. 그 교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백인 상류층으로서 교육을 잘 받았고 헐리우드에서 불과 몇 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난한 흑인들과 멕시코계와 몇몇의 동양계 사람들이 이 지역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근 주민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제일 침례교회는 그 교회의 상류층에 초점을 맞춰 목회를 하였기 때문에, 교인들을 따라서 서쪽으로 10 마일(약 16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했다. 진행하는 교회가 이전의 제일 침례교회의 시설들로 확장을 하게 되자, 이 교회는 2천 석의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새 교회들은 그들의 울타리와 주요한 교정을 넘어서고 있다. 그들은 사역을 “예루살렘” 전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지역적인 경계선들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옛 경향

반대로, 과거 대부분의 교회는 하이랜드 파크 교회나 회중 교회처럼 도시의 한 지역에 위치했다. 이러한 형태의 교회는 도시의 전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도시 곳곳에 교정(예배당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 교회 구내) 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세워 가지를 치지 않았다.

여러 명의 교역자, 그러나 하나의 중앙 조직과 한 명의 담임목회자

새 경향

다음 세기에 어떤 교회들은 목회를 위해서 가지를 뺏어나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확장된 사역을 위해서 여러 지역을 접합하는 한 교회가 남게 될 것이다-이것은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구 교회의 개념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교회는 다수의 직원, 여러 장소, 다양한 사역, 단일 정체, 단일 조직, 단일 목적, 단일 지도력을 가진, 모든 지역의 전체 회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어떤 그룹도 다른 그룹을

조종할 수 없고, 어떤 그룹도 교회의 재산을 회수하거나 가르거나 보류할 수 없는 반면, 개인들은 어느때나 사임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는 자신들을 단일 목적과 핵을 가진 한 몸으로서 생각한다.

랜디 폼은 조지아 주 대도시 애틀랜타의 순환 고속도로에 많은 교회를 개척할 비전을 가지고 페리미터 교회를 시작했다. 애틀랜타의 또 다른 지역에 위치했던 각 회중(소그룹을 일컫는 이름)은 한 교회(통합된 그룹을 일컫는 이름)의 일부분이었다.

새 교회들은 그들의 사역을 “예루살렘” 전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지역적인 경계선들을 확장하고 있다.

여덟 회중을 시작한 후에, 폼은 한 교회의 구속을 전제로 해서는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래서 여러 회중들이 여덟 개의 지역적인 독립 교회들의 “초교회” 조직인 페리미터 크리스천 목회 법인체(Perimeter Christian Ministries, Inc.)로 재조직되기에 이른다. 이 여덟 회원으로 구성된 “초교회” 조직의 기초는 개혁 장로교회 교리가 아닌 그들 특유의 새 조직과 형태, 그리고 그들만의 고유한 예배방식에 있었다.

각 교회는 같은 방식을 갖출 새 교회를 개척한다는 우선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들 총수입의 5 퍼센트를 기부한다. 그들은 명백하게 같은 믿음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이 새로운 “교파”는 신학이 아닌 방법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있다.

옛 경향

과거에, 큰 교회들은 여러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속 예배당들”(혹은 전도소)을 세웠다.

이 부속 예배당들(전도소)은 모교회에 의존하는 자치권이 없는 그룹들이었다. 하나의 “부속 예배당”(전도소 혹은 지교회)이 충분히 강해졌을 때, 하나의 독립 교회가 되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구 교회는 구성에 있어서 다르다. 그 교회의 어떤 부분도 지배당하지 않으며,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회생시키며 행정을 하거나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 각 그룹의 모든 회원들은 신분과 영향력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과거에는 한 목회자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교회를 목회하는 “순회 교구”가 있었다. 감리교의 순회 설교자가 한 예다. 이러한 제도는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자치적인 교회들로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교파적인 동맹에 의해서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순회 교구” 조직에 속해 있는 각 교회는 평신도에 의해서 인도되지만, 사역은 파트 타임 봉급을 받고 있는 목회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구 교회들은 정반대의 하부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로, 평신도보다는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인도되고 있다. 그들이 강조하는 바는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인 것이다.

각 교회는 그 자신이 교파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구 교회의 각 부서는 지역적인 사역과 모습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각기 지도력(풀 타임 혹은 파트 타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 운영은 중앙 조직이 있어서 같이 해나갔다. 이러한 구조는 전통적인 교파 구조보다는 본사와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과 비슷한 성격이다.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구 교회는 하나의 작은 교파나 극소형 교파로 묘사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회는 하나의 지역교회로서 자기 충족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에 교파 본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혜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구 교회는 교파적인 교회들의 집단이나 교회들의 협의체와는 다르다. 이 교회는 모든 부분들(교회들)을 위한 단일 행정 기관을 가지고 있고 연합된 목회와 비전과 일치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단일 직원들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구 교회 중 하나가

미혼모들을 돌보아 주고 새 분할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이것은 마치 전 교회가 한 교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다.

각 부분의 영구적인 연합은 각 부분에 의한 사역의 지속성을 보장해 주며, 따라서 총체적인 사역이 전 교회의 연합된 사업이 된다. 이러한 연합은 직원과 프로그램과 자원의 불필요한 중복을 배제시켜 준다. 즉 하나의 컴퓨터 조직과 하나의 회계 사무소와 하나의 사무실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게 된다. 이러한 연합은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적 은사를 제공할 수 있고, 목회 안에 더 강한 영향력을 제공할 두터운 재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성경적인 토대

사도행전은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구 교회를 위한 성경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지만(행 8:1), 이 교회는 여러 부분으로, 혹은 여러 구성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한 단위로 묘사되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행 4:32). “무리”라는 단어가 단수인 것에 주목하라. 그 교회는 하나의 존재였다.

그럼에도 후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행 5:14)라는 말이 있다. 여기의 “무리”는 하나의 존재 이상을 묘사하는 복수인 것이다.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계층이나 그룹들이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의 큰 그룹과 많은 작은 그룹들(셀그룹)이 있었다. 지도자들은 집에서 집으로 순회했다. 이것은 아마도 축호전도도 “각 회원을 권유”하는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각 셀그룹은 교제와 사역을 위해서 다른 집에서 만났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명백하게 큰 모임이나 축제에서 주의 만찬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만나는 소그룹이나 셀그룹들 속에서 주의 만찬을 들었다(행 2:46).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큰 그룹은 축제와 설교와

동기 부여 및 간증 등을 위해서 만났으며(행 3:11), 셀그룹은 교제와 책임과 교훈과 일치를 위해서 만났다(행 5:42). 이러한 관찰을 통해 나는 신약 교회를 위한 표준은 작은 모임들과 큰 모임들로 구성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대예배를 통한 큰모임과 가정예배 분반공부, 교회학교 등을 통한 작은 모임—이 두 형태의 모임이 곧 신약교회를 위한 표준이 될 것이다.

전통적인 미국 교회의 주일 오전예배는 큰 그룹들을 통해 드러진다. 소 그룹들은 주로 교회학교에서 행해진다. 그러나 새로 출현하는 교회들은 소그룹으로 주중 야간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기타 목회적 상담이나 친교 모임에서 만나고 있다.

여러 교회들이 그들의 작은 그룹들 속에서 각기 다른 강조점들을 가지고 있다.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와 같은 교회들은 교제를 강조한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는 성경 공부를 강조하며,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십 교회는 예배를 강조한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같이 여러 그룹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그룹들은 잘못 나뉘어져 있었다. 한 그룹은 바울을 강조하고, 다른 그룹은 아볼로를, 자칭 영적인 그룹들은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했던 것 같다(고전 1:12). 또 다른 그룹은 베드로를 강조했을 것이다(3:22).

고린도에 있는 여러 소그룹들 혹은 가정 교회들은 나누어지는 데 한몫을 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지도력 대신에, 그들은 명백히 지역적이며 인종적인 선 때문에 나누어졌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는 고린도 교회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들의 교회에도 문안한다(롬 16:4,5). 그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4절)에 관해서도 언급한

다. 이 교회는 주로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이방인의 집에서 만나는 가정 교회나 셀그룹(동질 단위 원리)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또한 로마(롬 16:16)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로부터 문안을 보낸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용어는 유대인 신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이자 유대인들의 소망인 “메시아” 혹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에 상당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고린도에서 유대인 가정 교회들-다시금 동질 단위 원리를 나타냄-을 묘사하는 데 쓰였는지도 모른다.

바울은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롬 16:23)로 결론을 맺는다. 여기서 교회란 유대인과 이방인 가정 교회들로 이루어진,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구 교회인 전 고린도 교회에 관한 묘사인 것이다.

요약과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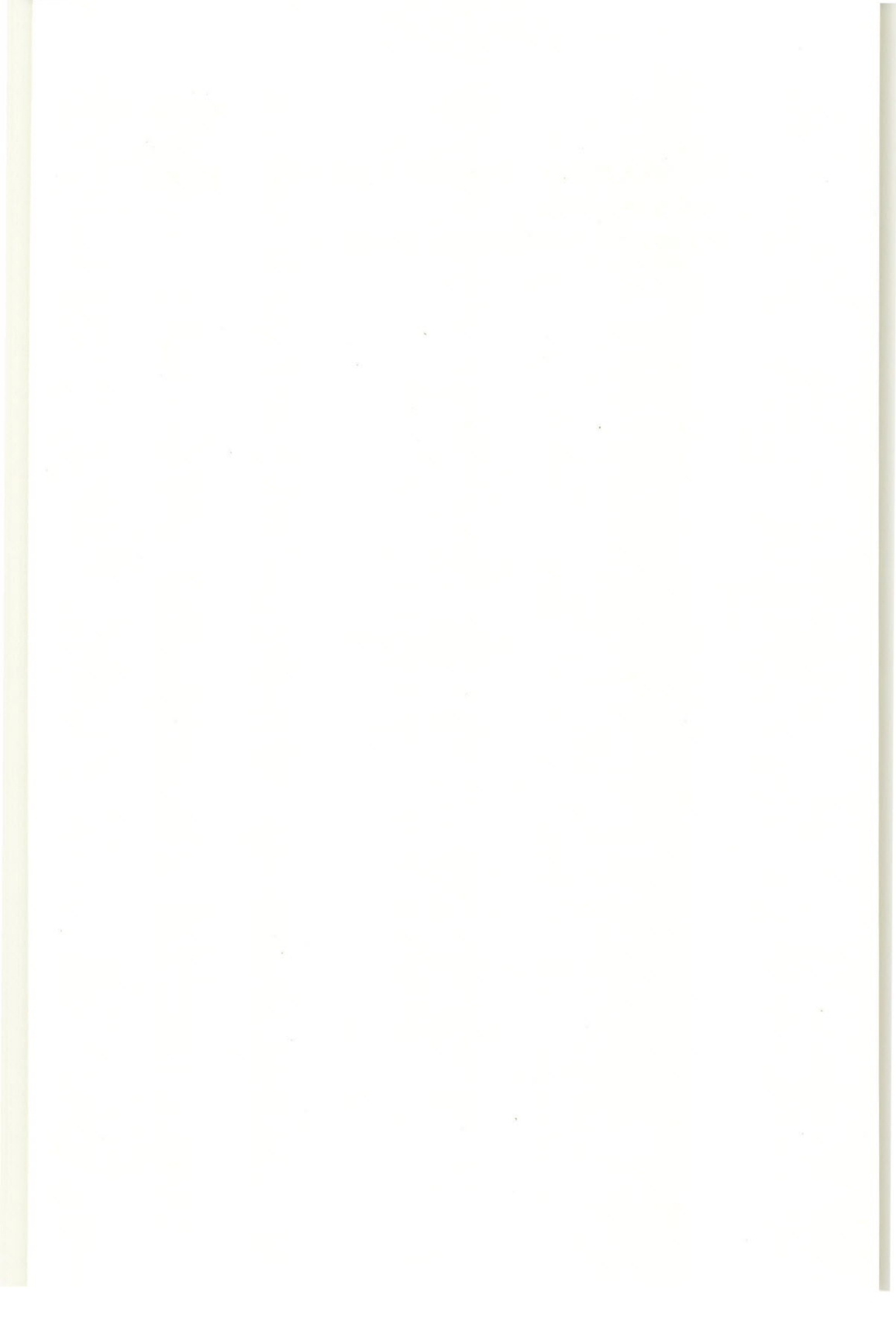
거의 2,000 년 전에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회를 개발하기 위한 초기의 이런 시도들은 보통 여러 교회를 관할하는 감독들로 끝을 맺는다. 모교회는 대체로 주교좌 성당이 된다. 다른 시대에는 이러한 시도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의 거대 조직 아래에서 모두 통합되어 있는 교파적인 교회들로 끝을 맺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를 세우려 했었으나, 결국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다. 만약 현재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면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30년 전에는 결코 발생할 수 없었던 변화를 하면서, 분명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아마 이러한 변화들은 현재의 시도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현재의 지역적으로 확장된 교회들은 두 개의 혁신들, 즉 교통 수단과 통신 수단의 산물이다. 우리가 전화와 컴퓨터와 팩스와 모든 종류의 매체를 가지고 교회의 구조와 목표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초대형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가능하다. 또한, 주간 고속도로와 자동차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초대형 교회는 여러 지역에 세울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기동력에 의해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교회들은 우리 시대의 산물이다.

의문은 남아있다. 이러한 교회들은 신약의 산물인가?



17

새로운 교파들: 신학에서 방법론으로

이 책에 수록된 새로운 형태들의 교회가 실제로는 새로운 교파, 즉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집단이나 친교권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해 놀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새 경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옛 교파들의 형성을 촉진했던 것과는 다른 영향력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옛 교파들이란 “주요” 교파들과 복음주의적인 교파, 즉 심지어 근본주의 안에서 형성된 교파들까지 포함한다. 새 교파들이란 최근에 형성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다른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며, 다른 표준에 의해서 고찰되어야 한다.

만약 과거의 주된 교파들이 T 모델 포드 자동차와 같다면, 복음주의적이거나 근본주의적인 교파들은 맵시있는 썬더버드와 같다. 그러나 이 차들은 같은 차종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휘발유를 많이 소비한다. 반면에 새 교파들은 헬리콥터 등의 전혀 새로운 교통 수단과 같다.

결합시키는 요소

옛 교파들

옛 교파들을 묶어주는 주요한 축매는 교리적인 독특성-비슷한 신학 때문에 교제권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한 무리의 교회들이었다. 교리의 내용은 한 교파의 존재 이유를 대변했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교리적 진술이 없었던 교회들도 최소한 비슷한 해석학이나 성경 해석법이나 기독교에 대해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것 등에 의해서 결속되었다.

경우에 따라 교파들이 신학의 다른 면 때문에 두 개의 새 교파를 만들어 분열되었다. 교파들을 함께 묶어주는 요소는 사실상 교리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교리나 교단을 보고 교회를 택했다. 장로교인에게 있어 이 영원한 안전과 언약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오순절교인은 “둘째 축복”-두번째 은혜로 성화된다는 견해-에 대한 견해를 가진 교회를 선택하게 된다.

사람들이 교단의 선을 넘어서는 때에는 그들이 먼저 새 교회의 신앙을 연구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슨 교리를 가르치는지, 성경적인 교리인지, 그리고 그들이 믿는 바와 그 교리가 일치하는지 분명히 하기 원했다. 칼빈주의자를 알미니안 교회에 참여하도록 바꾼다는 것은 “하늘의 행위”를 요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교파에서 다른 교파로 바꿀 때, 다시 침례를 받고, 성경공부에 참여하거나 교회 제직회나 목회자에게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상담을 했다. 목사나 로마 카톨릭 사제는 길을 잘못든 배우자가 그의 교회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이교파적인 그들의 결혼 주례를 종종 거부했다.

교파적인 논쟁의 양측에 의해서 장애물이 세워졌다. “좋은 침례교인들”로 만들기 위해 많은 목회자들은 반(反) 장로교적인 가르침이나 설교를 했다. 침례교인들과 장로교인들은 침례의 형식을 놓고 논쟁을 했고, 양측 모두 자신이 옳고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며 서로를 부정했다.

만약 장애물이 그들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었다면, 한편으로 그 장애물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을 “바른” 교회 편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6 피트(약 1.8 미터) 높이의 쇠사슬로 엮어진 담을 세우고, 그 위에 쇠철망을 얹어놓는 것과 같다. 세 줄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안쪽으로 휘어져 있고, 세 줄은 염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었다.

새 교파들

우선, 교리적인 진술이 교파의 존재 이유를 대변했다. 오늘날은 방법론이 교회를 묶어주는 요소가 된다. 목회의 내용들은 교회들과 그들의 교파가 필요한 이유를 정의한다.

과거에는 교리 때문에 분열했지만, 오늘날 어느 교파는 방법론 때문에 분열한다. 그리고 이 현상은 척 스미스와 존 워버의 목회를 통해 성장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두 개의 교파가 설명해 주고 있다. 척 스미스는 1965년에 캘리포니아 주 코스타 메사 시에서 갈보리 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갈보리 교회가 매우 성공적이었음이 입증된 후 곧 비슷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먼저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되어 그 다음에는 캘리포니아 주 밖으로까지 퍼져 나갔다. 그래서 대부분 서부의 주들 안에 산재해 있다.

존 워버는 80년대 초기에 남가주 갈보리 교회 운동에서 척 스미스와 함께 사역을 했다. 워버는 갈보리 교회의 “유연한” 은사주의적인 형태에 마음이 끌렸다.

갈보리 교회는 새로운 예배의 신선함과 후렴 찬양과 성경 강의와 경건한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워버는 “이적과 기사들” 운동에 의한 교회 성장에 더 헌신되어 있었고, 그는 예배중에 기적적인 은사가 더 표현되기를 원했다. 반면에 스미스는 “신유”와 같은 생생한 오순절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교파 출신이었는데, 그는 교회에서 이러한 기적적인 은사가 표현되는 것을 원

치 않았다. 그러나 존 웹버나 척 스미스 모두 현대의 신유와 방언과 표적 은사를 믿고 있으며, 또 은사주의적이고 성결 중심이었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단순히 예배의 형태와 표현이다.

그들은 헤어졌고, 웹버와 함께 떠난 사람들은 바인야드 헬로우십의 일원이 되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스미스와 함께 갈보리 채플 헬로우십의 구성원이 되었다. 오늘날 두 개의 강한 새 “교파”가 있다. 이 두 개의 “교파”는 서로 다른 방법론과 목회의 표현들로 비롯하여 생겨났다.

현대 미국인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자신이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는 걸치레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진실을 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안에서 가장하기를 원치 않는다.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운동들 혹은 새 교파들은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목회자 수양회를 통해 그들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캘리포니아 주 선 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회자인 존 맥아더 박사는 “목회자 수양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강해 설교와 장로 지도력 - 필자가 성경 강해 중심적인 교회(12장 참조)라고 부른 - 을 택한다. 맥아더는 이 방법을 영속시키기 위해서 마스터스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 방향을 주기 위해서 “마스터스 헬로우십”이라 칭하는 새로운 중앙 조직을 통해서 행정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제리 포웰은 70년대 말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의 슈퍼 컨퍼런스(Super Conference)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 린치버그 침례대학은 본래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특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학교는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한 목표를 가진 기독교 종합대학이 되었다. 포웰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리버티 침례교회회를 조직했으며, 외국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리버티 침례선교회를 조직했다.

단단한 중심, 유연한 테두리

이렇게 생기는 교파들은 비슷한 전도 방법이나 예배 형태를 가진 교회를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수양회에서 제시한 원리들은 이러한 매력력을 위한 촉매가 되었고, 이러한 원리들은 “충만한 교제”를 실천하지 않는 교회를 멀리하게 만든다. 이러한 운동의 단단한 중심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목회를 측정하는 표준들”이다.

이 교파의 지도자들과 수양회 지도자들은 대체로 전제적이고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욱 기능적이라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은 비성경적이고 구식이며 배교적이고 실행할 수 없고 기름부음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부정한다. 자신의 독특한 방법이 사역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지만 그들은 대체로 자신의 방법을 최상의 형태의 사역으로 제시한다.

사실 이러한 편협성은 일반적으로는 이단이나 종파적 분쟁이 일어날 때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배타와 편협이 발생하면 지도자들은 결국 새로운 교파를 형성해 떨어져 나오게 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 수양회를 조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방법이 최상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또 성서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새로운 교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끊임으로써 어린 아기처럼 쑥쑥 성장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이 고안한 생각들을 위해서 헌신한다.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할 때” 자녀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최근에 발견한 방법들이 다른 지역에서 성장하는 것을 봄으로써 스스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다.

소비주의에 의해서 교단을 선택함

새로운 교단들은 기능이나 형태를 강조하는 소비주의의 경향을 반영한

다. 일반적으로, 미국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의 소망을 표현하는 교회를 찾는다. 교회 소비자는 그가 믿는 바를 명령하려는 교회는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원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그의 자녀에게 심어주며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교회를 원한다. 현대 미국인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자신이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는 걸치레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진실을 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안에서 가장하기를 원치 않는다.

편안한 지대를 우선적으로 여긴다

편안하다는 것은 주요한 단어이다. 현대 미국인들은 예배와 교회 형태가 그들의 삶만큼 편안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감촉이 좋은 스웨터를 입기 원하는 것과 다르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그의 심령을 정직히 표현할 수 있고 그에게 의미있고 확신되는 것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편안한 예배”를 원한다.

새로운 교파들은 교회의 예배 및 전도적인 혹은 양육하는 형태들의 기폭제이다. 그들에게 교리가 중요하지만, 교회를 결합시키는 요소로서나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매력에서 볼 때 교리는 부차적인 것 같다. 여피들과 같이, 새 교파들은 이처럼 독특한 형태에 끌리는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편안한 지대”를 공유하는 교회들의 교제권이다. 여피들이 조깅과 에어로빅과 테니스와 자전거 타기를 위해서 특별히 편한 옷을 입는 것같이, 소비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형태의 예배나 교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교리적인 차이는 이차적이다

옛날에는 방언하는 설교자들을 쫓아내고, 신실한 사람들을 전향시키기 위해서 은밀한 카리스마적 심방을 추진하며 그들의 교회로 몰래 들어오려는 방언을 하는 설교자들을 막기 위해서, 방언을 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방언을 하는 설교자들에게 “돌을 던졌다.” 방언을 하는 설교자들은 고린도전서 14:18을 인용하면서 어느 누구와도 논쟁을 쉽게 벌이며, “내가 너희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라고 말한 바울과 그들이 같다는 것을 주장하며, 방언을 하지 않는 설교자들에게 “돌을 던졌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그의 심령을 정직히 표현할 수 있고 그에게 의미있고 확신되는 것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편안한 예배”를 원한다.

그러나 돌을 던지는 행위가 최근에는 수그러들었다. 오순절 교인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전향을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방언은 압도적인 성령의 은사로서보다는 기도의 언어로 사용되어진다.

사실 오늘날에 와서는 방언을 한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이나 승리를 얻는 성령 침례의 증거나 된다는 듯,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죽이고 위협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오늘날 방언의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른가 하는 문제보다도 방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있는 것 같다. 방언은 더 이상 신학적으로 배타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교리가 소비자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잠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새 교파들에게 있어 교리가 교제를 위한 주요한 촉매제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회 생활의 다른 영역들에 비해 뒷자리로 밀려나야 할지도 모른다. 여러 교파들은 머리를 수면 위에 내놓기 위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들은 회원 수와 재정과 목회자 후보생들과 일반적인 생명력에 있어서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차질을 빚을 때, 그들은 종종 병합할 만한 같은 마음을 품은 그룹을 찾아나서기 시작한다. 1969년에 복음주의 연합 형제회가 감리교회와 병합을 해서 연합감리교회를 형성했다. 그들의 교리 대부분이 같은 신학 유파 성결교와 알미니안-로부터 왔고, 본래 분리된 교단을 만들고자

개척자들이 희생하며 동기를 부여했던 차이들은 병합을 위해서 승화되었다.

필그림 성결교회는 다른 감리교회들과 병합해서 웨슬리안 교회를 형성했고, 현재 웨슬리안 교파는 나사렛 교회와 병합을 논의하는 중이다. 미국의 루터란 교회는 미국루터란교회와 병합을 했다. 이처럼 근래에 들어 새 교파들이 그들의 교파적인 음악을 좀더 부드럽게 부르듯이 비슷하게 병합을 추구하는 옛 교파들은 예전에 신성하게 지키던 교리들을 지금은 덜 강조하고 있다.

“같은 사역”은 필수적이다

그러한 그룹들에 관해서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말자. 그들은 교사가 어제 가르친 학습 내용을 지우듯이 칠판 위에 있는 모든 교리를 모두 없애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교리를 “존재론적”- 존재를 위한 그들의 주요한 이유로서 - 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교회의 존재를 교리 안에 세우거나, 자신들만이 성경적이고 바르다는 주장 위에 세우지 않는다.

새로운 교파들은 교리를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 이 말은 자신들의 교리적 독특함이 삶이나 자신들의 예배 형태 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들은 바르거나 성서적이 되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종이 위에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중에 손을 들거나 말씀에 초점을 맞춘 강해 설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새 교파들을 형성하는 촉매나 옛 교파들을 병합하는 추진력은 대체로 광범위한 교리적인 범주 안에 떨어진다. 칼빈주의자들은 다른 칼빈주의자들과 교제하지만, 근본이 같다면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입장을 보인다. 예를 들면, 어느 칼빈주의적인 교회는 전도를 하는 방법-버스 사용, 축호 심방, 강단 초청과 이와 비슷한 것들이 다른 교회들과 충분히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주의가 열쇠가 아니다. 이 교회들은 과거에 그들을 분리시

켰던 칼빈주의 5대 강령이나 4대 강령 등의 교리가 다른 문제들보다는 설교의 형태나 설교 후 초청 문제들을 놓고 서로간에 교제를 신속히 깨뜨리려고 할 것이다.

새 교파들은 신학이 예배에서 표현되어질 때 자신들의 교리에 깊은 헌신을 한다. 새로운 신의가 독특한 예배의식이나 교리 안에서 그 표현의 성취나 적합성을 발견할 수 있는 예배에서 생긴다. 외부 형태의 차이는 종종 교리로부터 생기며, 과거의 교리적인 분열처럼 그렇게 깊은 분열을 교회 교제권 안에서 일으킬 수 있다.

독특한 형태의 다른 표현들은 미래에 새 교파들로 귀결될 수 있다. 텍사스 주 록웰 시 반석 위의 교회의 목회자인 래리 리는 독특한 형태의 기도 사역에 중심을 두고 있다. 다른 새 교파의 그룹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수양회 그리고 목회자 수련회 등을 통해 전파되고 번영되는 신학의 표현들이다.

교회 생활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은 큰 그룹의 목적과는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하부 그룹들의 교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가끔 이러한 작은 운동들은 연합감리교회 안의 기쁜소식운동과 같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본래 목적으로 그 교파를 돌이키기 원한다. 다른 경우에는 하부 그룹이 남침례회 안에 있는 남침례교 동맹-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시에 새로운 신학교를 조직하려고 하는 그룹과 같이, 그 자신을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조직하려고 했다.

새롭게 생겨나는 교회들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신학교의 성장은 가끔 “그들 자신 위에 가치를 뺏는 것”으로 해석되곤 하였다. 1950년대 이전에 형성되었던 예전의 신학교들은 재정적인 삶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학교인가와 건물과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전을 하고 있다.

어떤 신학교들은 사라졌고, 어떤 신학교들은 학생수에 있어서 퇴조를 기록했고, 어떤 신학교들은 병합을 했다. 그러나 새로이 발견된 기술들과 교회를 세우고 도시들을 사로잡고 다수를 구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하게 될 성공적인 운동들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 의해서 후원되는 신학교만큼 튼튼한 신학교는 거의 없다. 그리고 성공적인 새 운동들이 종종 교육적인 기반 위에서 시작됨으로, 이러한 새로운 신학교들은 유아적인 교파들을 위한 첫번째 단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새로운 부머교회들은 교리보다는 목적에 대한 그들의 진술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에 의해서 더 알려져 있다. 부머들은 위선의 장애물을 넘기 전에 교리적인 일탈의 장애물을 넘을 것이다. 부머들은 그들의 성격, 즉 기능적이고 현대적이고 기술적인 승자들을 반영하는 교회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할 것이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던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이 그들의 방법을 분명히 할 때,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목회 형태를 가진 교회에 가담을 할 것이다.

교회들 사이의 교파적인 이해에 관한 케케묵은 것으로는 교리를 의미하는 “같은 믿음”과 삶의 양식을 의미하는 “같은 실천”이 있다. 이제 새로운 정열은 “같은 목회”이다.

교파를 중시하는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교파는 그들이 하던 경기 방식을 바꾸고 있다. 새 시대의 교파는 같은 기능과 사역을 가진 교회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한다.

18

요약과 결론

이 책에 수록된 교회들 간에는 많은 비교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섯 명의 목회자는 부머 목회자들이다 - 맥스웰, 하이블, 폼, 갤로우웨이, 커튼 그리고 맥킨토시. 나머지 네 명의 목회자들은 부머 시대 이전에 출생했다.

방법론

내가 생각하기에 다섯 교회는 혁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들이다. - 잭슨빌의 제일 침례교회, 휴스턴의 제이 침례교회, 위치타의 중앙 커뮤니티 교회, 애틀랜타의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 샌디에이고의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나머지 다섯 교회는 성격상 혁신적이다.

네 개의 교회는 현재 목회자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즉 이 말은 혁신적으로 변화하기에 비교적 쉽다는 의미다. 이 목회자들은 폼, 하이블, 갤로우웨이, 맥킨토시다. 다른 여섯 명의 목회자는 기존의 교회에서 변화를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에서 두 가지 형태의 지도력을 관찰할 수 있는 데, 전통적인 교회에 청빙을 받았던 목회자보다 더 쉽게 변화를 도입할 수 있는 설립(개척) 목회자가 그 하나요, 새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옛 방법을 다루어야만 했던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이 또 하나이다.

신학

네 개의 교회가 신학적인 방향에 있어서 칼빈주의적이다-페리미터, 윌로우 크릭, 잭슨빌의 제일 침례교회와 휴스턴의 제이 침례교회. 여섯 교회는 웨슬리안 혹은 알미니안주의이다-스카이라인 웨슬리안, 뉴 호프 커뮤니티, 진행하는 교회, 마운트 파란,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쉽과 중앙 커뮤니티 교회.

위치

어떤 교회들은 교외에 있긴 하지만, 모든 교회가 전망에 있어서 도시적이다. 윌러스 시 교회 유형은 이러한 교회에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 아마도, 모든 교회가 세번째 유형-전 대도시를 섬기는 대도시 교회-에 속할 것이다.

두 교회는 이웃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에 위치해 있다 - 진행하는 교회와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그러나 도시공동화 현상에 따른 인구 이탈과 지역사회 침체를 동반한 도시 내부의 사회학적인 양상은 가지고 있지 않다. 잭슨빌에 소재한 제일 침례교회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

두 개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해 온 이후에 장소를 변경했다-마운트 파란과 중앙 커뮤니티 교회. 네 명의 설립 목회자들도 적어도 한 번은 교회 위치를 옮겼다-페리미터 장로교회의 톱,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하이블,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겔로우웨이,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쉽 교회의 맥킨토시.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게 된 주요 동기를 분석해 볼 때, 우리는 네 교회가 모두 더 넓은 부지나 더 나은 지역에 위치하기 위해서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목회자의 교육

한 명의 목회자가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애틀랜타 시에 소재한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의 폴 위커로서, 그의 경우 오순절주의자들은 고등 교육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많은 사람들의 통념을 깨뜨렸다. 비록 칼빈주의적인 배경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칼빈주의적인 목회자들 중 아무도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결혼 상태

두 명의 목회자 - 겔로우웨이와 맥킨토시 - 가 이혼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그들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다. 두 사람의 경험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데 사용되었다. 나는 이혼한 사람을 목회자로 인수해 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외의 다른 영역들 즉 침례나, 이적의 은사들, 그밖의 부차적인 축복들에서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비록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 해석에서 세대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축복의 법칙” - 하나님은 헌신과 기도와 믿음의 근본적인 사항들을 설교하는 일을 축복하신다 - 은 알고 있다.

하나님은 겔로우웨이와 맥킨토시를 축복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깊이 헌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두 목회자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청취하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리적인 정통만을 축복하신다고는 할 수 없다. 비록 하나님은 정통 이하 혹은 정통을 부정하는 것은 축복하실 수 없으나, 그는 정통 이상의 것에는 축복하신다.

토요일 저녁예배

아마도 이 책의 가장 논쟁적인 혁신은 월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토요일 저녁예배일 것이다. 내가 신학교에서 빌 하이블의 이러한 실천에 관해서 언급했을 때, 나는 부정적인 반작용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러한 방식을 싫어한다. 그들은 예배는 주일에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부머들은 일반적으로 토요일 저녁예배를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전통적인 교인들 못지 않게 목소리를 높인다.

이러한 불일치는 이 책 안에 있는 다른 혁신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한 혁신들이 논쟁거리는 되겠지만, 효과는 없었다. 내가 뉴욕에서 열린 목회자 수양회에서 월로우 크릭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회자가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이와 같이 대답했다. “나도 당신의 생각에 동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토요일 저녁에 300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목회자들의 반응은 대단했고 긍정적이었다. “예, 우리는 그들에게 설교하려고 할 것입니다.”

부록

다음의 12 개의 비교 도표는 이 책에 있는 10대 교회에 대한 통계이며, 그 열 개 교회에 대한 신빙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편집되었다. 이 도표들은 프로그램 및 성장과 더불어 혁신적인 경향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비교해 보려는 진지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시되었다.

교회 재적 회원수

	1979	1980	1986	1987	1988	1989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1,490	1,457	1,812	2,066	2,125	2,485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8,340	10,190	12,940	16,660
진행하는 교회	2,494	2,903	5,606	6,217	6,752	7,056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409	515	3,398	4,001	4,651	5,058
페리미터 교회	250	350	1,006	1,273	1,562	1,900
제일 침례교회	10,214	11,460	16,654	17,711	18,672	19,588
중앙 커뮤니티 교회	550	600	1,200	1,400	1,575	3,050
제이 침례교회	4,563	5,128	10,481	12,410	13,733	15,064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쉽 교회	공식적인 회원수가 없음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	4,141	4,691	8,679	9,240	9,464	9,825

평균 예배 참석인수

	1979	1980	1986	1987	1988	1989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1,040	1,133	2,265	2,566	2,901	3,128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1,898	2,057	6,980	8,656	10,346	12,002
진행하는 교회	3,268	3,649	4,922	5,383	5,358	5,347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400	500	3,400	4,000	4,500	5,000
페리미터 교회	300	450	1,200	1,425	1,745	2,000
제일 침례교회	3,700	4,100	6,600	6,800	7,000	7,600
중앙 커뮤니티 교회	510	550	1,107	1,283	1,380	2,015
제이 침례교회	1,888	2,104	7,907	10,260	11,240	12,182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쉽 교회	1,900	2,000	2,500	3,200	3,500	3,800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	3,231	3,659	6,769	7,209	8,030	8,850

평균 교회학교 참석인수

	1979	1980	1986	1987	1988	1989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1,326	1,355	1,865	2,098	2,452	2,596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405	478	2,279	3,107	3,369	4,112
진행하는 교회	1,474	1,582	1,447	1,989	2,053	2,148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200	250	800	1,000	1,200	1,500
페리미터 교회	250	300	850	1,000	1,100	1,290
제일 침례교회	3,551	3,979	5,388	5,690	5,944	6,272
중앙 커뮤니티 교회	514	600	921	1,000	1,100	1,250
제이 침례교회	948	1,105	4,091	4,386	4,804	5,193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십 교회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	1,180	1,247	1,424	1,682	1,741	1,906

평균 어린이 교회학교 참석인수

	1979	1980	1986	1987	1988	1989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483	498	637	771	854	861
월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172	221	1,046	1,524	1,734	2,074
진행하는 교회	693	743	839	1,029	1,045	1,025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페리미터 교회	80	100	280	300	330	400
제일 침례교회	1,017	1,034	1,408	1,480	1,567	1,682
중앙 커뮤니티 교회						
제이 침례교회	211	241	767	857	911	973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십 교회	850	875	950	950	1,000	1,200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	492	523	560	679	759	898

평균 청소년 교회학교 참석인수

	1979	1980	1986	1987	1988	1989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265	254	243	243	267	261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757	715	1,050	900	950	1,350
진행하는 교회	192	206	221	240	257	270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페리미터 교회	30	39	60	80	110	140
제일 침례교회	522	547	607	666	680	694
중앙 커뮤니티 교회						
제이 침례교회	94	116	330	359	396	444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십 교회	주간 성경공부반만 적용함					150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	110	132	184	212	170	178

평균 장년 교회학교 참석인수

	1979	1980	1986	1987	1988	1989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465	489	727	825	988	1,141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405	478	2,279	3,107	3,369	4,112
진행하는 교회	589	633	387	720	751	853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페리미터 교회	140	161	510	520	660	750
제일 침례교회	1,907	2,474	3,326	3,350	3,817	3,933
중앙 커뮤니티 교회						
제이 침례교회	643	748	2,994	3,170	3,497	3,776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십 교회				장년 교회학교가 없음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	578	592	680	791	812	830

헌금총계

	1979	1980	1986	1987	1988	1989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5억5천만	6억	16억	18억5천만	19억	30억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10억	10억6천만	44억	63억	65억	85억
진행하는 교회	30억	38억	62억	72억	89억	92억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2억	2억6천만	12억5천만	15억	16억	18억
페리미터 교회	2억4천만	3억	15억	20억	24억	26억
제일 침례교회	24억	29억	57억	94억	83억	75억5천만
중앙 커뮤니티 교회	2억9천만	3억5천만	180만	12억	16억	16억
제이 침례교회	12억	16억	85억	78억	112억	102억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십 교회			13억	17억	20억	23억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	14억	18억	40억	56억	81억	87억

* 단위:원

회심자수

	1979	1980	1986	1987	1988	1989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407	519	700	793	856	916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진행하는 교회	2,547	2,090	1,950	2,070	2,340	3,436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80%	80%	80%	80%	80%	80%
페리미터 교회	19	23	59	38	55	70
제일 침례교회	1,503	1,477	1,343	1,414	1,240	1,186
중앙 커뮤니티 교회					227	363
제이 침례교회	161	149	766	838	797	815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십 교회	690	700	720	825	820	850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	373	426	543	568	716	883

수침자수

	1979	1980	1986	1987	1988	1989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87	102	143	135	203	146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614	465	620	627
진행하는 교회	843	870	983	964	788	781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페리미터 교회	19	24	72	83	68	88
제일 침례교회	938	1,067	974	950	915	879
중앙 커뮤니티 교회					40	48
제이 침례교회	142	123	652	701	655	767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쉽 교회	590	620	625	650	690	767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	80	91	159	129	165	254

	건물 가치	좌석수	교회 부지	주차 공간	교파	셀그룹 참석인수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3,467,484	1,144	8.3	450	웨슬리안	있음/96
						1,135
월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9,840,000	4,554	127	2,650	초교파적	있음/251
						1,800
진행하는 교회	20,000,000	4,000 ¹	20	1,850 ²	국제 휘스퀘 어 복음교회 ³	있음/79
						1,000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8,000,000	3,000	41	1,150	무교파적	있음/500
						4,800
페리미터 교회	5,200,000	1,100	110		미국장로교	있음/120
						1,600
제일 침례교회	37,600,000	3,500	9 구획	3,265 ⁴	남침례회	없음
중앙 커뮤니티 교회	8,480,720	3,200	57.2	988	앤더슨 하나 님의 교회	있음/65-70
						850
제이 침례교회	72,000,000	6,200	48	4,887 ⁵	남침례회	없음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업 교회		1,950	20		크리스천 무교파적	있음/90
						1,800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	중앙 11,200,000	중앙 2,200	중앙 14.6	중앙 832	하나님의 교회	있음/270 ⁶
	북부 9,680,000	북부 3,500	북부 65	북부 1,250 버스 1,110		2,500

(1) 2400 동부 교정/1600 서부 교정, (2) 700 동부 교정, 500 서부 교정, 위성도시 650, (3) 국제 휘스퀘어 복음교회 "섬김", (4) 2,536이 교회에 의해 소유됨-729 유용한 다른 것들, (5) 2,387이 교정 위에, 2,500이 교정 밖에, (6) 120 교제 그룹들/ 150 포도나무 생활 그룹

* 건물가치 단위:천 원

	테이프 사역 오디오/비디오	텔레비전 사역 방송국수	라디오 사역 방송국수	전도 프로그램 관계된 계획	주간 방문 횟수 참석인수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있음 오디오	없음	없음	예/그레이드(네 개의 대그룹 의 제자도와 전도에 대한 훈 련에 따르는 성장)	250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있음 오디오	없음	없음	예/주말 전도팀이 접촉을 위 한 요청에 부응함	70 35
진행하는 교회	있음 오디오/비디오	있음 1012	있음 160	예/다양한 지역사회 봉사와 전도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있음 오디오	없음	없음	예/적용안됨	13,000 500 평신도 목회자들
페리미터 교회	있음 오디오	없음		없음	없음
제일 침례교회	있음 오디오/비디오	있음 1	있음 2	예/교회학교 부서나 반의 조 직을 통해서 회원들을 심방 하고 전도대상자를 방문함	3,000 1,500
중앙 커뮤니티 교회	있음 오디오/비디오	있음 1	없음	예/티엘씨(T.L.C.) 그룹들에 의한 전화 양육	
제이 침례교회	있음 오디오/비디오	있음 123+CBN, TBN	있음 1	예/교회학교반들을 통한 월 요일과 화요일 밤의 대규모 전도 방문	200-250 723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업 교회	있음 오디오/비디오	있음	있음 14	예/팀전도, 지역적이며 국가 적이며 국제적인 전도활동 및 노방전도	기록보관 안됨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	있음 오디오/비디오	있음 3	있음 16	예/개인전도훈련; 포도나무 생활 모임; 목회자의 방문	125,200+전화 72

	K-12주간학교 등록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학교명	학생수	학교의 목적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	없음	없음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없음	없음			
진행하는 교회	없음	있음	왕의 기관	300	개인적 성장을 돕고, 회원들의 사역을 확대하고,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킴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없음	없음			
페리미터 교회	1-8 단계	없음			
	150				
제일 침례교회	없음	없음			
중앙 커뮤니티 교회	없음	없음			
제이 침례교회	있음	없음			
	965				
호라이즌 크리스천 헬로우업 교회	10단계 이전	있음	호라이즌 전도학교	75	전도를 위해 신자들을 구비시킴
	400				
마운트 파란 하나님의 교회	있음	있음	심리학연구소	75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지역사회 상담 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제공; 마운트 파란에 상주된 교회 일치주의적인 프로그램
	675				

역자후기

엘머 타운스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고마우신 은사가 되신다. 리버티 침례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부터 이어진 개인적인 따뜻한 교분은 지금까지 아름답게 지속되고 있다. 그의 교회성장학 시간에 부여된 과제를 하기 위해 워싱턴의 제일한인침례교회(이동원 목사 시무)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만나며 교회성장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성장 평가 원리들을 적용해서 그 교회의 경이적인 성장을 심층 조사 분석하는 매우 유익한 기회를 가진 적이 있다. 역자의 보고서를 읽어보신 후에 지극히 미진한 작품을 매우 기뻐하신 타운스 학장님은 동 신학대학원에 재직하고 계시는 한국인 교수이신 김창엽 박사님께 사본을 떠서 보내시고, 그 이후에는 역자를 박사라고 호칭하신다. 그는 실로 제자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도량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다.

거의 60 권에 육박하는 그의 저서가 말해 주듯이, 그의 교회성장학은 성장의 진수를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볼 수 있듯 원리와 실제(방법론), 생명체(사람들)와 조직,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응시하는 데 일체의 소홀함이 없다. 그는 교회가 사업의 성공적인 원리들을 모방하고 적용하기를 추천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하나의 사업으로 전락하려는 위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는 성장 역학의 원리들은 불변하지만, 적용되는 상황과 시대의 변화에 대해 그 불변의 원리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매우 설득력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마치 명리가 정확히 진맥을 하듯이 그의 글과 강의는 항상 교회성장의 핵심이 되는 원리와 실상들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통찰력으로 일관되어 있다.

필자는 약 20 년 전 '미국의 10대 교회'라는 저서를 통해서 한국의 독

자들에게 이미 소개된 바 있어 그의 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계에 도 큰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듯이 금번의 이 노작 또한 21세기 미래를 바라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특별한 수단이 될 것을 확신한다. 특히 이 책은 한글 세대의 출현으로 세대적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이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본국의 목회자들과, 타국으로 이민을 온 한인들과, 그들의 후손인 이민 1.5세나 2세 등을 효율적으로 목회하고자 애쓰고 있는 이민 교회 사역자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 선교사들과,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들 모두에게 두루 유용한 책이 되리라 믿는다. 이 책은 이미 역자가 공부하고 있는 서부의 보수 명문 탈봇 신학대학원에서도 목회학 교재로 채택하여 사용되고 있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다른 독특한 문화와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서구 문화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현재 문화 구조나, 미국 교회로부터 직접적인 선교의 수혜자였던 한국 교회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공통된 성장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스승의 고마움에 대해 무엇으로든 보답하고 싶었던 한 제자의 마음과 한국 교회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싶은 한 목회자의 심정은 이 귀한 책의 번역을 통해서 다소간 해갈이 된 듯하다. 그동안 이 책의 번역을 위해서 후히 격려해 주신 타운스 학장님과 편찬의 실무를 맡아주신 요단출판사, 그리고 학업과 목회의 뻘뻘한 일정에 쫓기면서 번역에 임하는 남편을 지혜롭게 도와준 아내와, 여러 모로 도움을 준 탈봇의 전도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줄역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럼에도 약한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날로 성장하는 한국 교계에 신선한 혁신의 바람이 일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1992년 2월
남가주에서,
역자 김흥기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1993년 12월 24일 · 초판 1쇄 인쇄

1993년 12월 30일 ·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 엘머 타운스

옮긴이 · 김흥기

펴낸이 · 이상대

펴낸데 · 요단출판사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

편집부 ☎ (02) 780-0767

영업부 ☎ (02) 780-0765~6

FAX (02) 780-0768

등록 · 1973. 8. 23. 제13-10호

© 요단출판사 1993

정가 4,800원

ISBN 89-350-0093-0 03230

· 직영서점 ·

요단기독교서적센터 ☎ (02) 593-8715~7

FAX (02) 536-6266

대전침례회서관 ☎ (042) 256-2109

FAX (042) 254-0356

침례신학대학구내서점 ☎ (042) 823-5681

요단출판사 신앙양서 소개

디사이플 주석 성경

• 댄 G 캔트 외 99명 저/편역위원회 역/2,036쪽/25,000원
디사이플 주석 성경은 성경 전체를 27개의 주요 교리를 기둥으로 해서 분석 해설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록을 첨가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을 제시한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 안이숙 저/532쪽/5,800원
살아있는 순교자 안이숙 여사의 세번째 작품으로 86편의 아름다운 간증이 실려있다. 매편마다 흥미와 감동을 더해주고 있으며 세상에서 찢들린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귀한 책이다. 현재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지

• 안이숙 저/549쪽/5,800원
“축복의 문은 믿는 데서부터 열린다.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길표(성경)대로 가면 축복의 샘에 도달할 수 있다.” 안이숙 여사의 또하나 주님께 바치는 선물로서 주님을 향한 그의 정성과 사랑과 헌신의 믿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하여 그가 가졌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보기 바란다.

낮고 싶어요

• 안이숙 저/348쪽/5,000원
안이숙 사모님의 성경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다. 그러나 단지 성경만이 아니라 그분의 체험이 한데 곁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성경 인물들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솔직한 노래

• 안이숙 저/351쪽/5,000원
이 책은 안이숙 사모님의 시모음집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진지한 체험을 감동적인 간증으로 들려주었으나, 이제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시라는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솔직한 노래’로 다가온다. 우리는 이 시모음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의 삶을 문학으로 진솔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 로버트 E. 콜만 저/배병균 역/181쪽/3,000원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밤중에 아무도 몰래 예수를 찾아와서 만나기도 하고, 우물가에서 물길다가 예수를 만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만남들을 자세히 탐구함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예수 전도의 삶을 소중히 키워 본다.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 이동원 저/308쪽/4,800원

이동원 목사의 설교학 서적. 저자가 최초로 저술한 설교학서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의 준비 과정과 선포, 그리고 설교자의 자격과 설교개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설교하는 이들의 필독서이다.

나루터의 새아침

• 이동원 저/338쪽/4,000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주의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자고 선포한 이동원 목사의 설교집이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 윤영준 저/208쪽/3,200원

윤영준 목사의 예화집, 10여 년간의 미국 이민 목회생활에서 발굴한 보화와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어느 페이지를 열어도 결코 실망치 않을 것이다.

잊을 수 없는 경례

• 윤영준 저/296쪽/4,000원

『그 다음엔 또 어떻게』의 저자 윤영준 목사의 두번째 예화집. 첫번째 책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줄 내용들로 엮어진 책이다. 목상서적, 예화자료로서 설교준비를 포함한 모든 방면에 지혜와 도움을 줄 책이다.

인생을 다시 한 번

• 배훈 저/271쪽/4,000원

배훈 목사의 미주지역 목회 기간 7년 동안 교회 주보에 게재하였던 글 중에서 200여 편을 엄선하여 편집한 예화 교훈집이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잊을 수 없는 경례』와 함께 3대 교훈집으로서 한편 한편의 글들이 새롭고 생명력있는 예화들이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영적 지도력

• J. O. 샌더스 저/이동원 역/261쪽/3,500원

오늘날 우리는 역사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지도력(Leadership)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위기 속에 살고 있다. 모든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성경 다음가는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크리스웰 교리 설교집

• W. A. 크리스웰 저/이동원 역/전7권 가격 19,800원
크리스웰 박사의 영감 넘치는 복음적 말씀들. 그리스도인이 이해하기 쉽게 교리적 주제가 적절한 예화와 함께 선포되고 있다. (1) 성서론 (2) 삼위일체, 그리스도론 (3) 교회론 (4) 성령론 (5) 구원론 (6) 그리스도인 생활·청지기 직분 (7) 천사론·기도론

성서 그리고 현대 가정

• T. B. 매스틴·W. M. 톨만 저/이석철 역/329쪽/4,800원
현대 가정이 야기시키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서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자, 어린이, 노인, 독신자,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성관계, 이혼, 재혼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가정의 중요성이 점차로 더해 가는 현대라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는 가정을 발견하게 된다.

12종류 다이내믹한 성경연구

• 리차드 와렌 저/이명희 역/320쪽/3,200원
개인적으로나 그룹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12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헌신적인 성경공부, 장 요약, 성품, 주제, 인물, 제목, 낱말, 성경배경, 책 개관, 장 분해, 책 분해, 절 분해 등의 성경공부 방법을 다룬다. 또한 실제적인 부록도 소개한다.

세계종교의 이해

• G. W. 브라스웰 저/권혁봉 역/292쪽/3,500원
이 책은 기존의 비교종교학 서적들이 한 종교를 내어 놓고 그 종교의 여러 가지 국면들을 나열식으로 지루하게 소개하고 있는 약점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종교 일반의 거시안적 안목에서 주제별로 항목을 정해 놓고 주요한 다수 종교들의 입장을 비교적으로 제시하여 한 눈에 부담없이 여러 종교를 비교 가능케 해주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전쟁

• 프랭크 E. 페레티 저/이주엽 역/상·하권/권당 4,500원
본서는 뉴에이지 운동을 신학적 배경으로 한다. 셸리 로라는 한 영혼이 악한 영적 세력에 포로가 되어 방황하다가 생명되신 예수님을 만나 구속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체험을 적고 있다. 추리소설 기법으로 구성된 본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책을 읽는 즐거움을 만끽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위대함과 이 세상의 어떤 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배후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더해줄 것이다.

로마서 원문주석

• K.S. 위스트 저/김선기 역/370쪽/4,500원
본서는 헬라어에 익숙치 않은 성서학도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한글 번역만으로는 본문이 담고 있는 풍부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깊이 본문을 탐구하려는 성서 연구자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저술되었다.
